

프로그램 안내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프로그램 안내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
2013. 10. 30(수) - 11. 8(금)
부산 벡스코(Bexco)

ISBN 978-2-8254-1632-7



World Council
of Churches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 안내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프로그램 안내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2013

Copyright © 2013 World Council of Churches. All rights reserved.

이 저작물의 저작권은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있습니다. 국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사를 금합니다. 이 저작물의 사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publications@wcc-coe.org

WCC Publications는 WCC의 홍보출판국입니다.

WCC는 1948년 조직되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믿음, 증언, 봉사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세계적 교회연합기구인 WCC는 110개국에서 5억 6,000만 명 이상의 신자들을 대표하는 349개의 개신교 교단들과 정교회, 성공회 등을 통합합니다. 또한 로마가톨릭교회와도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표지 디자인: Judith Rempel Smucker

ISBN: 978-2-8254-1632-7

World Council of Churches
150 route de Ferney, P.O. Box 2100
1211 Geneva 2, Switzerland
www.oikoumene.org

차례

머리말	7
서론	9
1. WCC 제10차 총회	15
총회란 무엇인가?	17
총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18
희망과 기대	19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20
공동체적 생활	20
참가자들의 구분	20
총회 프로그램	23
WCC 회장단	24
중앙위원회 지도부	25
총회 전체 일정표	27
총회의 영적 생활	27
기도생활	28
성경공부	29
총회 전체회의	30
일반 전체회의	30
회무처리 전체회의	30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31
주제별 전체회의	31

에큐메니칼 좌담	34
에큐메니칼 좌담이란 무엇인가?	34
주제와 교회	35
교회의 일치와 선교와 봉사를 향한 현대의 도전	36
에큐메니칼 좌담 소개	37
총회 업무	48
위원회	48
공공쟁점처리위원회	50
인선위원회	53
마당 프로그램	56
마당이란 무엇인가?	56
마당 프로그램 구성요소	56
대륙별 그리고 교단별 회의	58
2. 정책 문서들	59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헌장과 규칙	61
규칙 부록에서 발췌한 내용	111
WCC 회의 진행에 대한 지침	113
합의제 절차를 위한 순서도	131
그리스도인의 연대가 깨어질 때: 성회령에 대한 목회적·교육적 대응	134
3. 총회 문서들	139
하나님의 선물과 일치로의 부르심-그리고 우리의 헌신	141
용어 설명	149

머리말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Olav Fykse Tveit)

세계교회협의회 총무

『프로그램 안내』(*Programme Book*) 안에는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에 참석할 총대들과 기타 참가자들을 위한 몇 가지 주요 문서들과 문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총회의 모든 면모와 활동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총회의 회무처리와 의사결정을 위한 수단 및 그에 대한 해설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 책자에는 이번 총회에서 검토되고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 제안되는, 일치에 관한 성명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핵심 목표이자 WCC의 주요 목적인바, 기독교의 일치가 우리 시대에서 어떠한 현재적 의미를 지니는지 포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프로그램 안내』에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WCC의 본질과 목적 곧 “성경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임과 구세주로 고백하며 따라서, 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공동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회들의 공동체”(WCC 헌장 제1조)—임을 이해하도록 하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프로그램 안내』에 실려 있는 자료를 잘 익혀둘 것을 권합니다—기도를 통해 과제에 접근하고, 특히 참가자들이 속한 교회와 상황에 따른 생활과 증언에 비추어, 여기에 실린 내용을 자세히 읽고 그것에 대해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이 책자를 부산으로 가지고 오셔서, 매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와 더불어 참가자들이 총회에서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료 모음』(Resource Book)에는 총회에서 논의하게 될 주요 주제를 다룬 최근의 중요한 문서들이 실려 있고, 『생명의 하나님』(God of Life)에는 총회에서 진행되는 성경공부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믿음』(A Faith That Does Justice)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WCC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이며 여기에 도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전체 6과로 구성된 평신도 자료인 『부산으로의 순례』(Pilgrimage to Busan)는 단체나 회중 차원에서 총회의 참가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주요 주제에 대해 성찰하도록 인도해줍니다. 참가자들은 총회에 도착하는 즉시, 『할렐루야! 예배와 찬양자료 모음』(Hallelujah! Resources for Prayer and Praise)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총회를 위해 선정한 기도문과 찬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총회 『핸드북』(Handbook)도 배포될 것인데, 여기에는 매일의 일정과 장소 배치도를 비롯하여 부산에서의 공동생활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실제적인 정보가 실려 있습니다.

총회는 WCC의 활동에 있어서 종종 전환점이 되어왔으며, 부산 총회도 교회일치 운동의 역사에 분명히 그 족적을 남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총회의 참가를 준비하면서, 이 책자를 비롯한 다른 자료들을 세심하게 검토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바라기는 총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교인들과 자주 접촉해서, 여러분을 파견한 공동체가 가진 관심사와 희망과 기도에 대해 이곳 부산에서 증언해주시고, 이로써 여정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가게 될 때, 그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 하에, 2013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열린다.

총회는 WCC의 최고 치리기구이며, 345개의 회원 교회들이 전체로 모여 기도와 경축을 통해 교제를 나누는 독보적인 계기가 된다. 총회는 WCC의 사업을 검토하고, 정책 전반에 대해 결정하며, 공식 성명서를 채택하고, 새로운 중앙위원회를 선출하는 책임을 위임받았다. 오로지 총회만이 WCC의 현장을 변경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다.

그러나 총회는 회원 교회들 간의 교제를 드러내고 회무를 처리하는 것 이상이다. 총회는 교회들과 협력단체들이 모이는 세계적 규모의 대표적인 에큐메니칼 회합이다. 이에 따라 WCC 총회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가장 크고, 가장 다양성이 풍부한 모임으로 자리매김 된다. 총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여정 중에서 하나의 독특한 계기인바, 이를 통해 가시적 일치와 공동의 증언을 심화시켜 세상으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자는 총회가 지닌 많은 면모와 그 활동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성취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WCC의 현장을 포함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주요 문서들이 들어 있다.

이번이 WCC의 제10차 총회이지만, 새로운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총회를 준비하면서, WCC 중앙위원회는 WCC만이 교회들의 가시적 일치와 공동 증언에 이바지하는 것은 아님을 알고 있기에, 총회로 하여금 WCC를 넘어서는 더 광범위한 교회일치운동을 크고 차별하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일

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이번 총회는 회원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이—WCC만의 의제를 넘어서서—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열린]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총회는 교회들과 협력단체들의 모임으로서—회무 중심의 의제를 넘어—공동의 기도와 성경공부, 축제와 성찰을 바탕으로 삼는다. 또한 총회는—WCC 총회 행사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한편 참여폭의 확대를 바라는 요구에도 부응하면서—공동체 형성과 합의제 도출을 근거로 하는 “더불어”(togetherness)의 정신을 살려 준비해왔다.

총회 주제

총회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참여폭—교제의 경험을 심화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며, 중요한 이슈를 다루는 대화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획된 각종 행사를 풍성히 제공한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조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에 따른 것이지만, 모든 창조계를 위한 정의와 평화의 증인으로서, 총회가 이 기도—오늘의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사는 교회가 되는 일에—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총회 주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교회들과 교회단체들과 제자 된 개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사와 사역을 가지고 정의와 평화를 위한 운동에 공헌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고 숙고해야 할 여지를 제공한다. 총회가 해야 할 일은 대부분 총회 주제가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에 대해 지니는 의미와 함축성을 탐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총회 장소: 대한민국

이번 총회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총회가 모이는 장소이다.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WCC 총회가 될 것이며, 보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아시아적 상황이 이 모임에 뚜렷한 형태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총회의 유치 장소로 선택된 이유 중 하나는 한국교회들의 증언

이 세계 에큐메니칼 운동에 제공하는 독특한 에큐메니칼적 “지평” 때문이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WCC 회원 교회뿐 아니라 복음주의교회들과 오순절교회들까지 공동으로 연합하여, 한국에서 모임을 갖게 해달라고 초청하였다. 한국교회가 급속히 성장한 결과, 인구의 약 25%가 그리스도인들이다. 한국이 처한 다종교적 상황에서의 교회의 역할은 세계 곳곳의 다른 교회들이 종교 간의 살아있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귀감이 될 것이다.

한반도는 [아직도] 정치적으로 분열된 지역으로 남아 있다. 많은 한국인들은 자기 민족이 언젠가는 재통일 될 것이라는 강한 희망을 품고 있다. 한국의 교회들은 에큐메니칼 운동과 보조를 같이하는 가운데 수십 년에 걸쳐 통일운동을 지원해오고 있다. [한국의] 통일을 향한 희망과 통일을 위한 총회의 증언은 WCC의 제10차 총회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게 될 것이다.

마당

마당은 한국의 전통 가옥 안에 있는 뜰을 가리키는 한국어이다. 마당은 만남과 나눔, 경축과 교제를 위한 공간이면서 방문자를 환영하고 외부인사들을 환대하며 따뜻한 은혜를 나누는 공간이다.

한국의 교회들은 총회를 개최지의 상황에 뿌리내리게 하고 총회에 [구체적인]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콘셉트로 마당을 제안하였다. 1998년 하라레 총회와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에서도 이에 해당되는 파다레(padare)와 무띠라오(mutirão)의 콘셉트가 있었는데, 이것들은 여러 상이한 집단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이 참여하는 워크숍, 전시회 및 부대행사들을 위한 제한된 공유 공간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부산 총회가 지향하는 비전은 보다 더 통진적인 것이다. 마당은 총회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열린 공간이 되도록 하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열린] 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오늘의 세상 속에서 더불어 교회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서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풍부한 프로그램

총회의 주제에 중심을 두고 기획된 총회 프로그램은 여러 방식을 통해 참가자들이 에큐메니칼적인 기독교와 그것이 추구하는 갱신운동에 더불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도”는 총회 기간 동안 매일의 시작과 마침을 알린다. 예배생활은 총회의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다. 예배는 기도를 통해 함께 연합하는 가운데, 예전적인 은사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총회가 그 주제—“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에 굳건히 서도록 인도해준다.

매일의 “성경공부”는 역대 총회 프로그램 중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해왔다. 성경공부 역시 믿음과 문화를 나누는 열린 공간이 될 것이다. 매일의 성경공부를 위한 본문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던 순간에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의와 평화가 승리하게 된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6개의 “주제별 전체회의”(thematic plenaries)가 총회 기간 동안 진행된다. 이 전체회의는 총회 개회, 총회 주제의 탐구 및 아시아 전체회의와 같은 대규모의 행사들을 통해, 축제와 감동의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선교, 일치, 정의, 평화의 주제를 각각 다루는 4개의 회의를 통해, 교회들이 함께 직면해야 할 전 지구적 차원의 도전에 대해 발표하면서,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이 함께 동역하는 방식을 부각시킬 것이다.

공통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촉진하기 위하여 21개의 “에큐메니칼 좌담”이 기획되어 있다. 각 좌담은 각기 단일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연속 대화를 위한 90분 단위의 모임이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좌담은 교회들과 협력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기존의 협력관계를 과약하는 한편, 장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진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개별 좌담에 대한 보고서들은 부산 총회 이후의 시기 동안 공동의 에큐메니칼적 의제들을 입안하는 데 반영될 것이다.

총회 전체가 “마당”의 정신에 따라 진행되는 한편, 개별 마당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워크숍과 전시회, 특별행사와 퍼포먼스, 연극과 시각예술 및 토론의 공간 등을 통하여 참가자들 간에 서로 은사와 경험을 교환하도록 촉진할 것이다. 마당 프로

그럼은 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가장 다양한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총회의 초점이 주로 축제와 대화와 실천에 맞춰져 있지만, 회원 교회의 총대들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의 공식 대표들은 다량의 회무도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는 치리구조를 변경하고 각종 선거를 치르며, 프로그램 지침서와 정책 참조와 공공쟁점과 후보 추천과 재정 및 총회의 메시지에 대해 총회 위원회들로부터 보고서를 받는 일도 포함된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참여 분위기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총회 시작 이틀 전에 각종 “사전대회 및 행사”가 진행된다. 여성과 남성, 청년, 원주민들을 위한 사전대회와 아울러 에큐메니칼장애인연대네트워크(Ecumenical Disability Advocate Network: EDAN)도 열릴 것이다. 세계에큐메니칼신학원(GETI)이 서울에서 개최되어 부산에서 속개되므로, 학생들과 교수진이 총회 현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이 책자의 다음 단락들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총회 참가자들에게 총회의 여러 차원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온, 기독교의 다양한 전통을 대표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이번 총회가 기독교의 일치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방식에서 다양성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희망한다. 주요 이슈에 대해 심사숙고 하다 보면 향후 수년 안에 회원 교회들과 WCC 및 더 광범위한 에큐메니칼 영역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으로의 참여로 유도될 것이다.

생명과 평화와 정의에 초점을 둔 총회의 방침은 분명히 생명의 돌봄과 모든 창조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충만함을 위한 긴급한 행동에의 촉구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총회가 한국인들이 품은 특별한 소망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화해를 위한 분수령이 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는 부산 총회 이후의 시기에 경제 정의 및 창조계에 대한 정의에 더 강력한 주의를 촉구하고자 한다.

이 책자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그 밖의 총회 자료들은 총회 웹사이트 www.wcc2013.info에도 편리하게 정리되어 있다.

WCC 제10차 총회

총회란 무엇인가?

WCC 총회는 WCC에 소속한 회원 교회들이 서로 간의 교제를 재확인하고 협의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것이다. WCC가 공식적으로 결성된 1948년 암스테르담의 첫 총회 이래로 이 총회 행사들은 교회들의 현장과 WCC의 역사에서 주요한 계기를 남겨주었다. 총회는 약 7년 간격을 두고 열린다—1954년 에반스톤(미국), 1961년 델리(인도), 1968년 옴살라(스웨덴), 1975년 나이로비(케냐), 1983년 밴쿠버(캐나다), 1991년 캔버라(호주), 1998년 하라레(짐바브웨),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브라질), 이어서 올해 부산(2013)이다.

WCC의 회원 교회들이 공식 대표로 파견한 총대들이 총회를 구성한다. 중앙위원회는 회원 교회들과 협의하여 각 회원 교회별 총대 수를 결정한다. 교회가 파견한 총대들만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기타 다양한 참가자들이 총대들과 동반하여 참석하는바, 이들은 중앙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총회를 돕기 위해 오는 이들이다. 이들 기타 참가자들 중에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나 회의석상에서 발언권을 가진 이들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단락에 나와 있다.

총회는 대략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이러한 종류의 대의제 구성체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총회는 회원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이 WCC를 통해 맺고 있는 상호 결속관계를 경축하고 재확인하는 계기이다. 총회는 교회들이 자기들의 총대들과 총회에 모인 모든 이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고백을 재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계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모여서 경축하고 결속관계를 확인하는 행사가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 굳건한 토대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매 총회마다 주제를 설정한다. 부산 총회를 위해 채택한 주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는 하나의 기도이며, 이를 통해 준비과정을 지도하고 성찰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총회에서는 기도와 성경 공부, 토론과 성찰을 통해 이 주제를 매일 탐구할 것이다.

둘째, 총회는 교회들이 모여서 지난 총회 이후 7년 동안 WCC가 회원 교회 및 협력단체들과 더불어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이다. 『정의를 행하는 믿음: 포르토 알레그레로부터 부산에 이르는 WCC의 여정』과 『자료 모음』에 들어 있는 문건들을 포함한 여러 유인물들이 WCC의 사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에게 첫 번째 회무처리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고한다. 거기서 WCC의 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이다.

셋째, 총회는 WCC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WCC의 향후 사업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지침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총대들 중에서 150명의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해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차기 총회까지 WCC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지게 된다. 총회는 또한 WCC의 회장단을 선출한다.

총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총회가 대규모인데다가, 이 세 가지 기능 모두에 적절히 관심을 기울이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최대한의 참여를 보장하되, 업무가 절차에 따라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면밀하게 구성하였다.

총회는 매일 공동기도로 시작하고 마친다. 아침 기도에 이어서 참가자들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여 그날을 위해 선택된 성경 본문을 그들이 속한 교회의 현장과 매일의 경험에 비추어 묵상한다.

주제별 전체회의들은 교회가 오늘날 마주한 몇 가지 주요 쟁점들을 제기한다. 여기에는 교회의 일치와 선교, 정의와 평화의 추구, 세계교회, 특히 아시아지역에서의 급변하는 정세 등이 포함된다.

총대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에큐메니칼 좌담에 참여하여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서 다루어지는 21개의 특정 주제는 급변하는 정치, 사회, 경제 및 종교와 에큐메니칼 환경에 관련된 것이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들과 개별 그리스도인들은 생명, 정의, 평화를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총회 위원회들은 WCC의 향후 방향성과 지도력에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다. 총대들은 총회의 종료를 앞두고, 의결회의에서 위원회들이 제출한 건의안들에 대해 합의를 모색할 것이다.

“마당”은 총회 기간 동안 열리는 워크숍, 전시회, 이벤트가 진행되는 일종의 뜰과

같은 것으로, 회원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의 나눔을 통하여 총회를 굳건히 세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총회는 개최지 교회들의 삶과 증언에 동참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이다. 이는 11월 2일과 3일에 열리는 에큐메니칼 평화 순례에서 절정에 이를 것이다. 약 800명의 참가자들이 토요일에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향한 소망에 초점을 두고 지역 교회들을 방문할 것이다. 토요일에 부산에 머무는 참가자들은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 및 지역 공동체 사업과 문화적 명소를 둘러보는 다양한 순서를 가질 것이다. 일요일에, 서울과 부산에 머물고 있는 참가자들은 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회중들과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것이다.

아울러,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마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총회에 참여할 것이며, 한국교회의 복음적 증언과 문화적 나눔을 위한 풍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총회를 구성하는 이와 같은 다채로운 요소는 마치 “집짓는 벽돌”과도 같다. 『프로그램 안내』는 이하의 단락에서 이에 대해 더 상세한 해설을 제공한다.

희망과 기대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품게 된 몇 가지 희망과 기대사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의제를 정하며 전체적인 구성을 결정하게 되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희망과 기대사항은 총회가 모이는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일치와 증언이 긴급히 요청되는 것, 한반도에서 화해가 긴급히 요청되는 것, 아울러 WCC 및 회원 교회들과 복음주의교회, 오순절교회와 로마 가톨릭교회 간의 보다 밀접한 유대를 통하여 에큐메니칼 현장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번 총회는 아시아에서 열리는 두 번째 총회가 될 것이다. 아시아지역에서 기독교의 급속한 성장, 몇몇 아시아 국가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자로서 겪는 심각한 도전, 이 지역에서 지속되는 경제 사회적 변화, 한반도에서 화해를 이루어야 할 긴급한 필요성 등 이 모든 상황은 이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더불어 에큐메니칼적인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

총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총회에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기독교 교파 출신의 교회 지도자들과 에큐메니칼 활동가들이 최대 3,000명까지 참가할 것이다. 이번 총회는 이와 같은 종류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세계적 차원의 회합에 속한다.

공동체적 생활

이토록 다양한 문화와 교회전통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모이는 모임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은총이 지닌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된다. 많은 참가자들에게 총회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와 공동의 증언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놀라운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양성은 오해와 실망 및 에큐메니칼 환경 속에서 갈등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참가자에게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인내와 분별을 가지고 대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참가자는 자기가 가진 언어, 문화, 전통, 경험을 모두의 유익을 위해 나눌 수 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마 22:39).

의사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대한 지침과 아울러 정책 문서 <그리스도인의 연대가 깨어질 때>—둘 다 이 책 안에 들어 있다—는 총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배양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

참가자들의 구분

참가자들 각자는 총회에서 특정한 역할이 있다. WCC 규칙 IV조(이 책 “헌장과 규칙” 부분을 볼 것)는 이들의 역할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설명한다. 모든 참가자는 성명, 소속 교회, 출신 국가, 역할 내지 참가구분을 표시한 배지를 착용한다. 다음은 참가자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간략하게 해설한다.

- 총대(최대 825명): WCC 회원 교회들을 대표한다. 이중 85%는 회원 교회가

직접 지명하고, 총회 구성의 다양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최대 15%까지는 중앙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원 교회가 지명한다(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CC 규칙 IV조에 규정되어 있음). 회원 교회들을 대표하는 총대들만이 총회의 의사결정에 참가할 자격을 갖고 있다.

- 중앙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단 및 WCC 회장단: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선출된 이들 의장과 부의장들 및 회장들은 발언권을 갖고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이들이 총대로 지명되었을 경우 의사결정에도 참가한다).
- 퇴임하는 중앙위원회 위원들: 2006년부터 2013년을 임기로 선출된 이들은 소속 교회의 총대이거나 발언권을 가진 참가자의 자격으로 총회에 출석한다.

총회에서 발언권을 보유한 기타 참가자들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회원 교회들은 중앙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총대단 자문위원(adviser to the delegation) 1인을 지명한다. 그는 교회의 현장 내에서 에큐메니칼 업무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며, 총회 기간 동안 대표단과 동행한다.
- 파견 대표들(delegated representatives)은 WCC와 협력관계에 있는 교파별 세계연합체, 대륙별·국가별 에큐메니칼 기구들, 국제 에큐메니칼 조직들 및 특수 사역단체들을 대표한다.
- 파견 참관인들(delegated observers)은 WCC의 회원 교회는 아니지만, WCC와 협력관계에 있는 교회들—이에 속하는 최대 단체는 로마가톨릭교회이며 그밖에 여러 오순절교회가 있다—이 공식적으로 지명한다.
- 중앙위원회는 총회의 심의과정에 특별한 공헌을 할 이들, 또는 WCC의 활동에 참가해온 이들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들(advisers)을 위촉하였다.

총회에 참가자로 등록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나 의장의 특별 요청이 없는 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거나 발언할 권리가 없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 참관인들(observers)은 WCC의 회원이 아니거나 공식 참관인 내지 공식 대표를 보내지 않은 에큐메니칼 조직이나 교회들에서 온 이들이다.

참관인으로 참석한 이들 중에는 이번 총회에 출석한 회원 교회의 수장이긴 하지

만 소속 교회의 총대가 아닌 이들도 있다.

- 방문자(Guests): 개인 자격으로 초청받은 이들이다.
- 총회 참가자들(Assembly participants): 세계 여러 지역과 특히 아시아에서 부산으로 와서 총회의 생활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사람들. 이들은 개인이거나, 회중이거나, 학생단체이거나 에큐메니칼 활동가들로서, 이들 중 어떤 이들은 단순 참가자들이지만, 다른 이들은 워크숍이나 문화 축전 및 기타 활동을 제공한다. 한국인들이 총회에 대거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중 어떤 이들은 전체 총회 기간 동안 체류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하루나 이틀 정도 머물 것이다.
- GETI 참가자들(GETI participants): 세계에큐메니칼신학원(Global Ecumenical Theological Institute)은 오늘날의 교회를 주제로 연구하고 성찰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180명의 학생들과 교수진을 초청한다. 기타 학생들은 한국에큐메니칼신학원(Korean Ecumenical Theological Institute)을 통해 KETI 참가자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 봉사자들(Stewards): 세계 여러 곳에서 온 18-30세 연령에 속한 약 150명의 청년들이다. 이들은 총회의 운영을 돕는 것과 동시에 에큐메니칼 형성을 체험하고, 청년층의 발언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 WCC 직원들(WCC staffs): WCC가 고용한 약 100명의 직원들이 현장에서 총회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행정, 재정, 업무관리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봉사할 것이다.
- 축탁 직원들(Co-opted staffs): 총회 운영 기간 중에 WCC 직원들을 돕기 위해 위촉된 이들이다.
- 한국준비위원회 위원들과 자원봉사자들: 수년 전부터 총회를 준비해온 이들은 이번 총회에서도 다양한 사역을 통해 조력한다.
- 공인된 언론사 직원들: 100명 이상이 이번 총회를 보도하기 위하여 참관할 것이다. 이중에는 작가와, 라디오 및 TV 기자, 사진작가와 엔지니어들이 포함된다.
- 용역 기사들과 협력업체 직원들: 업무처리와 기술 제공을 위해 총회와 협력계약을 체결한 업체에서 일하는 이들이다.

총회 프로그램

풍부하고도 다양한 총회 프로그램에는 교제, 축하행사, 토론, 의사결정 및 기도 등을 포함하여 몇 가지 상호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차 총회는 21세기의 시대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들과 교회일치운동이 지녀야 할 영감과 동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총회의 주목할 점으로는 지속적으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일, 여러 전통에 속한 교회들을 더 광범위하게 참여케 하는 일, 생명의 하나님께서 참된 정의와 항구적인 평화를 향하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끄시는 방식에 대한 공동 연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총회 프로그램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에 근거하여 총대와 기타 참가자들로 하여금 오늘의 세계에서 전 창조계를 위한 정의와 평화의 증인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됨을 통하여 이 기도 형식의 주제에 응답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 총회 프로그램은 오늘의 세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 됨에 내포된 몇 가지 중요한 차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코이노니아(친교)—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과 교제를 통한 일치
 마르튀리아(증언)—세상 속에서 교회가 충실한 증인이 되는 일
 디아코니아(봉사)—하나님의 정의로운 평화에 이바지하는 행동하는 믿음
 에큐메니칼 훈련양성—믿음의 갱신과 지도력의 개발을 위한 일
 종교 간의 협력—모든 교회가 직면한 하나의 공통적인 상황

이 요소들은 프로그램을 관통하는 붉은 실과도 같은 것이다. 총회의 상이한 부분들을 서로서로 이어줄 뿐 아니라 그것들 자체가 교회론의 기초이다.

WCC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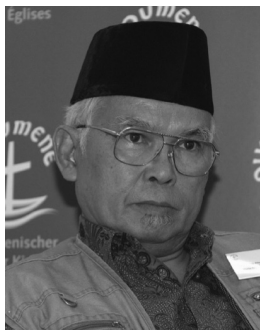
티라나와 전 알바니아 대주교
아나스타시오스 박사, 알바니아
아정교회



존 타로아누이 두움
마오히개신교회(프랑스어권 폴
리네시아)



시몽 도수 목사
베냉감리교회



소리투아 나바반 목사
개신교 크리스천 바타교회(인
도네시아)



오펠리아 오르테가 목사
쿠바장로교-개혁 교회



아분 파울로스 총대주교
에티오피아테와헤도정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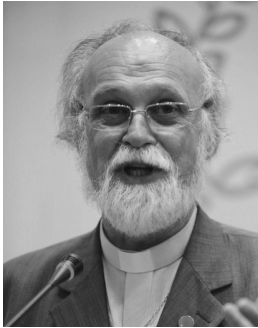


버니스 파웰 잭슨 목사
그리스도연합교회(미국)



매리 태너 박사
영국교회(성공회)

중앙위원회 지도부



의장 월터 알트만 목사
브라질복음교회(루터교)



부의장 사시마(리무리스) 추기경 겐나디오스 박사
정교회 세계총대주교구(콘스탄티노플)



부의장 마르가레타 헨드릭스-리리마스 목사
몰루카스 제도 개신교회



WCC 총무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목사
노르웨이교회

WCC 제10차 총회, 대한민국, 부산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수요일 10/30	목요일 10/31	금요일 11/1	토요일 11/2	일요일 11/3	월요일 11/4	화요일 11/5	수요일 11/6	목요일 11/7	금요일 11/8
08:30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아침 기도	아침 기도
09:00										
09:15 10:15	휴식	성경 공부	성경 공부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성경 공부	위원회 보고
10:15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0:45 12:15	모임 예배	주제 회의	아시아 전체회의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평화를 위한 순례 프로그램 (주말 프로그램)	선교 전체회의	일치 전체회의	정의 전체회의	평화 전체회의	폐회예배 및 최종보고
12:15		점심 (위원회 회의)	점심 (위원회 회의)			점심 (위원회 회의)	점심 (위원회 회의)	점심 (위원회 회의)	점심 (위원회 회의)	점심
14:15 15:45	개회예배	회무처리 전체회의	회무처리 전체회의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보냄 예배
15:45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6:15 17:45	총무 및 의장보고	에큐메니칼 좌담	에큐메니칼 좌담	위원회	위원회	에큐메니칼 좌담	에큐메니칼 좌담	위원회 보고	위원회 보고	WCC 중앙 위원회 회의
17:45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휴식	
18:15 19:45	회무처리 전체회의	지역별 회의	교파별 회의	위원회	위원회	선거	위원회 보고	위원회 보고	교파별 회의	
20:00 20:30	지역 기도	지역 기도	지역 기도			지역 기도	지역 기도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수요예배	지역 기도	
20:30		지역 식사	지역 식사			지역 식사	지역 식사		지역 식사	

그 주요 요소들은 일치, 선교, 정의와 평화 등을 다루는 주제별 전체회의를 통해 가시화된다. 그것들은 21세기 에큐메니칼 좌담과, 마당 프로그램 워크숍 및 전시회들과 아울러 총회 위원회들의 업무를 통해서도 가시화된다. 동일한 요소가 교회들의 현장에서도 가시화되는데, 그것은 많은 교회들도 일치, 선교, 정의, 교육, 종교간의 대화 등 유사한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는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에큐메니칼 문제에 응답하는 기회가 된다. 오늘날의 세상에서 더불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고 공동의 증언을 모색하는 것에 어떠한 형태를 부여하는가?

이하의 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 총회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한다.

- * 총회의 영적 생활—매일의 기도와 성경공부
- * 총회의 전체회의—강연, 회무와 주제 발표회
- * 에큐메니칼 좌담—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심사숙고
- * 총회 회무—합의제 절차, 위원회 운영, 성명서 채택과 임원 선출
- * 마당 워크숍, 전시회, 축하행사들

총회 시간표

26쪽에 제시된 시간표는 총회의 전체적인 진행과 매일 진행되는 행사에 대한 일람표를 제공한다.

총회의 영적 생활

총회의 전 과정은 기도와 만남과 (신학적) 성찰과 (시대 상황) 분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영적 체험이다. 이러한 영적 생활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총회 주제—“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기도생활

제10차 총회는 “기도하는 총회”가 될 것이다.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모여서 공동 기도회를 갖게 될 것이다. 아침 기도 후에, 참가자들은 성경공부를 위해 소그룹으로 모일 것이다. 성찬 예배도 다양한 교회전통에 따라 드러질 것이다. 총회는 한국 내 지역 교회의 생활과 긴밀한 연계 하에 진행될 것이며,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회중들도 총회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여, 총회와 더불어 기도하길 바란다. 부산에서 열리는 특별예배도 총회 웹사이트 상으로 공지될 것이다.

총회의 기도생활은 예배위원회가 기획한 것으로, 예배 위원들은 2년 전부터 이것을 준비해왔다. 위원회는 기도생활이 모든 교회전통을 반영하도록 기획하였다. 매일의 기도와 성경공부를 통해 참가자들은 총회의 주제를 통전적 시각에서 탐구하게 될 것이다.

모임예배

모임예배는 10월 30일 10:45에 개최될 것이다. 이 예배에는 4,000명의 총회 참가자들과 지역 교회의 방문객들이 참석할 것이다. 설교를 통해 총회 주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이 제시될 것이다.

아침 기도

아침 기도는 매일 아침 8:30에 시작되며, 그 전에 먼저 모여 찬양 시간을 갖는다. 기도문들과 찬양 악보는 총회에서 배포하는 『할렐루야! 예배와 찬양자료 모음』에 들어 있다. 자기가 사용할 예배자료집을 늘 지참하고 와서 세계 여러 곳에서 부르는 새로운 찬양을 배워보기 바란다.

저녁 기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물러가기 전에, 총회는 20:00에 모여서 저녁 기도를 갖는다. 교파별 저녁 기도가 다양한 만도 예식의 전통에 따라 드러질 것이다.

지역 교회와 함께 드리는 예배

부산과 인근 지역의 회중들이 총회의 초청을 받아 모임예배와 보냄예배 및 매일

의 기도 모임에도 참석할 것이다. 11월 6일 수요일에는 한국 기독교 예배와 에큐메니칼 공동 기도의 요소로 함께 꾸며질 것이다. 이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총회 장소에서 제공될 것이다.

총회는 개최지 교회들의 삶과 증언에 동참하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것이다. 이는 11월 2일과 3일에 열리는 에큐메니칼 평화 순례에서 절정에 이를 것이다. 약 800명의 참가자들이 토요일에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서 한민족의 평화 통일을 향한 소망에 초점을 두고 지역 교회들을 방문할 것이다. 토요일에 부산에 머무는 참가자들은 지역 교회와 선교단체 및 지역 공동체 사업과 문화적 명소를 둘러보는 다양한 순서를 가질 것이다. 일요일에 서울과 부산에 머물고 있는 참가자들은 지역 교회를 방문하여 회중들과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눌 것이다.

보냄예배

총회는 11월 8일 오후 14:15에 기도와 더불어 폐회된다. 이 마지막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생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기대하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고향으로 파송된다.

성경공부

참가자들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교회도 풍부한 다양성을 대변한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성경공부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총회 주제를 성경 본문에 비추어 탐구하도록 하는 한편, 참가자들 자신의 삶과 믿음을 통해 겪은 체험을 나누도록 한다. 아침 기도회에 이어서 참가자들은 9:15-10:15까지 소그룹 내지는 대집단으로 모여서 성경공부에 참여한다.

에큐메니칼적인 다양성의 한가운데서 함께 성경을 읽도록 초청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 대해, 성경의 증언에 대해, 성령의 능력에 대해 마음을 열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성경공부는 성경 본문과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은혜의 표징을 함께 식별하기 위한 시간이다. 성경공부는 참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총회 기간 동안 행하고 들은 모든 것을 통합시키고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헌신의 가능성을 찾아내도록 격려해준다.

『생명의 하나님』이 이미 출판되어, 총회 참가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고, 아울러

세계 곳곳에서 회중들도 사용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공동의 목상을 위해 선택된 성경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 날마다 성경공부를 진행할 것이다.

각 그룹마다 진행자를 한 명씩 두게 될 것인데, 진행자의 역할은 그룹 내의 모든 사람이 발언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성경공부 그룹들은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성경공부는 나눔의 장소이자 총회에 지각을 갖고 참석하도록 하는 원천인 셈이다.

성경 연구를 위한 그룹과 장소들은 총회 『핸드북』에 공지될 것이다.

총회 전체회의

일반 전체회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중에, 제10차 총회와 관련된 회무를 시작하고 처리하기 위한 전체 모임이 수차례 진행된다.

개회예배와 오리엔테이션

10월 30일 수요일, 개회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을 맞이하고 총회의 개회를 공식적으로 알릴 것이다. 개회예배는 점심 식사 후인 14:15에 시작된다.

총회 참가자들에게는 수요일 오전 9:15-10:15에 열리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할 것을 권유한다. 부산에서의 생활, 총회 프로그램 및 합의를 위한 의결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공될 것이다.

의장 및 총무 보고

10월 30일 개회예배에 이어서, 16:00-17:30에 총회원들은 2개의 주요 보고를 듣는다. 첫 번째 보고자는 WCC 중앙위원회 의장이자 브라질복음교회(루터교) 목사인 월터 알트만 박사이고, 두 번째 보고자는 WCC 총무이자 노르웨이교회 목사인 올라프 픽세 트베이트 박사이다.

회무처리 전체회의

10월 30일과 31일에 진행되는 회무처리를 위한 회기 동안, 총회를 위해 마련한

합의제 절차의 초안이 공식적으로 소개될 것이다. 그 초안은 113-133쪽에 실려 있다. 총대들에게 WCC 현장 개정안—그 초안은 61-110쪽에 실려 있다—도 제출될 것이다. 또한 총대들에게 총회 위원회 임원 추천 명단과 신입 회원 교회 신청안 및 48-51쪽에 실려 있는 후보 추천과정과 관련된 여타 안건이 제출될 것이다.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총회 둘째 주간 동안, 위원회들은 전체회의의 심의를 위해 보고서와 안건을 제출할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하는 순서는 총회에서 실무위원회가 공지할 것이다. 총회 위원회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51-53쪽에 실려 있다.

주제별 전체회의

일련의 주제별 회의들을 통해 오늘날의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이 쟁점이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갖는 관련성과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발표가 진행될 것이다. 이들 전체회의의 발표를 통해 제기된 관심사는 에큐메니칼 좌담과 위원회들과 마당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워크숍 등에서 논의될 것이다. 다루어질 주제는 다음과 같다.

주제회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10월 31일, 목요일 10:45-12:15

주제회의를 통해 이후에 진행되는 회의들과 에큐메니칼 좌담—둘 다 총회 주제에 근거하고 있다—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게 될 것이다. 교회와 사회에서 활동하는 주요 이사들의 주제 발표를 통해, 주제회의는 현재 세계의 상황과 교회의 역할 및 WCC의 활동을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기도에 비추어 어떻게 이해하고 구현할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줄 것이다.

아시아 전체회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11월 1일, 금요일 10:45-12:15

이 회의는 다양한 아시아 교회의 관점에서 총회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총회의 주제를 놓고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상황은 다종교적인

에 주목하여, 이 회의는 총회 주제가 아시아의 공동체들과 교회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는가 하는 점을 부각시킬 것이다. 부정의와 폭력을 야기하고 생명을 질식시키는 상황에 맞서서 그리스도인들의 창조적 대응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이 회의는 에큐메니칼 운동 참여와 공동의 헌신 속에 어떤 연대정신이 있어야 생명, 정의, 평화의 공동목표를 강하게 실현해 나가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선교: 생명을 살리는 증언으로 부름받음

11월 4일, 월요일 10:45-12:15

이 회의는 전 세계의 선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발전된 모습을 언급하면서 성령을 통한 선교가 지닌 역동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면모를 강조할 것이다. 선교와 전도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거둔 성공적인 본보기가 소개될 것이다. 이 회의는 향후의 선교사역에서 에큐메니칼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회와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로 하여금 WCC의 새로운 선교 성명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Together towards Life: Mission and Evangelism in Changing Landscapes)에 기반한 공동 증언의 소명에 대해 새롭게 헌신하도록 고취할 것이다. 이 성명서의 본문은 『자료 모음』(The Resource Book)에 들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 공동체의 여정

11월 5일, 화요일 10:45-12:15

이 회의는 가시적인 일치의 비전과 그 비전을 향한 여정에 중점을 두되, 그것을 WCC라는 공동체 안에서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일치”에 대해 역대 WCC 총회는 어떻게 서술하여 왔는지 회고하는 가운데, 온전한 가시적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서 감지되는 희망과 도전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이 회의는 모든 만물(oikoumene)을 위한 희망의 표징을 지목하면서, 기독교의 일치에 대한 추구가 정의와 평화를 위한 투쟁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황임을 부각시킬 것이다. 이와 관련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라는 의견수렴 문서가 『자료 모음』에 들어 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의 세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11월 6일, 수요일 10:45-12:15

이 회의에서는 생명에 대한 현재의 위협이 사회적·경제적·생태적 부정의로 표출되는 것을 다루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불의한 일들이 깊이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증언과 성찰을 통해 부각시킬 것이다. 여기서는 빈곤, 불평등, 배제구조를 뿌리 뽑고 하나님의 창조를 유지하기 위한 친교의 필요성을 서약을 통해 재확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이, 사회·경제적 정의와 생태정의를 위한 교회의 사역을 진작시키는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에 동참하도록 촉구할 것이다. <모두의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한 경제: 행동 촉구의 부름>(*Economy of Life, Justice and Peace for All*)이라는 제목의 배경 보고서가 『자료 모음』에 들어 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의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도록 우리를 이끄소서!

11월 7일, 목요일 10:45-12:15

이 회의는 참가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에 이바지하는 예언자적 지도력을 위한 소명을 고취할 것이다. 여기서는 신앙에 따른 공동 행동에 기반하여 평화를 이루고, 영적·물적 자원들을 동원하며, 갈등과 전쟁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분투해온 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이쿠메네”—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모든 만물—안에서 평화를 모색하고 추구해야 할 소명이 있음을 인지함으로써, 참가들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도전에 대해 긴급히 주목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하도록 권고할 것이다. 이 회의는 아울러 오늘의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참가자들로 하여금 정의와 평화를 향한 순례에 동참하도록 초대할 것이다.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선언>(*The Ecumenical Call to Just Peace*)이라는 문서는 『자료 모음』에 들어 있다.

에큐메니칼 좌담

에큐메니칼 좌담이란 무엇인가?

총회는 전체적으로 공동 기도, 성경 연구, 주제별 전체회의, 에큐메니칼 좌담, 실무 회의, 워크숍, 마당 전시회, 그리고 주말 한국교회 방문을 통해 축하와 대화와 성찰의 공간을 제공한다.

에큐메니칼 좌담은 특별히 오늘날의 교회의 일치와 선교,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비판적 이슈들—교회들이 함께 공동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하는 이슈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대화에 총회 참석자들을 참여시킨다. 좌담의 결과는 미래의 에큐메니칼 협력의 방향을 안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모두 21개의 에큐메니칼 좌담이 이루어진다. 각 좌담은 고유한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4개의 90분짜리 세션을 제공한다. 각 좌담의 참여자 수는 80-120명 사이이다. 참여자들은 한 좌담을 미리 선택하여, 4개로 구성된 세션 모두 출석을 약속하도록 요청받는다.

에큐메니칼 좌담은 합의제 절차를 따라 대화를 알리고 참여하고 홍보하기를 모색하는 방법론을 사용한다. 좌담은 다음 사항들을 포함할 것이다.

- 참여자들과 자료 제공자들로부터 주제에 관한 소개와 나눔
- 참여자들과 자료 제공자들의 다양한 관점 발표
- 참여자들 사이의 토론과 논쟁
- 미래의 에큐메니칼 협력을 위해 적합한 확증과 도전 수렴

각 에큐메니칼 좌담은 총대 한 명이 의장을 맡고 기타 총대들, 공식 참관인들, 일반 참관인들, 그리고 고문들 중에서 지명된 의장단의 지원을 받는다. 이 팀은 좌담을 이끌고 보고서를 준비하는 책임을 맡는다.

에큐메니칼 좌담이 모든 참가자에게 열려져 있기는 하지만, 좌담은 회원 교회 총대 사이의 대화가 심화되도록 돕는다. 총대들은 교회에 제시되어야 할 확증과 도전에 합의해야 하는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 총대들은 다른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자료 지원을 받으며, 다른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동역자들과 회중들과 지역의 경

힘을 대변한다. 모든 참가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모든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지만, 회원 교회 총대들은 에큐메니칼 좌담에서 특별한 역할과 책임감을 맡는다.

모든 에큐메니칼 좌담은 짧은 이야기체의 보고서(3-4쪽 분량)를 준비하도록 요청받는데, 이 속에는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동역자들과 WCC가 제시해야 할 에큐메니칼 확증과 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고서들은 참여자들과 교회들과 동역자들에게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될 것이다. 보고서들은 심의와 적합한 행동 모색을 위해 총회 이후 2014년에 열리는 첫 번째 전체 모임에서 WCC 중앙위원회에 제출될 것이다.

각 좌담의 성패는 참여자들 사이의 진정성 있고 헌신적인 만남에 달려 있다. 때로 이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함으로 영적 분별과정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어떻게 사람들이 세계를 경험하는지, 어떻게 교회가 함께 일함으로 모두를 위해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크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주제와 교회

“생명의 하나님,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이끄소서”—총회 주제—는 기도(prayer) 이면서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관점에서 현대적 동향과 긴급한 도전과 생명에 대한 위협을 제시하는 신앙선언(statement of faith)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생명의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분은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세계를 대속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그 세계를 계속해서 변혁시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는 모든 피조물의 온전함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다(요 10:10, 엡 1장, 골 1장, 계 22장).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는 하나님의 세계 치유와 변혁에 참여하도록 명령받았다(고전 3:9). 교회의 코이노니아, 마르튀리아, 그리고 디아코니아(친교, 증언, 그리고 봉사)는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활동인데, 그것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친교와 공동 증언과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에 참여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소외된 자들과 박해받는 자들과 고

통받는 피조물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에 이끌려간다(눅 4장, 롬 8 장). 하나님의 생명의 선교에 응답하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요 17:21), 그리고 하나님의 식구 안에서 즉 오이쿠메네 안에서 생명의 선물을 공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통치를 증언하도록(시 9:9, 19:5, 24:1, 마 24:14, 행 17:31, 히 1:6, 2:5) 부름받았다.

교회의 일치와 선교와 봉사를 향한 현대의 도전

주제에 비추어, 이번 총회는 현대적 동향과 인간 및 지구 행성의 생명에게 가해지는 위협의 여파를 분석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돌보심과 더불어 교회와 교회일치운동의 역할을 분별하도록 소집되었다.

세계화과정은 하라레 총회와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 사이 기간, 즉 1998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을 의미심장하게 표시한다. 세계화과정이 계속 진행 중이고 갖가지의 반응을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의 고유한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 변화하는 지정학적 상황과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여 변화하고 있는 권력 배치 구조, 그러면서 또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긴장과 갈등
- 재정적 위기가 사람들과 공동체들과 민족들과 교회들 자신에게 미친 결과로 인해 더욱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끈질긴 가난과 커져가는 불평등
-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실재
- 기독교 이주민들의 비율과 수의 증가
- 정보기술과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 그것이 사회적·정치적 변화에 미치는 충격
-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교 간 관계에 대한 시급한 도전
- 특별히 남반구에서 오순절교회, 은사주의교회, 독립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변화하고 있는 교회의 에큐메니칼적 전망
- 변화하는 사회적 패턴과 교회의 다양한 반응

그러한 급속한 변화의 결과는 무엇이고, 이 도전은 하나가 되어 세계가 믿도록 하라는 부름—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함께 교회가 되라는 부르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도전이 신앙, 선교와 복음전도, 정의와 평화를 향한 증언, 신

학교육에 대한 헌신, 그리고 종교 간 대화와 협력 안에서 교회 일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총회 프로그램, 특별히 에큐메니칼 좌담은 대화와 성찰,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응답을 찾도록 구성되었다. 에큐메니칼 좌담에 포괄되는 주제는 넘쳐나도록 많은 연관 이슈를 제기하는데, 이는 교회, 공동 기도, 그리스도인의 제자도, 여성과 남성의 공동체, 신학교육, 종교 간 협력, 인권과 안보, 경제적·생태적 정의, 평화 구축, 건강과 치유, 봉사와 개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포함한다.

에큐메니칼 좌담 소개

좌담-01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다: 새로운 에큐메니칼 전망

새로운 에큐메니칼 실체의 출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는 바로 오순절교회, 은사주의교회, 비교파(독립)교회의 성장, 그리고 세계화가 다양한 사회의 경제적·정치적·문화적 종교적 영역에 미친 영향이었다.

이 현상들은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일치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과 실천 가운데 공동의 증언과 봉사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주도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는 WCC 회원 교회들과 비회원 교회들, 글로벌기독교포럼(Global Christian Forum)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총회 에큐메니칼 기구들(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들과 국내 협의회들), 신앙고백 기구들(교파별 세계연합체)과 전문목회사역기관들, 예를 들어 교회에 근거하거나 교회와 연관된 선교와 개발기관들(기독교 봉사) 사이의 쌍방관계와 다자관계에도 적용된다.

총회 주제는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일치와 선교와 봉사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요청한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의 목적은 현대적 상황과 그 도전을 평가하고 그의 신학적·관계적·제도적 측면을 성찰하며 서로를 풍성케하는 동역자 정신 속에서 교회일치운동을 위한 잠재력을 더욱더 탐색해나가기 위한 절차들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좌담-02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

성도의 교제 안에서 성장하고, 오늘날의 세계 가운데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함께 투쟁하며, 과거와 현재의 교회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하여 무엇을 함께 말할 수 있을까? 이 물음은—교회일치운동과 WCC의 미래에 대한 결정적인 물음인데—새롭게 발표된 WCC/신앙과 직제위원회(Faith and Order)의 의견수렴 문서인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를 낳은 긴 과정의 주제이기도 했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이 새로운 문서에 집중될 것이다. 이는 참가자들이 그 문서가 대변하는 에큐메니칼 진전을 분별하고, 그 속의 에큐메니칼적 한계에 관해 비판적 질문들을 제기하고, 나아가 교회들이 그 문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좌담-03 갱신으로 변혁되어: 성경적 근원과 에큐메니칼 관점

현대 기독교에서 갱신(renewal)이란 교회성장과 복음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의미할 것이다. 혹은 성령쇄신운동이나 예배갱신운동과 같은 운동을 의미할 수도 있고 교회일치운동 자체를 갱신의 표현으로 의미할 수도 있다. 모든 교회가 갱신을 향한 성경적 부르심을 인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갱신에 대한 다른 경험과 표현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갱신의 지표는 무엇인가? 복음전도, 번영, 개혁, 구조조정, 재정적 건전성, 카리스마적 은사들, 정의와 평화를 향한 선교, 보다 많은 수의 교인들, 종교적 경험?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현대 기독교 내에서 갱신의 개념을 성찰하려고 한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의 목표는 삼중적이다. 그것은 바로 신학적 관점에서 갱신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교회를 도우려는 목적, 그(갱신)의 진정한 지표를 목회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려는 목적, 그의 열매들을 에큐메니칼적으로 수용하려는 목적이다. 좌담은 성경적 통찰과 더불어 시작하여, 오늘날의 세계 도처에서 교회들의 삶 속에 드러난 대로, 갱신에 대한 고백적이고 상황적인 다양한 경험을 성찰한다.

좌담-04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향한 도덕적 분별

도덕적 분별은 “옳은 것”과 “선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 존재가 대면할 딜레마와 물음에 한 사람이나 공동체가 반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분별의 과제는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전체로서의 교회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에 본

질적인 요인이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과학적 통찰이 새로운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세계관이 도덕적 물음들에 대하여 서로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찾고자 모색하기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도덕적 쟁점과 차이에 대한 에큐메니칼적 토론의 맛보기(entrée)로서 도덕적 분별력의 근원과 과정을 탐구한다. 인간 존재와 모든 피조물이 정의와 평화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리로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는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분별할 보다 나은 길들을 교회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좌담-05 우리가 함께 지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은 일치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는 오직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만 일치에 맞는 말이 된다. 이 중요한 진술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공동 삶 속에서, 그리고 ‘예배 안에서 표현된’,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성만찬적 친교 안에서 가시적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교회의 공동체 형성에 긴요한 도전적 요인이 된다. 불행히도,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킨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예배 문제 바로 그것이었다.

에큐메니칼 기도는 어느 특정 회원 교회나 일종의 혼합 교회나 초교회(super-church)의 예배로 규정되길 원하지 않는다. 아마도 어떤 다른 에큐메니칼 사역보다 공동 기도 속에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화해의 약속과 우리의 분열로 인한 고통을 대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우리가 성만찬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라, 예배에서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있고 다른 교회에서 볼때 아주 낮설고 특이한 몸짓과 관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묻는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로서 어떻게 함께 기도하는가, 어떤 신학적·교회론적 근거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가? 만일 다른 교파 교회 예배에 출석할 때 우리는 똑같이 함께 기도하는가? “에큐메니칼” 기도는 무엇을 수반하는가?

좌담-06 효과적인 리더십 개발하기: 상황적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 신학교육

교회의 핵심적인 도덕적·영적 가치에 근거한 에큐메니칼 신학교육과 양성은 교회일치운동의 미래와 기독교 선교의 통전성에 필수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교회

일치운동의 기억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도 공동체, 교회, 시민사회 내에서 책임감 있고 의식적인 변화의 주도자들을 계발한다. 그러나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수행되어야만 하는가? 창조적이고, 포용적이고, 변혁적인 리더십을 향한 욕구가 “생명의 하나님, 정의와 평화로 우리를 이끄소서”라는 기도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교육과정을 통해 에큐메니칼 의식의 성장과 각자의 구체적인 문화적 상황에 뿌리를 두고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비전을 육성”하라는 WCC 헌장의 명령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어떻게 상황적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 교육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강건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교회일치운동, 특별히 WCC는 앞으로 상황적 에큐메니칼 훈련양성과 교육을 강화하는 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좌담-07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을 부여받아 하나님의 선교는 생명의 온전성의 확증을 목적으로 한다.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교회적·에큐메니칼적 전망 속에서 선교의 개념을 재정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WCC는 2012년 새로운 선교 성명서, 곧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를 채택하였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에큐메니칼 선교사역에 추동력과 용기를 주고, 선교의 다양한 측면과 상황과 현장에서 새로운 선교사역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다룰 것이다.

좌담에서 참여자들은 제시된 연구와 정책적 지침뿐만 아니라, 목표로 삼는 세 분류의 대중(지역 회중들과 선교임무집단, 국내선교 이사회들과 세계적 선교 지체들, 선교학 학생들과 선교사 훈련생들)을 향한 지침서를 작성기 위한 방안까지 토론할 것이다. 이 지침서는 세계 속에서 성령의 활동을 참여자들이 분별하도록 도울 수 있는 실체적인 이정표들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그리고 교회의 삶 속에서, 또한 선교 주체들 사이에서 이 문서가 일상적으로 활용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좌담-08 오늘날의 복음전도: 진정한 제자도를 향한 새로운 길

복음전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도를 향한 초

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와 모든 지역 교회 선교사업의 핵심이다. 오늘날의 세속적이고 다종교적이고 다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는 생명의 온전성을 찾으려는 하나님의 선교를 재발견하고, 진정한 제자도를 향한 새로운 길을 추구하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 좌담은 다양한 상황으로 구성된 모든 문화의 사람들에게 복음전도 좌담이 복음을 가장 잘 증언할 방법론에 핵심되는 도전을 제기하기를 바란다. 진정한 살아 있는 증언을 삶으로 보이라는 오늘날의 도전에 응답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도를 실천할 새로운 수단의 개발이 필연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치유와 회복의 복음 메시지와 생명을 중시하는 공동선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좌담-09 교회 안에서 여자와 남자의 공동체: 상호 인정과 변혁적 정의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하나의 예언적 기호로서 교회는 여자들과 남자들의 진정한 공동체를 체현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한 차별 없는(inclusive)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된(창 1:27)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약속이다. 제10차 총회 기간 동안 이 이상을 약속케 하기 위하여,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우리의 본질, 책임적 존재”(Philip Potter)로의 부르심을 위한 공간을 창출할 것이다. 이 공간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과 남성들의 정의로운 공동체를 향한 여성의 적극적 실천 60년을 축하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공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건설에 여전히 기존의 도전이 존재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여성과 남성의 공동체로 살아왔고 못 살아왔고를 분석하면서 동시에 목회의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남녀 간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책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또 총회 주제를 살펴보면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초창기의 여성선구자들이 교회일치 연합기구를 만들어 일할 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며 획득한 변혁적 정의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다양한 방법론을 통하여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탐구할 것이다.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여성과 남성의 공동체였는가? 여성과 남성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살라는 교회의 비전, 그래서 하나로 부름받은 교회의 비전에 여전히 등장하는 도전은 무엇이었는가? 정의와 평화를 향해 하나되라는 부르심이 여성과 남성의 정의롭고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려면, 교회는 어

면 프로그램들과 구체적인 행동과 신학을 설계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여성과 남성의 한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에큐메니칼 운동이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와 더불어 '상호 습합'(cross-fertilisation)과정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좌담-10 다종교의 세계 속에서 기독교적 자기 정체성 탐색하기

21세기 세계의 많은 다양한 상황과 지역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다른 종교의 신앙인들과 대화를 통해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 좌담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창조, 구원, 성경, 그리고 교회 등과 같은) 기독교의 많은 핵심 주제들을 성찰하게 될 것이다. 비록 그러한 이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실천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어울려가면서 도전받게 되더라도 그것은 또한 창조적인 일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우리 신앙의 뿌리로 돌아가 보다 심도 있게 성찰하고, 종교적으로 다원화된 세계에 직접 기독교적 시각을 설파할 수 있게 한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진정한 대화의 장을 열어가는 것을 추구할 것인데, 여기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다양한 관점이 정중하게 표현되고, 우아하게 정제되고 존대의 표현 속에 토론될 것이다. 이 좌담은 "종교적 다원성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이해" 분야에서 WCC가 지난 10년간 진행해 온 자문기구들의 문서를 자료로 삼아 진행될 것이다. 이 좌담은 또한 미래의 종교 간 활동을 위한 도약판이 될 것이며, 따라서 신학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 모두를 통합하는 도약판이 될 것이다.

좌담-11 정의롭고 포용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 주변부화된 이들과 연대하기

피부색, 인종, 계급, 성, 장애, 그리고 다른 요인에 근거한 사람들의 차별(discrimination)과 주변부화(marginalization)는 교회가 관심을 갖는 문제였다. 이는 그러한 이들의 권리와 정의를 위한 성직자들의 다양한 발의와 지지로 귀결되었다. 실상 그러한 참여는 WCC를 포함하여 교회와 에큐메니칼 조직에 가시성과 적합성과 목적을 수여한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교회가 주변부화된 집단에 응답하면서 교회가 보여준 망설임과 우유부단함의 모습도 일부 드러내고자 시도할 것이다. 나아가 점점 부정의하고 배타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에서 교회의 효과적인 현존과 증언을 위한 창조적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이 이슈를 제기하면서 교회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약속을 설명하는 가운데 스스로 진정한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결단의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좌담은 인종차별과 카스트 제도에 대항하는 사람들, 원주민들과 장애인들과 이주하거나 도망갈 것을 강요당하는 이들과 이민자 교회의 사람들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이들의 경험과 자원으로부터 도출될 것이다.

좌담-12 기후변화에 직면하여 생태 정의와 평화로 부름받음

기후변화는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위협 중 하나이다. 열대 폭풍과 해수면 상승, 그리고 기후 패턴 변화는 사람들과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후 위기의 징후 중 일부이다. 세계 다양한 지역의 취약한 공동체들은 이 지구적 함축성을 지니고 있는 위기의 가장 혹독한 귀결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교회와 시민사회와 국제사회 공동체가 기후변화와 생태적 파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이 좌담은 이 위기의 윤리적 차원, 영적 차원, 신학적 차원을 토론하고 정의와 평화를 향한 에큐메니칼 순례에 기여하는 행위를 위한 제안을 제시할 것이다.

좌담-13 삶의 경제: 빈곤의 근절을 위한 탐욕의 극복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눅 12:15).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보다 거대한 경제적 환경과 맺고 있는 영구적인 도전을 암시해주고 있는데, 이 경제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선은 실현되기도 혹은 실현되지 못하기도 한다. 탐욕과 부정의는 뒤얽힌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위기의 뿌리에 놓여 있고, 그 뒤얽힌 구조는 특별히 이미 궁핍하고 취약한 이들 가운데 막대한 고통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다. 그에 응답하여 교회는 “모든 생명을 위한 생명과 정의와 평화의 경제”를 요청하는데 이는 가난이 근절되고, 부정의와 탐욕이 도전받고, 피조물의 보살핌을 꿈꾸는 비전이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다음과 같은 핵심 물음을 제기할 것이다. 어떻게 교회는 생명의 경제에 초점을 두고 정의와 평화를 향한 순례를 독려하고, “풍성함의 영성”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탐욕과 물질주의와 소비주의가 만연한 현재의 풍토를 변혁

시키는 데 기여할 것인가? 주요 초점은 탐욕 지표들의 도입과 생명의 경제가 진화하는 데 결정적인 ‘웰빙’(well-being)의 새로운 대안적 정의 등이 될 것이다.

좌담-14 인간 안보: 정의와 인권과 더불어 평화 유지하기

인권과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는 이제 함께 묶여 흔히 인간 안보(human security)라고 기술되어진다. 인간 안보는 점차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권으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의와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인간 안보는 모든 사람이 근본적인 자유와 만인을 위한 보편적 권리를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결정적으로 안전 문제이다. 안전 자체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성, 그들의 평화로운 삶에 대한 권리 등에 대한 만연한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속에서 정의된다. 정의와 인권과 더불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인간 안보 안전은 성경적 개념 “샬롬”(shalom)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관념인 생명의 온전함을 보장해야 한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지정학적 흐름 속에서 정의와 인권과 함께 나아가는 평화라는 맥락에서 인간 안보와 관련된 적절하고도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성찰할 것이다. 이 좌담은 인간 안보와 인권의 상호적 관계성을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자적 증언을 향한 요청에 대한 신학적 뒷받침을 확실하게 할 것이다.

좌담-15 정의로운 평화의 길: 함께 평화 건설하기

“정의로운 평화”라는 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적 일치와 추구는 교회가 평화를 위해 보다 더 연합하라는 항시적인 초대들을 포함한다. 하지만 정치적·신학적·실천적 분열이 지속된다. 교회들은 깊이 분열되어 있거나 아니면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협에조차도 침묵한다. 민족과 문화는 흔히 교리신조와 동정심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지구적 차원의 생활방식과 권력의 표출된 모습은 이제 교회와 사회 안에서 행해야 하는 증언과 봉사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 좌담은 다양한 차원으로 존재하는 교회들이 평화를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자극받았고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탐문할 것이다. 이 좌담은 정의로운 평

화에 대한 학제 간(inter-disciplinary) 접근방법을 활용하면서, 성경 자료와 에큐메니칼 자료와 그 외 다른 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이는 만일 우리가 오늘날의 평화를 위해 보다 믿을 만한 증언자들이 되고자 할 때 요구되는 보다 역동적인 일치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지구적 이슈를 논쟁할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이 좌담은 토론을 통해 신앙 안에서 함께 평화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새롭게 나아갈 길을 그려줄 것이다.

좌담-16 평화와 자유를 위해 함께 일하는 종교들

종교와 평화와 자유 사이의 모호한 관계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 후에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종교 간 협력의 다른 모델들을 탐구할 것이다. 이 좌담은 특별히 평화와 자유라는 주제와 연관하여, 종교들의 말뿐 많은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창조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것인데, 이를 통해 인류의 번영을 촉진할 종교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종교들 간에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경우처럼 그리스도인과 무슬림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팽배한 상황을 종교들이 (한국이나 스리랑카처럼 불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평화 건설자들로서 사이 좋게 일하고 있는 사례들과 평행 비교시켜, 종교 간 평화 건설과 자유의 촉진을 위한 창조적 가능성과 결정적인 도전을 명확하게 상술할 것이다.

좌담-17 한반도: 정의와 평화를 향한 에큐메니칼 연대

한반도의 긴장이 북동아시아와 세계 다른 지역들에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함축성과 영향력을 고려하면서,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현재까지의 노력으로부터 배운 교훈을 탐색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 다음 하나의 전체로서 교회일치운동이, 특별히 WCC가 제기해야만 하는 이슈와 도전과 장애물을 탐색할 것이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교회들 사이의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과 비정부 조직과의 협력관계와 지역 에큐메니칼 조직과 세계적 에큐메니칼 조직들과의 협력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영역을 분별해낼 것이다.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 정의와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에큐메니칼 연대를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인데, 이는 궁극적 통일을 향한 비전으로 화해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좌담-18 “중동”: 누구의 정의, 무슨 평화?

지난 3년간 중동은 새로운 갈등의 물결을 경험해왔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은 갈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갈등을 알려주고 그들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신학적 관점을 검토할 것이다. 이 좌담은 또한 중동과 그보다 광범위한 에큐메니칼 현장에 위치한 교회들이 중동의 정의로운 평화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함께 와서 함께 일하고, 함께 증언할 수 있는 길을 탐구할 것이다.

좌담-19 아동 권익을 위한 교회의 연대활동

어린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와 가족과 공동체는 그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나 세계 모든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은, 특별히 세계화된 신자유주의의 경제와 폭력과 갈등의 결과로 위협에 처해 있다. 어린이들은 부정의와 빈곤과 학대에 가장 취약한 희생자들에 속한다. 더 나아가 어린이들은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학대받아 왔다.

이 에큐메니칼 좌담의 기본 목적은 교회와 사회에서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고양시키는 것이다. 이 좌담은 참여자들로부터 어린이들의 권익보호를 신장할 실행 계획서의 수립과 그들을 대신하는 예언자적 증언, 그리고 평화와 정의의 주체로서 어린이 자신의 참여를 일깨우고 지지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좌담-20 에큐메니칼 건강과 치유목회

건강과 치유목회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 기독교 계열 의료인들, 목회상담가들, 에큐메니칼 지지 네트워크와 기관들은 정의, 평화, 그리고 생명의 온전성의 이슈들을 함께 엮어내기 위해 일하고 있다. 예를 들어, HIV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고통 완화 치료를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다른 기독교 목회들은 뿌리 깊은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정신건강을 해치는 질병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세계 도처에서 삶의 질, 정의, 평화, 그리고 형편에 맞는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한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는 대체로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된다. 이 좌담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의료인들, 에큐메니칼 의료 네트워크, 세계보건기구

(WHO)나 UNAIDS와 같은 세속적 국제기구들, 그리고 중앙정부들이 존엄성과 정의와 공동체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이 좌담은 삶과 교회가 서로 건강과 치유목회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 에큐메니칼 동역관계를 창출하고/또는 강화할 방법을 확인할 것이다.

좌담-21 봉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봉사와 개발

교회와 전문 기구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연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지구적 상황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디아코니아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변화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인구통계(청년), 커뮤니케이션 기술, 지정학적이고 자본적인 권력이동, 새로이 참여하는 관계자들로서 민간 부문과 군, 변화한 지구적 개발 구조, 시민사회를 위한 정치적 공간의 위축, 종교 간 기회와 도전, 신자유주의 경제학과 기후변화. 효과적으로 연대와 보조와 자원을 제공해온 과거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반응은 이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접근방법과 새로운 협동 패턴을 요구한다.

이 좌담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하나님을 증언하고 섬기기 위한 패러다임이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음에 유념하면서, 이런 변화, 발전이 교회와 전문 기구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회론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을 논의할 것이다. 그에 따른 위험과 기회와 새로운 협동 패턴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게 될 것이다. 기초 문서는 <21세기의 디아코니아(봉사)에 대한 신학적 전망> (Theological Perspectives on Diakonia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다.

총회 업무

총회 업무는 합의제(consensus)라는 의사결정 모델을 사용하여 수행된다.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모델은 서로를 독실히 경청할 것과 교회전통 간에 이해를 촉진하고 함께 성장할 것을 권장한다. 합의제 절차는—비록 투표를 위한 절차로 유지되고는 있지만—공식 투표 절차에서 갖는 경직성보다는 느슨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문과 조사와 질문과 진지한 성찰의 여지를 보다 더 많이 제공한다. 참여자들과 회원 교회들 사이에 참여와 대화와 헌신이 합의를 통해 강화된다.

위원회

총회 위원회는 WCC의 미래 역할 확정에 기여할 것이다. 총회의 정신과 역동성을 반영하는 그들의 보고서는 결정을 위해 회무처리 전체회의(business plenaries)에 제출될 것이다. 위원회들의 결과가 상호 연관성 있는 방식으로 미래의 WCC 업무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총회에 앞서 2013년 6월 위원회 임원들의 준비 모임을 통해 위원회 간의 협력활동이 시작되었다. 준비 모임은 총회와 그 이후 프로그램과 정책을 예상하면서 WCC 총무와의 만남, 각 위원회의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들과의 협력, 그리고 연대활동을 포함하였다. 총회 기간 동안 위원회 의장들과 조사위원 사이의 정기 모임 또한 위원회 간의 협동과 상호작용을 가능케 할 것이다.

총회과정 중 프로그램지침위원회와 재정위원회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총회에 의해 확인된 우선순위와 가용가능한 인력 자원과 재정적 자원을 고려하는 자신들의 권고사항을 준비할 것이다.

프로그램지침위원회는 처음으로 통합적 방식을 통해 프로그램과 관계에 초점을 둘 것이다. 이 위원회는 미래의 WCC 프로그램 업무와 관계 업무를 통합하고 동시에 모순과 경쟁 혹은 기존 능력을 넘어서는 기대치를 회피하는 정책과 지침을 만들어낼 것이다. 정책검토위원회는 제도적 정책에 초점을 두고 실행을 위한 일치 성명서를 처리할 것이다.

모든 위원회는 신중히 숙고하고, 합의제 절차를 따라 자신들의 보고서와 권고

사항을 준비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임원 모임은 합의제 주선자 역할과 더불어 모임과 오리엔테이션 시간의 안내를 위한 합의 규정에 대한 소개를 포함한다.

총회 각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인선위원회(Nominations Committee)

회원 교회들과 총대들의 대륙별 회의와 교파별 회의에서 보내온 권고사항에 기초하여 인선위원회는 총대 중에서 의장과 중앙위원회 위원 선거를 위한 제안을 작성한다. 인선위원회 절차는 아래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메시지위원회(Message Committee)

이 위원회는 총회에서—즉 기도생활, 성경 연구 그룹, 전체회의, 에큐메니칼 좌담과 마당에서—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주의 깊게 귀 기울일 책임이 있다. 들은 바에 기초하여 이 위원회는 부산에 모인 이들의 경험과 희망을 포착한 문구를 작성하여, 총회 채택을 위해 제출한다. 이 메시지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헌신을 다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하나의 영감(inspiration)을 제공하고 세계 전반에 분명하고 확신 있는 기독교적 증언을 제공할 의도로 작성된다.

재정위원회(Finance Committee)

과거 7년간의 WCC 재정과 앞으로의 기간 동안 재정 상황에 대한 예상을 토론하면서, 재정위원회는 새로 선출되는 중앙위원회가 따라야 할 재정 문제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안한다.

프로그램지침위원회(Programme Guidelines Committee)

제9차 총회 이후의 평가서와 보고서들을 검토하면서, 이 위원회는 교회와 에큐메니칼 개발, 일치와 선교, 공적 증언과 디아코니아 분야에서 미래활동을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준비하여 총회 채택을 위해 제출한다.

정책검토위원회(Policy Reference Committee)

이 위원회는 특별히 회원권 문제에 관하여 위원장과 총무의 보고서들의 총회 실

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WCC의 헌장과 규칙에 대한 개정조항을 검토한다. 위원회는 또한 “일치 성명서”(Unity Statement)를 검토하고, 수정하여 최종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공공쟁점처리위원회(Public Issues Committee)

이 위원회는 평화 건설, 인권, 그리고 정의 문제에 대한 에큐메니칼적 참여를 포함하여 국제적 관심사로 선정된 이슈에 대한 성명서 초고를 준비하여 총회 채택을 위해 제출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진전된 토론은 이하를 참고하라.

실무위원회(Business Committee)

업무 행정 실무자, 회장, 총회 위원회의 의장, 그리고 그 외 총대들에 의해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총회 일상 업무를 조율한다. 이 위원회의 자격은 WCC 규칙 IV.5에 정해져 있다.

예배위원회(Assembly Worship Committee)

총회의 풍성한 영적 삶을 책임질 이 위원회는 총회를 위해 준비된 매일 예배를 조직하고 총회 기간 중 다른 기도회들을 주관한다.

합의제 및 공동협력상설위원회(Permanent Committee on Consensus and Collaboration)

이 위원회는 고문 자격으로 총회를 섬기며, ‘정교회의 WCC 참여관련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 on Orthodox Participation in the WCC)가 그 권한과 관심과 역동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공공쟁점처리위원회

공식 성명서에 대한 규칙

공식 성명서는 WCC가 국제 안전들에 대한 비판적 쟁점에 반응하는 한 방식이다. 그러한 성명서를 만들기 위한 관련조항이 WCC 규칙 XII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WCC는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총회나 중앙위원회를 통해 WCC나 회원 교회가 당면한 모든 상황이나 관심사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성명서는 매우 폭넓은 대표성을 지닌 기독교 단체의 판단이나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큰 의미와 영향을 미치지만, 성명서의 권위는 오로지 성명서가 전달하는 진리와 통찰의 무게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WCC가 회원 교회들을 지배하는 헌장적 권위나 그들을 대변하는 권리를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정치는 불가피한 실재이고 그에 대한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교회들은 현재의 문제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1948년 암스테르담 총회에서 공공쟁점을 위한 틀구조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현재에도 타당하다. “협의회는 사교나 행동의 영역에서 일치된 주목을 요하는 문제에 대해 기회가 되면 그 관할구 회원들에게 제시하는 일을 그가 짊어진 책임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간주한다.”

정치적 도전에 응답하는 WCC

공식 성명서는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는데, 이는 자문 보고서와 상황 평가, 목회서신과 회원 교회에게 드리는 호소문, 결의안, 그리고 정부와 정부 간 기구들에 대한 진정과 항의 등을 포함한다.

공식 성명서는 국제 문제에 협의회가 할 수 있는 반응 중 단지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다른 많은 상황에서는 다른 형태의 행동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는 난감하거나 결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들에 대한 목회적 방문, 특정 쟁점이나 상황을 연구하고 보고하기 위해 파견된 대표단, 정부들에 대한 비밀 진정, 교회와 행동 그룹들에 대한 후원과 연대 등을 포함한다. 이상의 것들은 발전전개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강되는데, 그러한 활동이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의 삶과 증언에, 그리고 전체로서 교회의 친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공공쟁점들에 대한 판단기준

중앙위원회는 공식 성명서가 만들어질 쟁점들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주요 판단 기준을 확정하였다.

- WCC가 직접적 참여와 오랫동안 헌신을 쏟아온 쟁점 분야
-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어서 교회의 행동을 위한 주목이 요구되는 최근 쟁점
- WCC의 판단 하에 그의 영적·도덕적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하는 위태롭게 전개 중인 정치적 상황
- WCC가 언급해야만 한다고 회원 교회들이 기대하는 사항
- WCC 임원진을 위해 정책이나 권한을 정할 필요성

공공쟁점은 회원 교회들에게 공적 행동을 취하기 위한 안내를 제공하며, 보다 일치된 목소리를 내기 위한 도구로서 기여할 수도 있다. 공공쟁점은 정부와 정부 간 조직, 그리고 그 외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에 가져갈 언어를 제시해 줌으로써 정책을 제공한다. 공공쟁점은 프로그램 작업을 안내하고 동시에 프로그램 작업 경험에서 도출된다.

공공쟁점은 전쟁과 평화, 경제, 생태학과 인권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의 모든 정치적 관심사를 반영한다. 그것들은 모든 형태의 권리 위반—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는 권리 위반—을 다룬다.

공공쟁점은 주의 깊고 투명한 장기적 과정을 통해 총회로 상정되어, 국제정세위원회, 중앙위원회 지도부,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가 참여하여 메시지의 담당 부서(constituency)와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가능한 담당을 확보한다.

제10차 부산 총회에서 토론될 성명서들은 2012년 6월 중국에서 열린 CCIA 모임에서 제안되어, 2012년 8-9월 그리스 크레테에서 열린 WCC 중앙위원회 모임에서 승인되었다. 그 성명서 안들은 다음과 같은 것에 관심을 둔다.

- 종교의 자유와 종교의 정치화라는 상황 속에서 모든 종교 공동체의 권리
- 한반도라는 상황에서 평화와 통일
- 정의로운 평화
- 무국적자들의 인권

성명서 초안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북동아시아에 초점을 둔 아시아인간안보협의회(Consultation on Human Security in Asia, 2013년 6월)와 국제에큐메니칼평화회의(IEPC) 검토 그룹 모임

(2013년 8월)이 있었다.

총회 진행과정

부산에서 총회 동의는 총회 초기 회무에서 다루어질 논의 위에서 모색될 것이다. 그때 총대들은 총회가 언급해야만 한다고 믿는 추가적 쟁점을 제안하기 위한 절차와 최종 기한에 관하여 고지를 받게 될 것이다. 특정한 공공쟁점 안건이 총회 현장의 참석자들로부터 제안될 경우, 10-15개 회원 교회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제기되는 공공쟁점의 토론을 제한할 수도 있다.

공공쟁점위원회는 판단기준에 비추어 제안된 안건을 검토하고 주제를 선정하여 발표할 성명서로 추천하는데, 이때 총회 운영에 부여된 시간 제약과 그 외 다른 제약조건을 고려할 것이다. 선정된 주제는 상당히 국제적이고 에큐메니칼적인 중요성을 담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공공쟁점위원회는 총무나 중앙위원회 지도부 혹은 중앙위원회나 실행위원회가 일상적인 절차를 통해 다룰 수 있는 특정 쟁점이나 상황에 관한 성명서는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행동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여겨지는 쟁점에 대해서도 성명서를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쟁점위원회는 성명서 초안들을 토론하고 준비하여 총회 채택을 위해 회무처리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인선위원회

WCC 총회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바로 총대들 가운데서 새로운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일인데, 이들은 다음 총회 때까지 WCC 지도부와 회장단을 구성한다.

WCC 회칙은 (1) WCC의 회장단을 지명하고 (2)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신규 위원들의 명단을 준비하기 위해 인선위원회 선거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인선위원회의 구성원들은 중앙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지명될 자격이 없다.

총회는 전체 8명의 회장을 선출하여 올리게 되는데, 회장은 “에큐메니칼 경험과 평판이 회원 교회들로부터, 그리고 각 대륙과 교회전통들에 속한 WCC 에큐메니칼 동역자들로부터 널리 인정받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인선위원회에서 고려될 적합한 인물들의 이름은 총회 이전에 앞서 거론된다. 직책상 위원장들은 중앙위원

회 회원이 된다.

WCC 헌장은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숫자를 정해놓고 있다. 회원 교회들로부터 추천된 중앙위원의 수가 150명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 속에는 이 기준에 저촉 받지 않는 (공식적으로는 “준회원 교회들”로 알려진) 교회들로부터 선출되는 5명이 포함된다.

교회들은 총대 가운데 중앙위원회 후보자를 지명하도록 요청받는다. 각 대륙 내 교회들 간의 협이가 권장되며, 한 교회라도 더 지지받는 이름이 보다 많은 비중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인선위원회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 총대들 중 어느 누구에게라도 중앙위원회를 섬기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교회들은 사전에 공지받는다.

후보자 명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선위원회의 활동을 이끌어가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 지명될 업무에 대한 각 개인의 적합성
- 공정하고 적절한 교파전통별 대표성
- 공정하고 적절한 지역적·문화적 대표성
- WCC의 주요 관심사들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대표성
- 추천 후보가 속한 교회로부터 지명이 받아들여질 일반적 가능성
- 한 회원 교회로부터 7명 이상의 추천을 받지 못함
- 평신도들—남성, 여성 그리고 젊은이—의 적절한 대표
- 장애우들과 원주민들, 그리고 인종적 민족적 소수민들의 적절한 참여

중앙위원회는 그 구성상 총회 대표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 이는 교파나 대륙별 대표 비율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 구성에서 여성, 청년, 그리고 평신도의 비율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포용적이고 균형 잡힌 총회를 보증하고 이전의 관행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목표가 설정되었다. 50%의 여성 비율, 25%의 청년 비율, 50%의 평신도 비율, 25%의 정교회 비율.

이상의 원리와 인선위원회의 업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원 교회는 가급적 WCC 규정집에 제시된 균형 잡힌 대표구성을 위한 판단기준에 따라 한 명 이상의 추천 명단에 우선순위를 매겨 제출하도록 요청받는다. 인선위원회는 추천하는 교회의 바람을 존중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모든 추천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 과정을 통해 추천된 잠재적 후보자들에 관한 상당량의 정보가 총회에서 인선 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할 때 위원회에 제공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 임무는 이렇게 제공된 명단 중에서 후보자들을 선택하여,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대표성을 성취할 수 있는 방식으로 후보자 명단을 채워가는 것이 될 것이다. 아주 극도로 복잡해 보이는 임무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인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원 교회들과 다양한 대륙을 대표하는 총대들과 협의해나갈 것이다.

총대들은 또한 새 중앙위원회 후보자 이름을 추천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정확한 절차와 마감시한은 인선위원회가 최초 보고를 제출하는 총회 초기 본회의 동안 통보될 것이다. 본회의 동안 인선위원회는 총회에서 숙고되고 승인될 새로운 중앙위원회의 예상 프로필에 대한 최초 제안을 (실명 없이) 제시할 것이다. 추후 추천된 사람들의 명단이 종합 토론을 위해 발표될 것이다. 총대들은 본회의 외부로부터 특정 인선에 대한 변경안을 인선위원회에 제시할 수도 있다. 어떤 변경안도 동일한 (대륙별, 성별, 연령별 등) 인구 통계적 프로필 범위 내에서 교체안을 제시해야만 하고—교체안이 추구하는 균형비를 향상시키지 않을 경우는 예외로 하며—그 교체안은 동일 대륙의 총대 6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인선위원회는 이 제안들을 숙고하고, 앞에서 언급된 균형 잡힌 대표성을 위한 판단기준을 명심할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총회 투표를 위해 본회의에 제출될 두 번째 후보명단을 작성할 것이다.

투표 후, 신임 중앙위원회는 간단한 첫 모임을 열어, 그 구성원들 중에서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 후보 명단을 작성할 인선위원회를 선정한다. 신임 중앙위원회는 이 선거들과 2014년 6월 초에 열리기로 계획된 첫 번째 전체회의에 앞서 다루어져야만 하는 다른 조직 관리상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 또 한 번의 모임을 총회 말미에 갖게 될 것이다.

마당 프로그램

마당이란 무엇인가?

마당은 전통 한국의 가옥구조에서 안뜰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마당은 만남과 나눔, 축하와 친교를 위한 공간이면서 방문자를 환영하고 외부인사들을 환대하며 따뜻한 은혜를 나누는 공간이다. 한국교회는 총회가 주최자의 상황에 뿌리를 내리고 또한 총회에 형식과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마당을 제안했다. 마당은 만남을 위한 공유 공간으로서 전체 총회를 준비하고 우리가 오늘날의 세계 속에서 함께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최선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 토론은 함께하는 교회 됨의 5가지 다른 차원을 강조하는 모임이 될 터인데, 그 다섯 차원들은 총회 전체를 통하여 교차 트랙들로 작용할 것이다. 코이노니아(koinonia, 친교), 마르티리아(martyria, 증언), 디아코니아(diakonia, 봉사), 에큐메니칼 형성, 그리고 종교 간 대화와 협력. 회의 발표와 토론 공간들, 워크숍, 위원회 등을 다소 의도적인 방식으로 엮어냄으로써, 우리는 우리 모두가 가져올 은사에 대한 상호적 배움과 나눔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총회 자체가 “마당”의 정신으로 열리기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마당 프로그램은 또한 워크숍, 전시회, 부대행사들, 공연, 극장, 시각예술, 토론 공간 등을 통하여 참가자들 사이의 은사와 경험의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마당 프로그램 구성요소

워크숍

워크숍은 총회 참가자들이 함께 나와 토론하고 구체적인 주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워크숍은,

- 에큐메니칼 가족이 공통의 관심 쟁점과/또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도전을 토론할 공간을 제공하여, 상호적 배움의 환경 속에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을 가능케 할 것이다.
- 정보교환과 지식의 나눔, 전문화와 경험을 가능케 하면서, 최선의 실천을 향

한 공통의 접근방식을 개발할 것이다.

- 화제들의 상호연결성을 논증해줄 것이다.
- 미래 작업과 계획을 둘러싼 지침 개발을 도울 것이다.

부산에서는 11월 4일부터 시작하여 총회 기간 동안 4일에 걸쳐 88개의 워크숍이 열릴 예정이다(시간표 참조). 마당 워크숍의 목록과 설명이 『핸드북』을 통해 제공될 것이다.

전시회

전시회는 회원들과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범위의 작품을 총회 참가자들과 일반 대중들이 만끽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전시회는 정적인 발표나 전시회(예를 들어 포토 에세이나 예술 전시회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담론, 북카페, 예술 공연, 그리고 상호작용적 전시품 등과 같은 다양한 작품을 포함할 것이다. 전시회는,

- 시각적 형태로 주제나 쟁점의 탐구를 소개하고 촉진할 것이다.
- 전시회 내용물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탐색하도록 사람들을 추동할 것이다.
- 전시회를 보는 사람들과 전시자, 그리고 전시물 자체 간의 상호작용을 창출할 것이다.
-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제/쟁점을 둘러싼 관심을 유통시킬 것이다.
- 에큐메니칼적 동역자 정신 안에서 교회들과 다른 에큐메니칼 동역자들과의 협력관계를 보여줄 것이다.

부대행사

부대행사는 교회협의회와 에큐메니칼 동역자들과 일반 대중들을 위한 행사인데, 거기에는 음악마당, 예를 들어 문화공연(연극, 춤), 콘서트 혹은 시각예술 등과 같은 음악마당과 지정된 토론 공간이 포함될 것이다. 대부분의 마당 전시회와 부대행사활동은 전시홀 2관에서 열릴 것이다.

대륙별 그리고 교파별 회의

10월 31일 참가자들은 대륙별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받는다. 이 행사는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들(REOs)과 함께 주관될 것이다. 이 회의는 같은 대륙의 총대들과 다른 참가자들 간에 친교를 위한 시간을 제공한다.

아프리카, 유럽,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태평양지역의 지역 에큐메니칼 기구들은 부산 총회 이전에 중요한 총회들을 주최하여 생명, 정의, 평화, 존엄성, 제자도, 일치와 같은 유사한 주제를 다룬 바 있다. 다른 예비 모임들이 아시아, 카리브해지역, 중동과 북미에서도 열렸다. 부산에서의 대륙별 회의는 이 성찰을 이어갈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총대들은 WCC의 미래 중앙위원회에 특별히 그 회장들에게 어떤 리더십을 선물로 제공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도록 요청받을 것이다.

참가자들은 11월 1일과 7일 교파별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받는다. 이는 교파별 세계연합체(CWCs)와 회원 교회들에 의해 주관될 것이다. 이 회의는 동일 교파의 참가자들이 친교와 기도로 함께할 기회이다. 첫 회의는 다른 교회전통이 하나의 교회일치운동에 제공할 은사(선물)를 토론하고 확증할 기회이다. 두 번째 회의는 총회의 결과를 성찰하고 총회 이후에 교회생활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순례를 계속해 나아갈 때 각 교백 전통의 헌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책 문서들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헌장과 규칙

* 이 문서는 2012년 중앙위원회가 검토한 헌장 수정안이며, 헌장 VII조에 따라서 회원 교회에 전달되었다. 이 수정 헌장은 승인을 위해 총회에 제안되어 있다. 수정된 내용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다.

** 규칙 I, VI, XX에 대한 수정안은 2012년에 이미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 세 가지 조항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확정된 후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규칙 XX). 수정된 내용에는 밑줄이 그어져 있다.

헌장

I. 강령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이하 WCC)는 성경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임과 구세주로 고백하며, 따라서 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공동의 소명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교회들의 공동체이다.

II. 회원

WCC의 강령에 동의하고 총회나 중앙위원회가 정한 회원 기준을 충족하는 교회는 WCC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중앙위원회는 규칙I에 따라 회원 자격을 심사한다.

III. 목적과 기능

WCC는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힘쓰는 교회들로 구성된다. WCC는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삶과 사업(Life and Work), 국제선교협의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세계기독교교육협의회(World Council of Christian Education)와 같은 세계운동의 과업을 통합한다.

WCC의 일차적인 목적은 세상에 대한 증언과 봉사를 통해 하나의 신앙과 하나의 성만찬,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공동된 삶에서 가시적인 일치를 이루고, 이러한 일치를 발전시켜 세상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다.

신앙과 삶, 증언과 봉사를 통해 코이노니아를 추구하는 가운데 교회는 WCC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 상호 책임의 정신, 신학적 대화를 통한 더 깊은 관계의 발전, 그리고 인간적·영적·물질적 자원의 공유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경건하게 추구하기 위해 힘쓴다.
- 각 장소와 모든 장소에서 공동의 증언을 촉진하고, 선교와 복음전도활동을 서로 지원한다.
-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섬기는 디아코니아에 헌신하고, 사람들 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정의와 평화 속에서 하나의 인류 가족을 발전시키고, 창조세계를 보전하여 모든 사람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
- 각각의 문화적 배경에 뿌리를 둔 지역 사회의 삶에 대한 비전과 교육활동을 통해 에큐메니칼 의식을 고취한다.
- 다른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를 지원한다.
- 일치, 예배, 선교, 봉사를 새롭게 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WCC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

- 각 회원 교회의 살아 있는 공동체성과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 상호 간의 연대성을 촉진한다.
- 교회(교단)들 사이, 그리고 교회(교단) 내의 관계, 특히 회원 교회 내 뿐만 아

나라 비회원 교회와의 관계를 활성화한다.

- 각국의 교회협의회, 대륙별 교회협의회, 교파별 세계연합체, 그 외 다양한 에큐메니칼 기구와 관계를 맺고 유지한다.
- 지역, 국가, 지방 차원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지원한다.
- 에큐메니칼 기구 사이의 네트워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상호 간의 연대성을 갖도록 힘쓴다.

IV. 권한

WCC는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고 일치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WCC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원 교회가 WCC에 맡기는 문제에 한하여 해당 회원 교회를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때 WCC의 행위는 해당 교회에만 해당한다.

WCC는 위에서 명시되거나 이 이후로 회원 교회에 의해 명시되는 방식을 제외하고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원 교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회원 교회를 대리하여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V. 조직

WCC는 여러 기능을 중앙위원회, 실행위원회, 그 이외 설립되는 여러 소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1. 총회

- a. 총회는 WCC를 운영하는 법적 최고 기구이며 통상 8년 간격으로 개최한다.
- b. 총회는 회원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자, 곧 회원 교회가 선출한 총대로 구성한다.
- c. 총회는 회원 교회들의 살아 있는 공동체의 삶의 결집이며,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을 강화시키면서, 아울러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 i. WCC의 회장 또는 회장(들)을 선출한다.
- ii. 회원 교회가 선출하여 총회에 파견한 총대들 중에서 145명 미만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 iii. 회원 교단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예외적인 이유 때문에 회원 자격을 얻지 못한 교회들이 선출하여 총회에 파견한 대표자들 중에서 5명 미만의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 iv. WCC의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하고, 이전에 채택된 정책들을 시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 v. 중앙위원회에 WCC의 세부적인 기능을 위임한다. 단, 이 헌장을 수정하거나, 이 헌장에 의해 총회에 배타적으로 부여된 중앙위원회의 위원을 배정하는 일은 예외로 한다.

2. 중앙위원회

- a. 중앙위원회는 WCC의 운영기관이며, 다음 사항을 수행할 일차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i. 총회의 비전과 정책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결정하고 발전시킨다.
 - ii. 회원 교회 간의 살아 있는 공동체적 삶을 심화하고, 회원의 토대인 공동의 소명을 함께 달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iii. 하나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연대성과 전략적인 지도력을 제공하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교회들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iv. 총회가 채택한 정책에 기초한 전략적인 프로그램이나 조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을 진다.
 - v. 총회 회기 사이에 총회가 중앙위원회에 위임한 총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 이 헌장을 수정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위원을 배정하거나 위원 배정을 변경할 수 있는 총회의 권한은 예외로 한다.
- b. 중앙위원회는 WCC의 회장 또는 회장(들)과 15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i. 총회는 회원 교회가 선출하여 총회에 파견한 총대들 중에서 145명 미만을 선출한다. 총회는 WCC에 총대를 파견한 회원 교회와 소속 교회의 규모와 교파전통(confession), WCC 회원인 각 교파별 소속 교회의 수, 적절한 지역적·문화적 균형, WCC의 주요 관심사를 대변해줄 대표성을 적절히 감안하여 위원들을 배정한다.
 - ii. 회원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예외적인 이유 때문에 회원 자격을 얻지 못한 교회들이 선출하여 총회에 파견한 대표자들 중에서 5명 미만의 위원을 선출한다.
 - iii. 총회 회기 사이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중앙위원회가 이전 그 직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소속된 회원 교회와 협의하여 그 공석을 채운다.
- c. 중앙위원회는 위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권한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 i.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 의장, 부의장 또는 부의장(들)을 선출한다.
 - ii.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 iii. 위원회(committees), 전문위원회(commissions), 기타 자문기구(consultative bodies)의 위원을 선출한다.
 - iv. 총회가 채택한 정책 범위 내에서 WCC의 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거나 종료한다.
 - v. 총무를 선출한다.
 - vi. 1명 이상의 부총무를 선출하고, WCC의 모든 직원을 임명하는 일과 관련된 규정을 만든다.
 - vii. 회원 관련 사안을 결정한다.
 - viii. 실행위원회의 조치에 관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예산과 재정
에 관한 보고서를 받는다.
 - ix. 총회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전략을 결정하고 발전시킨다. 여기에는
프로그램과 재정, WCC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
책이 포함된다.

x. 총회 개회를 계획하고, 총회의 사무 집행, 예배, 연구, 공동의 기독교적 약속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한다. 중앙위원회는 총대들의 수를 결정하고, WCC에 대표자를 파견한 회원 교회와 소속 교회의 규모, WCC 회원인 각 교파별 교회의 수, 지역적·문화적 균형, 교회의 고위책임자, 교역자, 평신도들 간의 바람직한 배분, 남성, 여성, 청년 사이의 바람직한 배분,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들의 참석 필요성을 적절히 감안하여 위원들을 배정한다.

xi. 세부적인 기능을 실행위원회나 다른 기관 또는 사람에게 위임하고, 그들은 그런 위임사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d. 중앙위원회는 프로그램, 재정, 인사 문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WCC의 운영에 관련해 위임받은 책임과 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실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3. 규칙

총회나 중앙위원회는 WCC의 사무 집행에 대하여 이 헌장과 모순되지 않는 규칙을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4. 내규

총회나 중앙위원회는 위원회, 자문기구, 신앙과 직제위원회와 같은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이 헌장과 모순되지 않는 내규를 채택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5. 의사결정 정족수

총회나 중앙위원회의 사무 집행에 필요한 의사결정 정족수는 해당 위원회 위원수의 과반이다.

VI. 기타 에큐메니칼 기독교 기구

1. 중앙위원회가 지명하는 교파별 세계연합체와 국제 에큐메니칼 기구에 총회와 중앙위원회에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가 대표자의 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대표자들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회의에는

참석할 권리가 없다.

2. 중앙위원회가 지명한 각국의 교회협의회나 대륙별 교회협의회, 그 이외 다른 기독교협의회나 선교협의회에 총회와 중앙위원회에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가 대표자 수를 결정한다. 그러나 이 대표자들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회의에는 참석할 권리가 없다.

VII. 현장 개정

현장은 총회 참석 총대들의 3분의 2의 투표와 3분 2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중앙위원회가 현장 개정안을 검토하고, 총회 개최 최소 6개월 전에 회원 교회에 개정안을 공지해야 한다. 회원 교회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 역시 현장 개정안을 제안할 권리가 있다.

규칙

I. WCC 회원권

WCC는 WCC를 구성해왔거나, 회원 가입을 인정받은 교회 또는 WCC에 계속 소속되어 있는 교회로 이루어진다.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교회”라는 용어에는 독립적인 교회들의 협회, 협의회, 연합회도 포함된다. 한 국가 또는 지역 내의 교회 그룹, 동일한 교파 교회 그룹은 WCC에 하나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동일한 국가나 지역 내 또는 교파 교회들은 그들의 공동 소명에 응답하고, 그들의 공동 참여를 강화하거나 최소 규모 요구 조건(규칙 I.3.b.iii)을 충족하기 위해 공동으로 WCC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WCC는 이러한 교회 그룹을 권장한다. 교회 그룹에 속한 각 개별 교회는 최소규모 기준을 제외한 WCC의 회원 가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WCC 회원인 독립적인 교회들의 그룹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WCC의 강령에 동의하고 회원 가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총무는 WCC에 가입이 수락된 회원 교회의 공식 명부를 관리하고, 총회나 중앙위원회가 수락한 특별한 합의에 유의한다. WCC 회원 중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명부와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의 명부를 별도로 관리한다.

1. 가입 신청

WCC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서면으로 총무에게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다.

2. 가입 신청 처리

총무는 가입 신청서를 실행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때 총무는 중앙위원회가 가입 신청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함께 제출한다.

3. 가입 기준

WCC에 가입을 신청한 교회(이하 “가입 신청 교회”)는 먼저 WCC의 강령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헌장 I조와 III조에 규정한 WCC의 목적과 기능에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WCC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WCC는 성경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심과 구세주로 고백하며, 따라서 한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받은 공동의 소명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의 공동체이다.”

가입 신청 교회는 자신의 신앙과 증언이 다음과 같은 기준이나 실행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설명해야 한다.

a. 신학적인 측면

- i. 교회는 교회생활과 증언에서 성경에 따라, 그리고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명시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을 고백한다.
- ii. 교회는 복음선포 사역을 수행하고,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이해하는 교리에 따라 성례전을 거행한다.
- iii. 교회는 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다른 교회의 세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다.
- iv. 교회는 교회 경계 밖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와 활동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선물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기를 간구하고, 다른 회원 교회 역시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믿는다는 점을 인식한다.

- v. 교회는 비록 다른 회원 교회를 “진정하고 온전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간주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회원 교회에 진정한 교회의 구성요소가 있음을 인정한다(토론토 성명).

b. 조직적인 측면

- i. 교회는 지속적이고 독립적인 교회생활과 조직에 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ii. 교회는 WCC에 공식적으로 회원 신청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조직이나 사람의 허락을 얻지 않고 WCC에 계속 소속할 수 있어야 한다.
- iii. 가입 신청 교회는 통상적으로 최소 5만 명의 교인을 확보해야 한다. 예외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중앙위원회는 최소 규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 iv. 가입 신청 교회의 교인수가 1만 명 이상 5만 명 이하이고, 규칙 I.3.b.iii의 예외적인 이유를 감안해도 회원 가입이 허용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측면에서는 회원 자격이 있는 경우 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조건이 부여된다. (a) 총회의 의결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없다. (b) 규칙 IV.4.b.iii에 따라 중앙위원회에 참여할 5명의 대표자를 선택할 때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교회는 다른 모든 측면에서는 WCC에 가입된 회원 교회로 간주한다.
- v. 교회들은 WCC에 소속된 회원 교회들 간의 필수적인 상호의존성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며, 특히 같은 교파 교회는 더욱 그러하다. 같은 국가나 지역 내의 다른 교회들과의 건설적인 에큐메니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교회가 각국의 교회협의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 대륙별/지역별 에큐메니칼 기구의 회원임을 의미한다.

4. 협의

교회를 WCC의 회원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관련된 세계 교파별 연합체와 각국의

교회협의회 또는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와 협의를 거친다.

5. 회원 가입 결정

중앙위원회는 의사결정 합의제 모델에 따라 회원 가입 신청서를 검토해야 한다.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면, 정해진 잠정 기간 동안 WCC의 활동에 참여하고, 같은 지역의 회원 교회와 교류할 수 있다. WCC 회원 교회는 잠정 기간 동안 서로 협의한다. 중앙위원회는 회원 교회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가입 신청 교회의 가입을 찬성하는지 평가하고, 찬성할 경우 가입 신청 교회를 새로운 회원 교회로 간주한다.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앙위원회는 가입 신청서를 거부한다.

6. 회원 탈퇴와 자격 정지

- a. WCC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 교회는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한 교회가 WCC에 재가입하고자 할 경우 회원 가입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
- b. 중앙위원회는 다음 경우에 교회의 회원 자격을 중지할 수 있다. (i) 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ii) 교회가 회원 자격에 필요한 WCC의 강령이나 신학적 기준 때문에 회원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iii) 교회가 규칙 II에 명시된 회원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무시할 경우
- c. 중앙위원회가 교회의 회원 자격을 정지할 경우 총무는 해결책에 대해 서로 협의할 때까지 실행위원회에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회의 회원 자격 상태에 대한 모든 결정은 중앙위원회가 내린다.

II. 회원의 책임

WCC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WCC의 강령과 유대관계를 충실히 지키고, WCC의 삶과 사업에 참여하며, 교회의 선교에 필수적인 요소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헌신하겠다는 뜻이다. WCC의 회원이 된 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1. 총대를 임명하여 총회, WCC의 주요 정책 결정 기구에 파견하고 에큐메니칼 비전과 의제를 만들어가는 일에 다른 회원 교회와 함께 참여한다.

2. 에큐메니칼 연대를 표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모든 문제 또는 WCC나 세계의 다른 교회가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WCC의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할 때 자신의 일차적인 관심사, 우선순위, 활동, 건설적인 비판을 제시한다.
3.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헌신의 의미를 소통하여 모든 차원의 교회생활에서 에큐메니칼 관계와 행동을 발전시키고 촉진하며, 에큐메니칼 운동의 유대관계를 지방, 국가, 지역, 국제적 차원에서 추구한다.
4. 더 폭넓은 에큐메니칼 운동과 WCC, 그것의 본질, 목적, 회원 교회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을 교회 내의 일상적인 보고 내용으로 삼는다.
5.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WCC 프로그램, 활동, 회의에 대한 참가를 권장한다.
 - a. WCC의 다양한 위원회, 회의, 협의, 프로그램, 출판, 정책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다.
 - b. 회원 교회 자체의 프로그램 사무국과 그와 관련된 WCC 프로그램 사무국을 서로 연계시킨다.
 - c. WCC의 의사소통 자원 곧, 책, 정기간행물, 다른 출판물을 위한 자료를 제 공하거나 활성화한다.
6. 중앙위원회가 연구, 행동 또는 그 이외 다른 후속 조치를 결정하여 회원 교회에게 요청할 경우 이에 응답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위원회나 실행위원회 또는 총무가 요청한 기도, 자문, 정보, 의견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7. WCC 총예산의 연간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의 액수는 교회와 WCC가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정기적으로 다시 검토한다.
8. 회원 교회의 자원에 어느 정도 비례하여, 그리고 WCC와의 협의를 통해, WCC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과 회원 교회 총대들이 WCC 행사에 참여하

기 위한 여행경비와 숙박료와 관련된 비용을 감당한다.

회원 교회가 이런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가 결정한다.

III. WCC의 협력후원교회

WCC의 강령에 동의하는 교회는 WCC의 협력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요청서는 WCC와의 협력관계를 요청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만일 중앙위원회가 그 이유를 승인할 경우, 이 교회는 WCC 협력후원교회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WCC 협력교회에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부여된다.

1. 총회와 중앙위원회에 대표자(들)을 파견하여 의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합의방식이든, 투표방식이든 상관없이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없다.
 2. WCC의 위원회, 자문 그룹, 다른 협의기구에 컨설턴트나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3. 명시된 WCC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WCC의 의사결정이나 성명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할 수 있다.
 4. WCC 총예산의 연간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의 액수는 교회와 WCC가 협의하여 합의한다. 협력교회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WCC는 통상적으로 협력교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 총무는 WCC의 협력교회의 명부를 관리한다.

IV. 총회

1. 총회의 구성

a. 발언권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총회는 회원 교회가 선출한 공식적인 총대로 구성된다. 총대들은 발언권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i. 중앙위원회는 총회 회의에 앞서 미리 총회의 총대 수를 결정한다.

ii. 중앙위원회는 전체 총대 중 최대 85%를 결정하며, 이 총대들은 회원 교회가 추천하고 선출한다. 각 회원 교회는 최소 1명의 총대를 선출할 권리를 갖는다. 중앙위원회는 85% 그룹에 속하는 나머지 총대들을 회원 교회에 배분한다. 이때 중앙위원회는 WCC에 총대를 파견한 회원 교회와 소속 교파의 규모, WCC 회원인 각 교파별 교회의 수, 지역적·문화적 균형을 적절히 감안하여 위원들을 배정한다. 중앙위원회는 교회의 고위책임자(church officials), 교역자, 평신도, 남성, 여성, 청년, 원주민들 간의 총회 총대 배분 비율을 제안한다. 중앙위원회는 회원 교회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총대를 대신할 총대를 선출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iii. 나머지 최소 15%의 총대들은 다음과 같이 중앙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특정 회원 교회가 선출한다.

iv. 만일 중앙위원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위의 ii 조항에 의거하여 총대로 선출되지 못할 경우, 중앙위원회는 그들이 소속된 회원 교회에 그들을 총대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아래의 v.와 vi. 조항은 이렇게 추천된 후보에 적용된다.

v. 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균형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추가 총대 범주를 결정한다.

a) 교회와 소속 교파의 다양한 규모

b) 특정 교회의 역사적 의미, 미래의 잠재력이나 지역적 위치, 문화적 배경, 연합 교회의 특별한 중요성

c)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총회에 반드시 참석할 필요성

d) 여성, 청년, 평신도, 지역 교역자의 비율

e) 원주민의 참여

f) 장애인의 참여

vi. 중앙위원회는 위의 범주에 속하고 또 중앙위원회가 추천할 경우 회원 교회들이 선출하고 싶은 후보자 명단을 제안해달라고 회원 교회들에게 요청한다.

vii. 중앙위원회는 이렇게 수집한 후보자 명단 중에서 특정한 개인을 추천하여 각 회원 교회에 제안한다.

viii. 만일 각 회원 교회가 중앙위원회가 추천하여 제안한 후보자를 선출하면, 그 후보자는 그 회원 교회의 추가 총대가 된다.

ix. 회원 교회는 추가 총대가 공석이 될 경우 그를 대신하는 총대를 선출해서는 안 된다.

회원 교회들은 위의 ii과 iii항에 규정된 총대를 선택할 때 대륙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모든 총대는 소속된 각 회원 교회의 자체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b. 발언권은 있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없는 사람들

투표할 권리를 가진 총대들 이외에, 아래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지만 발언권만을 갖는다.

i. WCC 회장 또는 의장 또는 부의장(들): 소속 회원 교회에서 총대로 선출되지 않은 WCC 회장 또는 중앙위원회 의장 또는 부의장.

ii.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위원회 위원: 소속 회원 교회에서 총대로 선출되지 않은, 임기가 만료된 중앙위원회 위원들.

iii. 교회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또 예외적인 이유에 따라 회원 가입을 허락받지 못한 교회의 총대들: 이런 회원 교회들은 각각 1명의 총대를 선출할 수 있다.

iv. 자문위원: 중앙위원회는 총회의 심의에 특별한 기여를 제공하거나, WCC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다. 회원 교회에 소속한 자문위원에게 초청장을 보내기 전에 해당 회원 교회와 협의해야 한다.

v. 파송 대표자: 중앙위원회는 WCC가 관계를 맺고 있는 기구들이 공식

대표자로 공식 지명한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다.

vi. 파송 참관인: 중앙위원회는 비회원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명한 공식 참관인을 초청할 수 있다.

c. 발언권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

중앙위원회는 발언권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총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i. 참관인: WCC가 관계를 맺은 기구에 소속되어 있지만 공식이 아니거나, 비회원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공식 참관인이 아닌 사람들

ii. 방문자: 개인 명의로 참석하는 사람들

2. 총회 지도부

a. 총회의 1차 의결회의의 때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위원회는 이전 총회 이후로 수행된 활동에 대한 회계보고가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한 총회 지도부와 실무위원회의 지도부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다. 아울러, 중앙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여러 위원회의 직책 임명, 위원회의 위원과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한다.

b. 1차 또는 2차 의결회의의 때, 6명의 대의원의 동의를 받아 여러 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서면으로 추가 추천할 수 있다.

c. 총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3. 총회의 의제

총회의 의제는 중앙위원회가 총회의 1차 의결회의에 제안한다. 총대들은 규칙 XIX.6.c에 따라 의제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규칙 IV.5.b에 따라 새로운 과제나 의제 변경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4. 인선위원회

a. 총회의 1차 의결회의의 때, 총회는 총회에 파견한 공식적인 교회의 총대들 중에서 인선위원회를 선출한다. 인선위원회는 총회 회원들의 배분 균형과 WCC의 주요 관심사를 적절히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인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WCC 회장이나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없다.

b. 인선위원회는 아래 제시된 직책의 후보자를 추천하며,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와 협의한다.

i. WCC의 회장 또는 회장(들)

ii. 회원 교회가 선출하여 총회에 파견한 총대 중에서 145명 미만의 중앙위원회 위원

iii. 규모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예외적인 이유에 근거하여 회원 가입을 허락받지 못한 회원 교회가 선출하여 총회에 파견한 총대들 중에서 5명 미만의 중앙위원회 위원

c. 인선위원회는 후보를 추천할 때 다음 원칙을 고려한다.

i. 추천받는 직책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적인 자질

ii. 교파별 대표성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고려

iii. 지역과 문화의 대표성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고려

iv. WCC의 주요 관심사 대표성에 대한 공정하고 적절한 고려

d. 인선위원회는 후보자가 소속한 교회에 일반적인 수용가능성을 확인한다.

e. 하나의 교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은 7명 이내이다.

f. 인선위원회는 총회를 구성할 때 평신도의 적절한 대표성, 그리고 남성과 여성, 청년 간의 적절한 균형을 최대한 확보한다.

g. 인선위원회는 총회에 인선안을 제시한다. 최소 3개의 회원 교회 출신의 6명의 총대들은 서면으로 대안적인 인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단, 각각의 대안 후보자들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대안으로서만 제안되어야 한다.

h. 총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5. 실무위원회

a. 실무위원회는 총무,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위원회 의장 또는 부의장(들), WCC 회장, 합의제 및 공동협력상설위원회 공동의장(총대로 참석), 기획위원회 의장 또는 지명된 위원(총대로 참석), 청문회 및 위원회 의장들(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음),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들 중

총회 총대들로부터 추천받은 10명(이들은 규칙 IV.2에 따라 선출된다)으로 구성한다. 만일 상설위원회 공동의장 또는 기획위원회 의장이 총대(들)가 아닌 경우, 그는 총회와 실무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초청되며, 이때 발언권은 있지만 의사결정권은 없다.

b.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한다.

- i. 총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조정하고 의제에 포함된 항목을 재조정, 수정, 추가, 삭제, 대체하기 위해 내용을 제안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이러한 제안 내용을 가장 빠르고 편리한 시간에 변경 사유와 함께 총회에 제시해야 한다. 제안에 대해 토론할 기회를 가진 후, 회장은 총회에 ‘총회는 실무위원회의 제안을 승인할 것인가?’라고 질의한다. 총회는 합의 또는 투표절차에 따라 이 질의에 대해 결정한다. 만일 투표절차에 따라 결정할 경우, 제안된 변경 내용을 채택하려면 출석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 ii. 규칙 XIX.6.c에 따라서 총대가 실무위원회에 제안한 사업 항목이나 의제 변경에 대해 검토한다.
- iii. 규칙 XIX.2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총회, 청문회 또는 의결회의를 개최할지를 결정한다.
- iv. 총회가 여러 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숙고하기 위해 여러 위원회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검토한다.

6. 기타 위원회들

- a. 기타 위원회들은 각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은 선출되어 총회에서 수락을 받은 후 규칙 IV.2에 따라 중앙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제안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b. 각각의 위원회는 총회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위원회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아울러 총회에도 보고서나 권고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V. 회장

1. 총회는 WCC 회장을 최대 8명까지 선출할 수 있다.
2. 회장들은 에큐메니칼 업무 경험과 평판이 각 지역과 교파 교회전통에 따라 회원 교회와, WCC의 에큐메니칼 파트너들로부터 널리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3. 직책상 회장들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된다.
4. 회장들은 규칙에 따라서 중앙위원회나 총회의 관련 회의의 사회를 요청받을 수 있다.
5. 중앙위원회는 회장들에게 특정한 과제를 수행하거나 검토한 후 중앙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6.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후 개최되는 차기 총회가 끝날 때 종료된다.
7. 총회 사이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중앙위원회는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 남은 임기를 채우게 할 수 있다.
8. 총회에서 선출되거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은 연속하여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

VI. 중앙위원회

1. 위원
 - a. 중앙위원회는 WCC의 회장 또는 회장(들)과 총회가 선출한 150명 미만의 위원들로 구성한다(헌장 V.2.b를 보라).
 - b. 만일 정식으로 선출된 중앙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불참 위원이 소속한 교회는 대리자를 파견할 권리가 있다. 단, 대리자는 통상 불참 위원이 거주하는 국가에 거주해야 한다. 대리자는 발언권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만일 위원 또는 그의 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으로 2회 회의에 불참할 경우, 그 직위는 공석으로 공표되며, 중앙위원회는 헌장 V.2.b.iii에 따라 공석을 채운다.
 - c. 중앙위원회 위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i. 에큐메니칼 운동의 가치를 증진한다.
 - ii. WCC의 업무를 특히 자신이 속한 지역과 교파전통에서 널리 옹호하고

설명한다.

- iii. WCC가 자신이 속한 지역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한다.
- iv. WCC가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참가자

- a. 모든 회원 교회는—아직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다 해도—중앙위원회 회의에 대표자 1명을 보낼 수 있다. 이런 경우 대표자는 발언권은 있지만 의사결정권은 없다.
- b. 중앙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은 자기가 회원으로 소속된 교회와 협의한 후에 실행위원회에 초청받을 수 있다.
- c. 여러 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기구의 의장과 부의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아니라도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언권은 있지만 의사결정권은 없다.
- d. 중앙위원회는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규칙 XIV), 교파별 세계연합체(규칙 XV), 중앙위원회가 인정한 증언과 봉사를 수행하는 특별 전문목회사역기관(규칙 XVI)에게 중앙위원회 회의에 자문위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문위원들은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발언권은 있지만 의사결정권은 없다.
- e. 협력 회원인 국가별 교회협의회(규칙 XIII)와, 중앙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 에큐메니칼 기구(규칙 XVII)는 중앙위원회의 재량으로 중앙위원회 회의에 자문위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자문위원은 발언권은 있지만 의사결정권은 없다.
- f. 규칙 XI.3과 4.a와 b에 명시된 대로, 중앙위원회가 임명한 WCC 소속 직원은 중앙위원회가 별도로 결정하지 않는 한,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발언권은 있지만 의사결정권은 없다.

3. 중앙위원회 지도부

- a.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한 명의 의장”)과 부의장 또는

복수의 부의장을 선출하여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임기 동안 봉사하게 한다.
통상적으로 지도부의 임기는 총회에서 다음 총회까지로 되어 있는 중앙위
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하다.

- b. 의장은 WCC의 대표자이며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사업의 연대성을 유
지하고, 아울러 합의제 정신에 따라 WCC의 모든 사업을 운영해야 할 책임
이 있다.
- c. 의장은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할 일차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 역할을 부의장(들)과 공유한다. 의장은 부의장(들), 총무와 협의하여 중
앙위원회나 실행위원회의 특정 회의를 주재할 책임을 WCC 회장들 중 한
사람 또는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중앙위원회나 실행위원회의 위원에게 위
임할 수 있다.
- d. 의장, 부의장(들), 총무는 함께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 회의를 계획한다.
그들은 중앙위원회나 실행위원회가 검토, 결정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
해야 할 이슈들을 함께 정한다. 그들은 중앙위원회의 각 회의와 각 위원들
이 적절한 리더십과 자원(정보와 시간)을 갖고 합의제의 정신에 따라 업무
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실행위원회의 각 회의와 각 위원들이 충분
한 자원과 전문지식을 갖고 실행위원회에 위임된 모든 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한다.
- e. 중앙위원회의 의장, 부의장(들), 특정 회의 사회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
한다. (i) 회의 참가자들이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회원 교회들이 유대와
상호 책임을 강화하도록 격려한다. (ii) 회의를 통해 WCC의 공동의 이해
와 비전을 함양한다. (iii) 합의 정신을 높이고 합의과정을 촉진한다. (iv)
에큐메니칼 운동 내의 연대성이 높아지도록 도와준다.
- f. WCC의 총무는 중앙위원회의 총무를 역임하며, 총무 자신에 관련된 주제
를 토론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가할 권리를 갖
지만, 투표를 하거나 의사표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4. 각종 회의

- a. 중앙위원회는 위원이 선출되는 (“조직구성 회의”) 총회 기간 중이나 총회 직

후에 통상적으로 개최하되, 대략 총회 후 1년, 그 이후에는 대략 2년 간격으로 개최한다. 총무는 조직구성 회의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총회가 중앙위원회의 보고서를 수락할 때 만료된다.

- b.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총회의 회의 개최 장소와 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 c. 실행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중앙위원회의 특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아울러 중앙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할 경우 중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d. 총무는 WCC 회원들의 주요 지역, WCC의 주요 관심사, 소속 교파가 적절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능

중앙위원회는 헌장에 명시되고, 총회가 위임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WCC 회원 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a. 총회가 채택한 정책과 부합하는 WCC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아울러 차기 총회를 준비하며, 차기 총회에 중앙위원회 회기 동안에 수행한 정책을 보고한다.
- b. 총회, 중앙위원회, 전문위원회, 협의기구가 발굴한 이슈를 포함하여, 교회의 생활과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이슈를 다룬다.
- c. 회원 교회가 언급한 문제를 다루고, 위원회와 회원 교회가 당면한 모든 이슈나 관심사에 대한 성명서를 규칙 XIII에 따라 발표한다.
- d. 회원 문제를 결정한다.
- e. 프로그램 전략과 목표를 정한다.
- f. WCC의 재정적 안정을 확보한다.
- g. WCC 총무를 선출한다.
- h. WCC의 지도와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총무로부터 받고 총무가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WCC의 프로그램과 활동이 WCC의 헌장, 취지와 정신에 부합하도록 한다.

- i. 의장과 부의장(들), 실행위원회 위원을 선출한다.
 - j. 구체적인 관리 기능을 규칙에 따라 실행위원회에게 위임하고 실행위원회가 책임을 지게 한다.
 - k. 위원회, 소위원회, 필요할 경우 실무그룹을 포함하여 중앙위원회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직과 기구를 구동한다.
 - l. 직원, 프로그램, 관계 설정을 포함(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하여 WCC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정책지침을 정한다.
 - m. 각종 위원회와 협의기구의 구성원을 선출하고, 각 기관의 내규를 승인하며, 다음과 같은 현행 업무(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를 수행하게 한다.
 - i. 신앙과 직제위원회
 - ii.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 iii. 교육과 에큐메니칼 훈련양성위원회
 - iv. 국제문제위원회
 - v. 청년과 에큐메니칼운동위원회
 - n.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헌장에 부합하는 규칙이나 내규를 만든다.
 - o. 프로그램, 재정, 인사 문제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WCC 운영에 관한 위임된 책임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실행위원회에게 위임한다.
 - p. WCC 헌장이 규정한 권한을 행사하고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또한 총회가 채택한 폭넓은 목표와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조직이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위임한다.
 - q. 중앙위원회 임기 동안 수행한 조치나 결정을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총회가 이 보고서를 수락함과 동시에 중앙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된다.
6. 실행위원회의 선출과 임기
- a. 실행위원회는 총회와 차기 총회 기간 사이에 두 번 선출한다.
 - b. 조직구성 회의 동안 중앙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되는 1차 실행위원회를 선출하여야 한다. 실행위원회는 총회 후 첫 4년 동안 활동한다(“1차 실행위

원회”).

- c. 1차 실행위원회의 4년 임기가 만료되기 직전에 개최되는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선출하여 중앙위원회의 보고서가 차기 총회에서 수락될 때까지 활동하게 해야 한다(“2차 실행위원회”).
- d. 어떤 위원도 실행위원회에서 2회 이상의 임기 동안 활동할 수 없다.
- e. 실행위원회에 공석이 생기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차기 회의에서 위원을 보선한다.

7.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회

- a. 중앙위원회는 규칙 X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 b. 중앙위원회는 각 회의 때나 회의 중간에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위원회가 특별히 숙고하거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 c.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회들은 중앙위원회의 회기 동안 활동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WCC 소속 전문가의 지원을 받으며, 중앙위원회에 의사결정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안한다.
- d. 중앙위원회는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위원회 회의 밖에서 특정한 기간 내에 완수해야 할 구체적인 소관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시위원회의 구성은 운영 및 인선위원회가 총무와 협의하여 중앙위원회에 제안한다.
- e. 중앙위원회 참가자(규칙 VI.2)는 하나의 위원회에만 배정될 수 있다.

8. 대표성에 관한 정책지침

- a. 모든 위원회, 전문위원회, 실무그룹, 연합 협의기구를 구성할 때 다음의 원칙을 유념한다.
 - i. 추천을 받은 당사자는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 ii. 교과배분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 iii. 지역과 문화전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해야 한다.
 - iv. WCC의 주요 관심사를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변해야 한다.

- v. 후보자가 소속된 교회가 후보자 선정을 수락할 일반적인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 vi. 평신도, 원주민, 장애인, 남성과 여성, 청소년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해야 한다.
- b. 모든 인선은 가장 최근에 개최된 총회의 중앙위원회가 채택한 균형 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 c. 앞의 항에 추가하여, 위원회, 전문위원회, 자문기구의 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중앙위원회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들의 대표성을 고려할 때 회원 교회의 규모를 감안하여, 회원 교회들의 대표성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VII. 중앙위원회 조직구성 회의 시의 인선위원회

1. 중앙위원회는 총회 직후 첫 회의(“조직구성 회의”)에서 인선위원회를 선출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a.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의장, 부의장, 또는 부의장(들)을 추천한다.
 - b.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된 사람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다.
2. 조직구성 회의의 인선위원회에서 활동할 사람의 명단은 총무가 합의제 및 공동협력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들과 협의한 후 조직구성을 위한 첫 회의에서 제안하되,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균형 있게 대표하고, WCC의 주요 관심사를 최대한 잘 대표해야 한다.
3. 조직구성 회의의 인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의장, 부의장(들) 또는 실행위원회의 직책에 추천될 자격이 없다.
4. 인선위원회는 위원을 추천할 때 규칙 IV.4 또는 VI.8에 제시된 원칙을 고려해야 하고, 아울러 중앙위원회 의장, 부의장, 그리고 실행위원회 위원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능력과 경력을 고려한다.

5. 인선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조직구성 회의의 다음 회기에 후보 추천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위원회 위원 가운데 3명의 연서명으로 인선위원회가 제시한 후보 추천자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단, 이때 새로운 추천자는 기존의 특정 추천자를 지목하여 대체 제안되어야 한다.
6. 중앙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7. 의장과 부의장(들), 실행위원회를 선출한 후 조직구성 회의의 인선위원회는 활동을 종료한다.

VIII. 실행위원회

1. 운영 권한

- a. 실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WCC의 구체적인 운영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WCC의 운영과 직원에 대한 제한과 지침을 정하여 WCC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 b. 실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을 지며, 각 중앙위원회 회의에 업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위원회는 업무보고서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실행위원회의 구성

- a. 실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의장, 부의장 또는 부의장(들), 그 외 20명의 중앙위원회 위원, 중앙위원회 소속의 프로그램위원회의 위원장들 및 재정정책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 b. 의장, 부의장(들), 총무는 실행위원회 회의에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로부터 자문위원을 초청할 수 있다. 자문위원들은 발언권은 있지만 의사결정권은 없다.
- c. 의장, 부의장(들), 총무는 실행위원회 회의가 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고, 교파, 지역, 문화적 배경, WCC의 주요 관심사가 적

절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한다.

- d. 만일 실행위원회 위원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그 위원은 의장이 동의할 경우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대리자를 보낼 권리가 있다. 이 경우 대리자는—최대한—같은 지역, 같은 교회(교파) 출신이어야 하며, 발언권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3. 실행위원회 지도부

- a. 중앙위원회의 의장이 실행위원회의 의장을 겸임한다.
- b. WCC 총무는 실행위원회의 총무가 되며 실행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여한다. 단, 총무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경우 투표를 하거나 의사표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4. 기능

- a. 중앙위원회는 권한의 일부를 실행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실행위원회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 WCC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받은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구체적인 권한과 책무는 아래와 같다.
 - i. 중앙위원회가 정한 전략적 목표를 시행한다.
 - ii. WCC의 재정을 감독하여 재정의 안정을 보장하고, 투자를 감독하고, 수입 증대를 촉진하고, 예산을 승인하고, 필요한 경우 지출을 제한한다. 실행위원회는 연간 재정보고서와 회계보고서를 승인한 경우 연간 재정보고서와 회계보고서와 예산서를 중앙위원회와 회원 교회에 제출해야 한다.
 - iii. WCC 산하의 모든 법적 단체를 개설하고 폐쇄한다.
 - iv. 자원 관리를 점검하고, WCC에 필요한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적절히 사용한다.
 - v. WCC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활동을 개시하거나 종료하도록 지시한다.
 - vi. WCC나 회원 교회가 당면한 이슈나 관심사에 대해 규칙 XII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한다.

- vii. WCC의 주요 영역에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위원회와 연합 협의기구의 권한과 규모를 중앙위원회에 권고한다.
 - viii. 규칙 XI에 따라 직원을 임명한다.
 - ix. 인사 정책과 직원 규정을 정하고 감독한다.
 - x. WCC의 전체적인 운영이 WCC의 헌장과 규칙, 관련 법률, 규정, 관례와 부합하게 한다.
 - xi. 리스크를 관리하고 조직(재정적인 위협)의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전략을 시행한다.
 - xii. 실행위원회 안에 위원회, 소위원회, 실무그룹을 두어 운영한다.
 - xiii. 중앙위원회 회기 사이에 위원회, 전문위원회, 신구교공동협의기구, 실무그룹 등의 구성원을 추천한다.
 - xiv.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진 문제에 대한 권한을 의장과 부의장(들), 총무에게 위임한다.
- b. 중앙위원회 위원 중 20명이 재정보고서, 회계보고서 또는 예산서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정보고서, 회계보고서, 예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이의 내용을 총무와 서면으로 실행위원회에 알린다. 그런 경우, 실행위원회는 각 문서를 다시 검토한다. 하지만 재검토 후 실행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결정된다.

5. 실행위원회의 위원회

- a. 실행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며, 소위원회는 실행위원회의 회기 동안 개최되어야 하고, 실행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해 조언한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각 소위원회의 의장을 지명해야 한다. 소위원회에는 한 명 이상의 자문위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조언을 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다. 소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다룬다.
 - i. 프로그램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프로그램위원회 위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실행위원회를 지원한다.
 - a) 중앙위원회가 정한 전략적인 프로그램 목표를 시행한다.
 - b) 프로젝트와 활동을 시작하고 종료한다.

- c) 자원배분 업무를 포함하여 진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점검하고 감독한다.
- d)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을 중앙위원회가 설정한 전략적 목표에 비추어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 ii. 재정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재정정책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실행위원회를 지원한다.
 - a) 매년 회계감사를 추천한다.
 - b) 차기 회계연도의 연간 예산과 자본지출 예산에 대한 승인 여부를 권고한다.
 - c) 차기 회계연도 이후의 기간에 대한 대략적인 예산 계획의 승인여부를 권고한다.
 - d) 수입과 기금 모금 전략의 시행을 점검한다.
 - e) 승인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 조치를 권고한다.
 - f) 재정정책위원회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장기 재정목표와 전략을 제안한다.
 - g) 회계 방침을 검토하여 채택 여부를 권고한다.
 - h) 별도 적립금과 투자자금을 관리하는 방침을 포함하여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방침을 따르고 있는지 점검한다.
 - i) 제안된 대출, 보증, 저당, 그 이외 다른 특별한 거래를 실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
 - j) 문서화된 내부 통제시스템의 유지를 포함하여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 k) 법정 회계감사의 보고서를 수리하고 재무제표의 승인 여부를 권고한다.

실행위원회는 재정소위원회 지도부—소위원회의 위원장과 두 명의 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에 재무제표 작성을 인가하고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재정소위원회의 지도부는 실행위원회의 회기 중간의 경우, 실행위원회로부터 구체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재정 문제를 처리하고 나중에 실행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iii. 인사-직원채용 및 인선관련소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실행 위원회를 지원한다.

a)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인력관리 정책과 전략을 감독하고, WCC가 모든 직원의 채용, 개발, 배치를 모범적으로 수행하게 하며,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을 유념토록 한다.

1. 근무기간, 해고 및 재배치 방침을 포함한 직원 신규 채용 및 유지 방침
2. 직원 윤리 규범
3. 직원 평가와 지속적인 전문 능력 개발
4. 내부고발자에 관한 방침
5. 고충사항 처리 및 징계 방침
6. 특히 대폭적인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직원 채용 방침을 변경할 때 직원 지원 사항
7. 직원 관련 규정

b) 규칙 XI에 따라 직원을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c) 인선 문제와 관련하여

1. 중앙위원회 및 중앙위원회 소속위원회의 자격 변동 여부를 기록하고 처리한다.
2. 전문위원회 및 신구교공동협의기구의 권한과 규모에 대해 중앙위원회에 제안할 실행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비한다.

d)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헌장 VII조와 규칙 XX에 따라 WCC 헌장과 규칙에 대한 개정사항들을 기록하고 처리한다.

iv. 공공쟁점처리위원회는 실행위원회 명의의 성명서 또는 회의록을 준비하는 일을 돕는다.

b. 회계감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은 실행위원회가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회는 실행위원회에 직접 보고한다.

IX. 합의제 및 공동협력상설위원회

1. 총회 후, 합의제 및 공동협력상설위원회(이하 “상설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을 선출한다. 상설위원회는 14명으로 구성하며 이중 절반은 정교회에 배정한다.
2. 중앙위원회 인선위원회의 정교회 측 위원은 중앙위원회의 모든 정교회 측 위원과 협의하여 7명의 정교회 측 위원을 추천한다. 중앙위원회 인선위원회 소속의 다른 위원들은 나머지 7명을 추천한다. 전체 중앙위원회는 상설위원회를 선출한다. 상설위원회 선출에는 규칙 VII.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회의에서는 인선위원회의 추천 후보 이외에 다른 대안후보를 추천받지 않는다.
3. 모든 위원 중 적어도 절반은 실행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이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다. 회원 교회들로부터 자문위원을 초청할 수 있다. 비회원 교회나, 때에 따라 WCC 관련 기관으로부터 참관인을 초청할 수 있다.
4. 상설위원회는 2명의 공동의장을 선출하며, 1명은 정교회 위원들이, 다른 1명은 나머지 위원들이 선출한다. 상설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 선출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충원한다.
5. 퇴임하는 상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총회 후 위원 교체 선거 때 종료된다. 상설위원회는 총회의 한 위원회로 간주되며, 총회의 실무위원회에 조언을 한다.
6. 상설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맡아 수행한다.
 - a. (1998년 제8차 하라레 총회에서 위임된) 특별위원회의 권한, 지시사항, 관심사, 원동력을 계속 유지한다.
 - b. 총회 기간이나 총회와 차기 총회 사이에 WCC 운영 기관들에게 조언과 권고사항을 제시하여 WCC 의제를 만들기 위해 제시된 문제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

- c. WCC의 삶과 사업(life and work) 관련 활동에 정교회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d.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고 행동할 기회를 제공한다.
- e. 교회론 문제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상설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X. 상임위원회

1. 상임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규정한 상설위원회로 간주한다. 상임위원회는 중앙위원회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에 맡긴 위임 사무를 수행한다.
2.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 2차 회의의 1차 의결회의에서 실행위원회로부터 중앙위원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임명제안서를 받는다.
 - a.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i. 운영 및 인선위원회
 - ii. 프로그램위원회
 - iii. 재정정책위원회
 - iv. 정책검토위원회
 - v. 공공쟁점위원회
 - vi. 커뮤니케이션위원회
 - b. 중앙위원회의 각 위원들은 중앙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봉사해야 한다. 이때 각 위원의 구체적인 전문지식과 관심사, 중앙위원회 내부의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한다.
 - c. 중앙위원회 기타 참가자들은(규칙 VI.2) 각기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업무에 참여하도록 배정될 수 있다.
3. 운영 및 인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맡아 수행한다.
 - a. 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협의기구, 실무그룹을 비롯한 조직 구조를 현장과 규칙에 따라 점검함으로써 중앙위원회를 지원한다.

- b. 중앙위원회, 전문위원회, 협의기구의 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 c. 각 조직이 정한 규칙과 내규가 WCC의 업무를 통제하는 현장에 부합하는지 점검한다.
- d. WCC 현장과 규칙에 대한 수정안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 e.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위원 교체가 있는 경우, 관련 업무를 접수 및 처리하여 중앙위원회가 조치를 취하도록 지원한다.

4. 프로그램위원회

- a. 중앙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서 프로그램위원회의 위원장과 23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아울러 최대 8명까지 자문위원을 선출한다.
- b. 프로그램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 i. 특히 WCC 프로그램들의 신학적 상호관련성, 그리고 프로그램과 활동들이 회원 교회들과 에큐메니칼 협력단체들에 주는 의미를 숙고한다.
 - ii. 총회가 설정한 폭넓은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결정과정을 기획하고,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대안을 명료화함으로써 중앙위원회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2차 회의에서 8개년 전략 제안서를 입안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iii. 중앙위원회가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하여 교회의 관점과 희망을 경청하고 신앙과 직제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가 발굴한 핵심 이슈에 대응하여 응답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앙위원회가 프로그램 사업의 목적을 변화하는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검토, 재설정,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iv. 프로그램 사업에 관한 실행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권고한다.
 - v. 프로그램에 대한 중간 및 총회 전 평가 계획을 시행한다.

5. 재정정책위원회는 다음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권고한다.

- a. 회원 교회의 분담금 계획과 캠페인, 특별보유금, 투자
- b. WCC의 비전과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장기 재무목표와 이를 위한 수입

및 기금모금 전략

- c. 재정 보고, 내부 회계 관리, 책임, 법률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중요한 이슈.
이때 실행위원회 재정소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초로 한다.

6. 정책검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a. 회원 교회들 간의 관계, 에큐메니칼 협력단체와의 관계를 평가하여 중앙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제안한다.
- b.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개상황을 기록하고 분석함으로써 중앙위원회를 지원한다.
- c. 상호관계에 대한 정책 지침을 준비하여 중앙위원회를 지원한다.
- d. 회원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여 중앙위원회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권고한다.

7. 공공쟁점처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a. 국제 문제에 관한 정책지침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를 지원한다.
- b. 총회, 전문위원회, 협의기구가 제시한 문제를 포함하여 회원 교회의 생활과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국제 문제를 분석한다.
- c. 중앙위원회가 실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공식 성명서나 회의록을 제공한다.
- d.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제안한 공식 성명서나 회의록을 접수하여 분석한다.
- e. 공식 성명서나 회의록을 준비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8. 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a. 홍보 및 소통에 관한 WCC의 장기 전략목표에 대해 권고하고, WCC와 회원 교회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주제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홍보 및 소통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지침을 제공한다.
- b. 프로그램, 총무, 중앙위원회, 실행위원회가 모두 WCC의 홍보 및 소통, 그리고 필요한 목표와 계획의 수립에 기여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 c. 회원 교회가 WCC를 홍보하고 소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한다.

- d. WCC가 세계기독교커뮤니케이션협회(WACC), 지역 네트워크와 같은 다른 커뮤니케이션 기관과 전략적 공동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특히 전 세계에 커뮤니칼 운동단체에 정의와 평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원한다.
- e. WCC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계획에 관한 일반 지침을 검토, 승인, 평가함으로써 중앙위원회를 지원한다.

XI. 직원

1. 중앙위원회는 규칙 XIX.10.a.ii와 중앙위원회가 총무를 물색하고 선출하기 위해 채택한 절차에 따라 총무를 선출한다. 총무가 공석일 경우, 실행위원회는 총무 대리를 임명하고 새로운 총무를 물색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2. 총무는 WCC의 업무를 지휘하며, WCC의 최고 실무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WCC의 업무와 WCC 직원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3. 총무와 아울러 중앙위원회는 한 명 이상의 부총무를 선출한다. 총무는 부총무의 자리가 공석인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며, 중앙위원회는 규칙 XIX.10.a.ii에 따라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한다.
4. 총무는 WCC의 지속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직원을 임명하거나, 임명절차를 수행한다.
 - a. WCC의 주요 프로그램이나 관리를 직접 책임지거나, 총무로부터 직접 책무를 위임받은 직책의 경우 총무는 그 직책을 맡은 인사를 제안하고 실행위원회가 임명을 결정한다. 신임 총무의 임기가 시작될 때, 중요한 프로그램이나 조직구조가 재조정될 때, 총무와 실행위원회는 함께 어떤 특정 직책이 이 규정에 해당되는지 결정한다. 이런 직책에 사람을 임명할 경우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 b. 총무는 그 이외 다른 프로그램 실무책임자를 임명하고, 이것을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

- c. 총무는 전문직, 행정직, 관리직을 임명한다.
- 5. 총무와 부총무(들)의 임기는 임명 결의안에 별도의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5년이다.
- 6. 정년퇴직은 일반적으로 스위스 법률에 따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이 68세가 되는 연도의 마지막 날을 넘겨서는 안 된다.
- 7. 총무는 WCC의 직원에 관한 다음의 방침을 모든 직위에 적용해야 한다.
 - a.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임명할 때 일차적인 고려사항은 최고 수준의 효율성, 경쟁력, 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 b.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 교파와 지역을 기초로 폭넓고 공정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
 - c. 모든 직책은 남성과 여성에게 평등하게 개방되며, 직원을 선택할 때 인종과 성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 d. 모든 직원은 WCC의 목적과 정신에 헌신해야 한다.
 - e. 회원 교회 출신의 구직 신청자는 회원 교회의 지도부가 신청자의 구직 신청을 지지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f. WCC 지도부에 남성과 여성이 모두 포함되고 또 지역과 교파의 기준으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XII. 공식 성명서

1. WCC는 업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총회나 중앙위원회를 통해 WCC나 회원 교회가 당면한 모든 상황이나 관심사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2. 성명서는 매우 폭넓은 대표성을 지닌 기독교 단체의 판단이나 관심사에 대한 표현으로서 큰 의미와 영향을 미치지만, 성명서의 권위는 오로지 성명서가 전달하는 진리와 통찰의 무게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 WCC가 회원 교회들을 지배하는 헌장적 권위나 그들을 대변하는 권리를 갖

고 있거나, 가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3. 신앙과 직제위원회 등 여러 전문위원회는 총회나 중앙위원회에 성명서를 제안하여 총회나 중앙위원회가 그것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4. 신앙과 직제위원회 등 여러 전문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성명서가 총회나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발표해야 할 경우, 해당 위원회는 위원회의 관심사와 활동 분야 이내의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해야 하며, 중앙위원회의 의장과 총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위원회는 WCC와 회원 교회가 모두 해당 성명서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5. 중앙위원회의 회기 사이에 성명서 발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의 조건에 해당될 때 각각 성명서를 발표할 수 있다. 단, 성명서의 내용이 WCC의 확정된 정책에 반해서는 안 된다.
 - a. 중앙위원회의 회기가 아닌 때에 실행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경우
 - b. 중앙위원회의 의장, 부의장 또는 부의장(들), 그리고 총무가 함께 발표하는 경우
 - c. 중앙위원회의 의장이나 총무가 각각 자신의 권한에 따라 발표하는 경우

XIII. 협력회원협의회

1. 중앙위원회는 에큐메니칼 유대와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가별 기독교연합회, 교회협의회 또는 에큐메니칼협의회를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협력회원협의회로 인정할 수 있다.
 - a. WCC의 강령을 알고, WCC의 하나 이상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WCC와 협력할 의사를 표명한 협의회
 - b. 해당 지역의 WCC 회원 교회와 이전부터 정책을 협의해온 경우
2. 각 협력회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 a. 총회에 공식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요청받는다.

- b. 중앙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자문위원을 파견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 c. WCC 회원 교회에 전달되는 모든 일반적인 발송 문서를 제공받는다.
3. 회원 교회와 직접적인 교류와 더불어, WCC는 각 협력회원협의회에게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제안된 WCC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회원협의회와 협의한다.
4. 중앙위원회는 협력회원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WCC와 각국의 교회협의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안내지침을 설정하고, 적절한 시기마다 재검토한다.

XIV.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

1. WCC는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를 에큐메니칼 운동의 필수적인 협력기관으로 인정한다.
2. 중앙위원회가 지정한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는다.
- a. 총회에 공식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요청받는다.
 - b. 중앙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자문위원을 파견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 c. WCC 회원 교회에 전달되는 모든 일반적인 발송 문서를 제공받는다.
3. 회원 교회와 직접적인 교류와 더불어, WCC는 각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에 중요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도록 제안된 WCC 프로그램에 대해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와 협의한다.
4. 중앙위원회는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에 관한 역할을 공유하는 방법을 포함하여 WCC와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안내지침을 설정하고, 적절한 시기마다 재검토한다.

XV. 교파별 세계연합체

1. WCC는 교파별 세계연합회 또는 교파 기구별 세계연합체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한다.
2. 중앙위원회가 지정하고, WCC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교파별 세계연합체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부여된다.
 - a. 총회에 공식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요청받는다.
 - b. 중앙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자문위원을 파견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 c. WCC 회원 교회에 전달되는 모든 일반적인 발송 문서를 제공받는다.
3. 중앙위원회는 교파별 세계연합체와의 관계와 협력에 관한 안내지침을 설정하고, 적절한 시기마다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한다.

XVI. 증언과 봉사를 수행하는 전문목회사역기관

1. 전문목회사역기관은 WCC 회원 교회의 교단에 속해 있으며, 교회에 기초하거나, 교회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에큐메니칼을 지향하는 사무소, 기관, 연합단체, 또는 그것의 협회로서, 특히 선교, 친교, 구호, 개발과 권리옹호 활동 분야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앙위원회는 에큐메니칼 증언과 봉사에 헌신하는 전문목회사역기관을 WCC가 업무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에큐메니칼 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 a. WCC의 강령을 이해하고 WCC와 관계를 맺고 협력할 의사를 표명한 기관
 - b. 회원 교회나, 전문목회사역기관이 관계를 맺고 있는 교회들이 WCC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경우
2. 중앙위원회가 인정한 각각의 전문목회사역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격이 부여된다.
 - a. 총회에 공식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요청받는다.

- b.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자문위원을 파견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 c. WCC 회원 교회에 전달되는 모든 일반적인 발송 문서를 제공받는다.
3. 회원 교회와 직접적인 교류와 더불어, WCC는 각 전문목회사역기관에 중요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전문사역 분야에서 시행하도록 제안된 WCC 프로그램에 대해 해당 전문목회사역기관과 협의한다.
4. 중앙위원회는 전문목회사역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WCC와 전문목회사역기관의 관계에 대한 안내지침을 설정하고, 적절한 시기마다 재검토한다.

XVII. 국제 에큐메니칼 기구

1. 중앙위원회는 규칙 XIII, XIV, XV, XVI에서 언급하지 않은 그 이외의 에큐메니칼 기구를 업무 협력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구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 a. 국제적인 성격의 기구로서(세계, 지역, 소지역 차원), 기구의 목적이 WCC의 기능과 목적과 일치하는 경우
 - b. WCC의 강령을 이해하고 WCC와 관계를 맺고 협력할 의사를 표명하는 기관
2. 각 국제 에큐메니칼 기구는 상호성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자격이 부여된다.
- a. 총회에 공식 대표자를 파견하도록 요청받는다.
 - b. WCC 회원 교회에 전달되는 모든 일반적인 발송 문서를 제공받는다.

XVIII. 법률 관련 조항

1. WCC의 존속 기간은 한정되어 있지 않다.
2. WCC의 법적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 그랑 사꼬네(Grand-Saconnex)에 있다. WCC는 스위스 민법 제60조와 그 이하 내용에 따라서 제네바에 소재하는 협회로 등록되어 있다. 지역 사무소는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세계의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다.

3. 실행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가 실행위원회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사람이 WCC를 법적으로 대표한다.
4. WCC는 중앙위원회 의장, 부의장, 또는 부의장(들), 그리고 총무, 부총무, 부총무(들) 중 두 사람의 공동 서명에 의해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중앙위원회 의장(또는 부의장이 WCC 총무나 부총무와 합의할 경우)은 자신(들)이 선택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장에 명시된 내용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WCC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는 등록된 서명인으로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WCC는 회원 교회의 분납금과 기부금 또는 유산을 사용하여 WCC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획득한다.
6. WCC는 상업활동을 추구하지 않는다. 단, 교회 간의 상호 지원을 대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아울러 WCC의 목적에 관련된 문서를 출판할 권리가 있다.
7. WCC 관리운영 기관의 구성원이나 총회의 구성원은 WCC의 의무나 약속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WCC가 체결한 약속은 오로지 WCC의 자산에 의해서만 보증된다.
8. 총무, 중앙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들), 각종 위원회의 의장단, WCC의 위원들은 협의와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기기를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전자 메일, 원격회의(teleconference), 화상회의, 이와 유사한 기술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회의 참가자가 지정된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회의와 그 과정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공고한 경우 그 회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의 최소 3분의 2가 회의에 참여할 경우 이런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9. 규칙 XIX에 따른 투표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의사결정은 우편투표나 전자 투표로 할 수 있다. 단,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1)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투표공고 날짜와 응답 마감날짜 사이에 최소한 45일의 공고기간을 둔다. (3) 우편요청에 응답하여 투표한 수는 가능 투표수를 기준으로 규칙 XIX에 제시된 의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총무 선거는 우편투표로 시행할 수 없다. 각 회원 교회에 전달하는 발송 문서는 우편물과 전자문서 형태로 보낸다.

XIX. 회의 진행

1. 개요

- a. 회의 진행에 관한 다음의 규정들은 총회, 중앙위원회, 실행위원회 등 WCC의 모든 회의에 적용된다. 총회 기간 동안 “회장, 중앙위원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퇴임하는 중앙위원회에서 각 직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중앙위원회의 임기 동안 이러한 직위들은 현 회장들을 의미하고 중앙위원회 회의 지도력을 지니게 된다.
- b. “총대”는 회원 교회의 공식 대표자를 의미하며 의사결정권과 발언권을 지닌다(규칙 IV.1.a).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총대”는 중앙위원회의 구성원 또는 그 구성원의 대리자를 뜻하며 (규칙 VI.1.b), 의사결정권과 발언권을 지닌다.
- c. “참가자”는 총대를 포함하여 총회나 중앙위원회 회의에 초대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발언권은 있으나 의사결정권은 없다(규칙 IV.1과 VI.2).

2. 회의의 종류

총회는 전체회의, 청문회, 의결회의로 나뉜다. 실무위원회는 의제 사항에 따라 그에 알맞은 회의 종류를 결정한다.

a.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예식, 공식적인 보고와 연설로 이루어진다. 중앙위원회나 실무위원회에서만 전체회의를 제언한다. 이 회의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b. 청문회

청문회는 본회의의 발표, 토의, 대화와 의견 교환을 위해 기획될 수 있다. 회원 교회들 간의 이해 향상, 친교 증진과 의제에 대한 공통된 정신에 도달하기 위해 청문회가 진행된다. 청문회 동안에는 광범위한 관점들을 토론하는 것을 권장한다. 청문회에서는 어떤 결정도 허용되지 않는다.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령이나 절차상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의결회의를 소집한다.

c. 의결회의

다음과 같은 결정이 필요할 때 의결회의를 계획할 수 있다.

- i. 의제의 채택
- ii. 의제 변경을 위한 제안
- iii. 임명과 선거
- iv. 보고서와 권고안의 접수와 채택
- v. 권고 안 결정, 위원회나 위임 위원회들의 제안, 청문회 발의안
- vi. 회계 안 채택과 재무감사
- vii. 헌장이나 규칙의 개정

3. 회의의 의장

- a. 퇴임하는 중앙위원회는 총회의 각 회의의 의장을 총회 전에 선출하고 실무 위원회는 총회 기간에 다음의 일을 한다.

- i. 전체회의에서 회장단이나 중앙위원회의 의장 중에 한 명이 회의를 주재한다.
- ii. 청문회에서는 회장단이나, 중앙위원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특정 전문지식을 갖춘 대리인 중 한 명이 회의를 주재한다.
- iii. 의결회의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퇴임하는 중앙위원회에 속해 있는 총회의 총대가 회의를 주재한다.

- b. 의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i. 회의의 종류를 발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 ii. 의견의 교환과 발전을 위해 토론과 대화를 격려하여 회의를 용이하게 만들며, 공동 의견이 산출되도록 회의를 지원한다.

- iii.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새로운 동의안을 특정 사항에 대해 점
검하고 동의를 얻어 회의의 다른 의견 진행 여부를 살핀다.
- v. 회의 진행 중에 회의의 종류가 변경되면 변경을 선언하고 변경을 알리기
위해 회의 사이에 휴식을 제공한다.
- v. 회의의 폐회를 알린다.
- c. 의장은 합의 사항이 정확히 기록되도록 회의록 서기와 협력하며 잘못된 기
록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신속하게 수정한다.
- d. 모든 의장은 의사결정이 합의제 모델에 근거한 회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회
의 진행지침과 규칙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는다.

4. 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개회, 중지와 연기를 선언한다.

5. 공식 회의록, 기록물과 보고서

- a. 실무위원회는 의결회의에서 총대 중에 기록관을 임명한다. 기록관은 의결
회의에서 진행된 토의 내용을 이해하고, 마지막 결정 사항을 포함하여 합
의된 내용을 기록하며 새로 합의된 사항을 파악하여 정리함으로써 의장을
지원한다. 또한 기록관은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전에 최종 합의된 내용이 정
확히 번역되고 총대들이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의장을 돕는다.
- b. 실무위원회는 각 청문회와 공식적인 보고서가 없는 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주제와 특정 제안을 포함하여 회의의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토의 모임 기
록자(rapporteur)를 임명한다. 위원회 회의를 위해 임명된 토의 모임 기록
자는 그 회의의 기록자 역할을 한다.
- c. 실무위원회는 총회의 전체회의, 청문회와 의결회의에서 공식적인 회의록을
남기기 위해 회의록 작성자(minute-taker)를 임명한다. 모든 회의에서는
공식적인 회의록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토의, 발의, 결정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회의록에는 보통 참고용으로 회의보고서가 포함된다. 회의의 의
장과 회의록 작성자는 회의록에 서명하고 회의록은 참가자들에게 발송된
다. 총회 회의록 이외의 다른 회의록은 발송 후 6개월 동안 이의 제기가 없

으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총회 이후 첫 번째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총회 회의록을 확인한다.

- d. 의결회의에서는 기록물이나 보고서로 작성된 공식적인 회의록을 남겨야 한다.
- e. 회의 종료 후, 회원 교회가 이 회의의 결정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회원 교회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고 다음 회의의 회의록이나 보고서에 기록할 수 있다. 회의 결정 자체는 이의에 의해 폐기되지 않는다.

6. 의제

- a. 안전들은 규칙 IV.3에 의거하여 회의의 의제로 포함될 수 있다. 실무위원회와 프로그램위원회가 절차를 정하고 중앙위원회는 목적에 따라 다른 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제에 포함될 사안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었거나 이를 제안한 그룹이나 위원회에서 합의되고 지원을 받은 보고서, 권고안, 제안서들을 기초로 해야 한다.
- b. 실무위원회는 의장에게 사업 수행과 각종 안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각 회의 이전, 혹은 회의의 휴식시간에 확실히 통보해야 한다.
- c. 총대는 사업 안전을 의제에 포함시키거나 변경되도록 실무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만약 실무위원회가 그 제안을 거절했다면, 총대는 서면으로 총회의 의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의장은 편리한 시간에 그 제안을 총회에 통보해야 하며, 실무위원회는 거절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총대는 제안에 대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의장은 더는 논의를 진행시키지 않고 다음의 질문을 한다. “총회는 이 제안을 받아드릴 것입니까?” 만약 총회가 제안에 대해 수락하며 동의하면, 실무위원회는 안전을 포함시키거나 안전 변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상정한다.
- d. 교회론에 관한 자기 이해에 관한 사항들: 제기된 문제가 총대 자신이 속한 교회에 반대하는 것이 된다면 총대는 결정사항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해당 총대와, 회의에 참석한 동일한 교회나 교파의 다른 총대와 협의하여 실무위원회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만약 해당 안전이 총대가 속한 교회의 교회론에 관한 자기 이해에 상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을 의결회의에서는 제외하고 청문회에서 고려할 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결정에 대한 자료와 회의록은 교회에서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회원 교회들에게 발송한다.

- e. 이 규칙의 제안에 따라서, 의제는 규칙 IV.3과 IV.5, 그리고 VI.3에 따라서 제안, 개정 및/또는 채택된다.

7. 발언

- a. 청문회 동안에 참가자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발언권을 요청하거나 의장이 초대할 경우 마이크 앞에 대기할 수 있는데 의장이 호명하는 경우에만 말할 수 있다.
- b. 총회나 중앙위원회의 의결회의에서는 총대만 발언권이 있다. 총대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발언권을 요청하거나 의장이 초대할 경우 마이크에 앞에 대기할 수 있는데 의장이 호명하는 경우에만 말할 수 있다.
- c. 청문회나 의사결정을 실시하는 위원회와 자문단의 회의의 경우, 총대가 아닌 참가자들은 발언권은 있으나 결정권은 없다.
- d. 의장은 의견이 공정하게 개진되도록 공정성을 보장하고 실무위원회의 소위원회로부터 발언자 순서 결정에 대한 조언을 받아들인다. 만약 시간이 허락하고 더는 발언자가 없을 경우에 의장은 발언자에게 한 번 이상 발언의 기회를 허용할 수 있다.
- e. 의장에 의해 기회가 주어지면 발언자는 마이크에 서서 말할 수 있다. 발언자는 자신의 이름, 교회, 국적과 회의의 역할 순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의장에게 의견을 말한다.
- f. 발언 시간은 일반적으로 3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언어나 해석상에 어려움이 있고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특별히 복잡한 경우 의장은 추가시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 g. 절차에 관한 제안—청문회나 의결회의: 발언자가 방해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총대는 보류중인 사항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수 있고 회의절차에 대해서 제안할 수 있다. 의장은 즉시 설명을 제시하거나 절차변경 제안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 h. 의사진행발언—청문회나 의결회의: 의사진행발언이란 다음의 요구사항이 발생하여 회의절차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요구사항이란 공격적인 언어에 대한 반대, 개별적인 설명의 필요, 미공개 회의로의 성격 변경을 말한다. 발언자가 발언을 하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어느 참가자라도 의사진행발언을 제기할 수 있다. 의사진행발언을 발의하기 원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의장을 향해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합니다.”라고 말한다. 의장은 발의자에게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설명을 허용하고 (토론 없이) 즉각 진행한다.
- i. 만약 의장이 진행한 회의절차 제안이나 의사진행발언에 반대하는 총대는 이에 대해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토론 없이 이 사안에 대해 회의에 붙인다. “여러분은 의장의 결정에 동의합니까?” 총대는 의사결정절차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답할 것이며 이는 적용될 것이다.

8. 합의 도달: 회의에서 공동의 정신 추구하기

- a. 합의 사항은 공식적인 투표로 결정되지 않고 회의의 공동의 정신을 추구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는 서로 존중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권한을 인정하고 진정한 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려는 가운데 일어난다.
- b. 규칙에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 c. 다음 중 하나가 일어나면 특정 사항에 대한 합의 결정은 기록되어야 한다.
 - i. 모든 총대의 동의 (만장일치) 또는
 - ii. 대부분이 동의하고, 반대자들이 충분하고 공정하게 토의되었다고 만족하며, 회의에서 공유된 의견을 제시하는 제안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 d. 합의된 결정은 토론 결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제안이나 제안 변경에 대한 수락을 의미한다. 제안이 거부되거나 사안이 연기되거나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을 나타내며, 다른 결과물에 관한 동의를 의미하기도 한다. 합의점에 도달한 후에 다양한 의견은 회의록이나 보고서의 마지막 문구와 기록물로 기록한다.

9.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 a. 제안이나 권고는 의결회의에서 확정, 개정, 거부될 수 있다. 총대는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의장은 한 번에 한 개 이상의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허용할 수 있다. 만약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경우, 공동 의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단계를 필요로 할 수 있다. 논의를 진행할 때, 의장은 회의의 공통적인 사안이 무엇인지 참가자들로 하여금 확인시킨 후에, 제안에 대해 더 다양한 의견이 표명되게 함으로써 여러 관점에 대한 토론을 장려한다.
- b. 회의장의 의견을 이해하고, 의장을 도와 합의에 효과적으로 도달하기 위해 회의의 기록자는 대화 내용을 기록한다. 총대들의 참여를 돕기 위해 총대들에게 의사표시 카드를 제공한다.
- c. 총대나 의장은 토론 사안과 관련 그룹에게 추가 작업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제시 자체는 회의의 정신을 식별하기 위한 검토과정이 될 것이다. 동의할 경우, 실무위원회는 차후 회의에서 사안을 고려하는 일정을 잡는다.
- d. 회의가 진행되면서 결과에 대해 동의하게 될 때쯤, 의장은 제안서 (또는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제안) 내용을 모든 총대에게 명백히 확인하며 그 결과가 합의 사항인지 아닌지를 검토한다. 규칙 XIX.8.c.i에 의거하여 모두가 합의사항에 동의하면, 의장은 의견이 합의에 도달하여 결정되었음을 선언한다. 만약 회의가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소수 의견자들의 의견에 대한 이유를 설명(소수 의견자들이 요구할 경우)할 기회를 주고 규칙 XIX.8.c.ii에 따라서 그들이 결정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는다. 만약 동의할 경우, 의장이 합의 사항을 선언한다.
- e. 만약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도부나 실무위원회가 회의가 끝나기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의장은 새로운 형태로 사안을 재검토할 수 있는 제안서를 실무위원회에 요청한다.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이 고려된 다음 의결회의에서 회의에서 반드시 결정을 할 것인지 대한 여부를 묻고, 이에 동의하면 다음 과정들 중에 하나를 진행시킨다. i에서 iii은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 i. 새로운 형태의 제안을 가지고 합의를 위해 더 노력하기
 - ii. 대다수의 총대가 동의하고 몇몇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소수 의견

자들의 견해가 회의록과 보고서, 회의 기록물에 기록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회의에서 제시하고 이에 만족하여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만들기

iii.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 투표절차 밟기(규칙 XIX.10)

- f. 회의에서 반드시 결정해야 할 사안을 합의제 절차에 따라서 토론을 진행해도 규칙 XIX.9. e.i 또는 ii에 의거해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의장은 회의절차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제안에 대해 투표로 결정합니다.” 규칙 XIX.6.d에서 설명한 “교회론에 관한 자기 이해에 관한 사안”을 제외하고서 의장은 절차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투표를 선언한다. 총대들은 투표를 통해 사안을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 동의 여부를 투표한다. 만약 총대의 85%가 참여하여 사안을 표결에 부치기를 찬성하면 투표를 진행한다. 85%보다 적은 대의원이 표결을 원하면 사안은 투표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리고 회의는 다시 참석 총대의 85%의 투표에 의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한 토의를 계속할지, 아니면 논의를 중단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10. 투표에 의한 의사결정

- a. 다음의 사항은 합의에 의하지 않고 투표로 결정된다.
- i. 헌장개정(3분의 2 찬성)
 - ii. 선거(총무 선출에 대한 특별 절차는 과반수 찬성)
 - iii. 총회 장소 투표(과반수 찬성)
 - iv. 연간 회계, 재정감사보고서 및 감사 임명(과반수 찬성)
- b. 의사결정절차를 합의에서 투표로 변경할 경우에 규칙 XIX.9.e.iii 또는 XIX.9.f를 따라서 진행한다. 그리고 투표절차는 위에 명시된 a항을 따라 진행하고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 i. 모든 발의는 총대의 동의와 재청으로 진행되며 제안자는 제일 먼저 발언할 권리를 갖는다.
 - ii. 재청이 진행되는 토론에서 총대는 한 번 이상의 발언권을 가질 수 없으며, 동의를 한 총대는 토론 마지막에 반대 의견에 대해 변론할 수 있다.
 - iii. 어느 총대라도 재청자가 지지하는 경우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안은 원래의 제안과 동시에 고려된다.

- iv. 동의자의 응답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토론이 결론으로 향할 때 (XIX.10.b. ii), 의장은 표결에 부칠 것이며 개정안이 먼저 명시된다. 승인되면 개정안은 최초 제안과 통합될 것이고 더는 토의 없이 투표에 붙여진다.
- v. 발의자가 토론 중에 동의와 개정안에 대해 철회하고자 하면, 의장은 철회를 위한 회의의 합의점을 찾는다.
- c. 총대는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발언자를 방해할 수는 없다.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즉각적으로 토론 없이 투표로 표결에 붙인다. 참가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투표절차가 시작된다. 만약 부결되면 토론을 계속 진행한다. 그러나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토론을 종결하기 위한 동의안이 다시 발의될 수 있는데 먼저 발의한 총대는 발의할 수 없다.
- d. 거수나 의사표시 카드로 투표할 수 있다. 의장은 먼저 찬성자를 묻고, 다음엔 반대자, 그리고 마지막에 기권자를 묻는다. 의장은 투표결과를 즉시 발표한다.
- e.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의장이 의심이 생기거나 총대가 요청을 하는 경우, 거수와 표시카드의 개수를 세어 사안에 대한 투표를 즉시 확인한다. 의장은 투표자와 기권자를 개표를 통해 확인한다. 총대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재청이 되고 참석 총대의 다수가 동의하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한다. 의장은 무기명 비밀투표의 결과를 발표한다.
- f. 헌장과 규칙에서 더 많은 수의 투표수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기권자를 포함한 총대 참가자 중에 다수의 원칙으로 가부를 정한다. 동률의 경우 부결로 취급된다.
- g. 의장이 토론에 참석하고자 한다면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의장직을 다른 임원에게 양도한다.
- h. 의장은 다른 총대와 마찬가지로 투표권이 있으나 동물일 경우 결정 투표권이 없다.
- i. 이전에 승인이 난 안전에 대해 다수 의견을 낸 두 명의 총대는 실무위원회에 그 안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의결회의

에 제안을 상정할 것이고 안건의 재검토 여부를 의견으로 표출할 수 있다.
총대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 j. 소수 의견과 가관에 투표한 이들은 회의록, 보고서 또는 회의록에 자신들의 의견을 기록할 수 있다.

11. 언어

WCC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와 스페인어이다. 총무는 이 언어들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문서 제안서에 대해 번역문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참가자는 다른 언어로 발언할 수 있으나 위의 언어들 중 택일하여 통역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총무는 통역을 필요로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한다.

XX. 개정

이 규칙들에 대한 개정은 총회의 어느 회의나 중앙위원회 구성원의 어느 회의에 서도 제안될 수 있으며 규칙 XIX.9에 의거해서 결정된다. 만약 의견합의회의에서 투표로 회의결정절차를 변경하길 원한다면 규칙 XIX.10의 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 변경 제안은 참가자의 3분의 2의 찬성을 반드시 얻어야 한다. 규칙 I, VI, 그리고 XX의 개정은 총회의 승인이 있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안서는 총회가 열리기 적어도 24시간 전에 개정안에 대한 제안서가 서면으로 총회나 검토를 맡은 중앙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규칙 부록에서 발췌한 내용

규칙에 대한 부록은 WCC 중앙위원회의 결정들로 이루어지며, WCC의 사업을 진행하는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안내와 지침으로 구성된다. 이 발췌록에는 총회와 중앙위원회의 첫 번 회의에 도움이 되는 규정들이 포함된다.

의장과 부의장의 경력, 인선과 선출

- 1. 경력:** 의장과 부의장 임무에 맞는 인물을 찾아 인선하고 선출하는 과정에서 특정 경력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경력사항에서는 WCC를 위해 봉사하며 규칙 VI.3에 의거해 책임을 짊어질 능력과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탁월함, 실력,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의장 후보로 검토될 사람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폭넓은 경험이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복잡한 회의를 중재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WCC의 사업에 익숙하여 의견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에 능숙한 사람이 요구된다.

인선절차에서는 지도부 4명의 상호관계를 참작한다. 즉, 각 후보자와 총무, 그리고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인선된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보완성을 염두에 둔다.

인선절차에서는 역사적·교파별·지역적·문화적 상황들을 고려한다.

- 2. 인선절차:** 의장, 부의장(들)은 총회 기간 중이나 총회 직후에 열리는 조직구성 회의 때 (회의조직 규칙 VII) 새롭게 선출된 중앙위원회 구성원들 중에서 인선한다.

인선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구성원들이 지닌 배경을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첫째 회의와 두 번째 회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충분히 둔다.

중간 선거를 위한 중앙위원회 지침사항

1. 실행위원회를 위한 중간 선거는 규칙 VI.6에 의거한다.
2. 중앙위원회의 운영위원회와 인선위원회는 중간 선거를 위한 인선을 준비하되, 다음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 i) 실행위원회 위원이 대폭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존 실행위원 중 4분의 1미만이 직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 ii) 과거에 실행위원회로 봉사했던 사람들을 우선 교체대상으로 고려한다.
 - iii) 규칙 VII.3, 4, 5와 6의 규정들을 적용한다.
 - iv) 작은 회원 교회들을 대표하는 위원은 교체될 것이지만, 큰 회원 교회를 대표하는 위원은 연임된다는 가정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안 된다.
 - v)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한다.

WCC 회의 진행에 대한 지침

회의 진행 규칙(규칙 XIX)과 지침들은 WCC 총회 회의에 적용된다.

이 지침은 WCC의 모든 운영과 협의기구의 회의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합의제 절차

1998년 하라레 총회 이후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 총회가 개최되는 사이에 중앙위원회는 정교회의 WCC 참여관련 특별위원회(Special Commission on Orthodox Participation)의 권고를 받아들여 의회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서 의사 결정 합의제 모델을 채택하였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2005년 WCC 중앙위원회는 회의의 진행에 대한 규칙 개정안을 채택하였다.

개정된 규칙 XIX “회의 진행”을 포함한 WCC의 규칙들은 모든 WCC 기구들의 회의에서 기대되는 역할에 권위를 부여한다. 이 지침은 참가자가 합의제 절차 동안에 지닌 잠재력에 부응하도록 도움을 주고 또 WCC의 다양한 양태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보충자료이다.

2. 신학적 배경

WCC는 긴장, 대립, 갈등, 전쟁과 전쟁의 소문(마 24:6 참조)으로 얼룩진 세계에 일치를 증언할 소명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WCC는 프로그램과 결의안들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통해서도 증언하기를 원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갈 5:6) 신앙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규칙과 절차를 만든다. 이는 회원 교회와 교회의 대표자들이 존경을 가지고 서로 대우할 것이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전 13:1-6, 14:12 참조).

세계의 일부 교회들과 WCC의 일부 당국자들은 의사결정 시, “의회민주주의적” 접근방식보다는 합의에 의해 결정 짓는 것이 신약성경에 근거한 교회의 본질을 잘 반영하는 길임을 발견하였다. 고린도전서 12:12-27에서 바울은 신체 부분의 각각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몸 전체의 기능은 각 부분의 은사를 통해 통합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교회 조직이건 모든 구성원들의 능력, 역사, 경험, 결단과

영적 전통이 최적의 조건이 될 때 교회 기구는 최상으로 기능한다.

합의제 절차는 공식적인 투표절차보다 경직되지 않고 논의, 탐구, 질의응답과 기도, 묵상을 더 많이 반영한다. 적대적인 논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합의제 절차는 총회(위원회나 지도부 회의)가 그리스도 정신을 함께 추구하도록 돕는다. 논쟁에서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참가자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해”(엡 5:17)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도하며 서로를 경청하고 교회 전통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 의사결정 진행을 위한 모델이다. 그러나 이 목적은 단순히 다수의 의견을 찾기보다는 공동의 정신에 도달하려는 데 있다. 합의가 선포되면 모든 참가자는 신뢰를 가지고 다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령과 우리에게… 모두 옳을 줄 알았노니”(행 15:28).

3. 공동체 형성

합의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상호 간에 추구하려는 의지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마음을 열어야 한다. WCC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¹⁾라는 공동의 근거를 지닌 교회들의 교제이기에 총회 회의 시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의 풍부한 관계를 표현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회원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²⁾한다. 동료 참가자들이 회의에서 기여한 바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종종 매우 다른 관점을 지닌) 사안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신 은사와 견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모든 참가자는 존중받고 배려되어야 한다.

다른 많은 나라, 문화와 교회 전통에서 한데 모인 것이 총회이다.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형성하는 신의와 관계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식하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와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동체의 결속력은 강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찬양한다. 그리고 총회 기간 동안 함께 먹고, 일하고, 쉬고, 대화하고,

1) WCC 헌장 1조.

2) Ibid.

기도하는 것과 같은 비공식적인 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해 더 이해하며 성장할 것이다. 이로써 서로를 믿는 분위기는 점진적으로 고조될 것이다.

4. 소그룹

총회 참가자들은 회의 시간에 작은 “가정” 성경공부 그룹의 일원이 된다. 이는 전체를 구성하는 작은 단위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한다.

- 총회 기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지원하기 위해 결속력을 다진다.
- 관심과 신뢰 속에서 편안한 느낌을 서로 공유하고 기도 요청과 질의응답이 있을 수 있다.
- 신학적인 차이점들의 풍부함을 발견하고 우정관계가 생성된 이후에는 고정관념이 무의미함을 발견하게 된다.

본회의 중에 다른 유형의 작은 그룹이 있을 수 있다. 때로 그룹의 짧은 토론 시간이 회의에 도움이 된다. 테이블 그룹들(중앙위원회 회의 동안에 가능한)이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3-4명의 사람들이 본회의 동안 함께 가까이 앉아서 복잡한 사안들을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짧게 서로 대화를 나눈다. 토론 후 본회의가 재개되었을 때,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던 딜레마에 대해 참신한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고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도 한다.

5. 회의의 종류

각 회의를 시작할 때 의장은 회의가 전체회의인지 청문회인지 의결회의인지를 선언한다. 때로는 총회 내의 같은 자리에서 회의의 성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의장은 다음 회의로 넘어가기 위해 기도나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일시적인 중지 시간을 갖는다.

a) 전체회의

전체회의는 공식적·의례적 회의를 말한다. 어떠한 토론이나 결정은 하지 않고 중앙위원회나 실무위원회가 회의의 내용을 미리 결정한다.

b) 청문회

청문회에서는 보고서나 제안서에 대한 정보가 제출된다. 모든 참가자(총대 및 발언권은 있으나 의사결정권은 없는 사람들)는 의장이 인정할 때 청문회에 참여하기도 한다. 의장은 질문과 설명을 통해 광범위한 관점들이 제시되도록 참가자들을 격려한다. 그래서 총회에서 판별되기 전에 가능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자료들을 청문회에서 제공받는다.

시간이 충분하고 더 들어야 하는 것이 없을 때 참가자들은 토론과정에서 한 번 이상 발언할 기회를 갖는다. 참가자들은 발언권을 의장에게서 얻기 위해 서면으로 전달하거나 마이크 앞에 나와서 의장이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

의장은 말하려고 서 있는 사람이나 서면으로 제출한 사람들을 호명한다. 서면으로 요청한 사람들은 발언권을 위해 줄을 선 사람들에게 합류한다. 의장은 청문회의 마지막 시간을 발언권을 요구하며 이미 서면을 제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청문회에서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다만 만약 누군가가 의사진행발언이나 절차에 대해 제안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장소에서 특정 사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결회의로 변경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의결회의

의결회의에서는 총대만 발언권이 있다. (사안이 이전 청문회에서 발표된 경우 총대들은 의결회의에서 내용을 책임 있게 전달할 것이다.) 참가자들이 제안서를 점차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총회의 미래를 지향하고 회의의 공동의 정신을 추구하며 다른 참가자들이 내어놓은 견해에 대해 각 발언자는 주위를 기울일 것이다.

초기에 제기된 제안이 토론 중에 변경이 가능하기에 모든 단계에서 동의한 언어들 이 정확하게 적혀 있는지 모두가 살필 수 있도록 주의 집중이 필요하며 필요하면 통역할 시간을 준다. 이런 점에서 회의의 기록관³⁾은 의장을 돕는 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3) 실무위원회가 임명한 기록관은 의결회의의 논의를 따라서 새로운 합의 내용을(마지막 결정 내용 포함)을 기록하고 이를 파악하여 정리함으로써 의장을 돕는다. 또한 기록관은 의사결정이 일어나기 전에 최종 합의된 내용을 번역하고 총대들이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의장을 돕는다.

규칙에서는 적은 수의 안건의 경우에만 어떤 투표절차를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 명시한다. 이 경우 규칙에서는 그 안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⁴⁾ 드문 경우, 의결회의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회의는 공식적인 투표절차를 통해서 대립된 문제에 대해 긴급하게 결정할 수 있다.⁵⁾

6. 의장의 역할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총회 회의에서 의장의 역할에 영향을 받는다. 의장들은 퇴임하는 중앙위원회에 의해 총회 전에 지명된다. 필요할 경우, 실무위원회가 총회 중에 지명하기도 한다.⁶⁾ 각 의장은 합의제 절차에 대해 교육받고 WCC의 정신과 역할을 잘 이해해야 한다.

의장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개방적인 총회가 되도록 회의를 주재한다.
- 공동의 정신을 추구하는 회의가 되도록 격려한다.
-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협의회의 요구와 목적이 충족되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서 의장은 다음의 일을 한다.

- 의견이 교환되고 발전되도록 돕고, 참가자들의 신뢰와 통합을 격려한다.
- 모든 참가자를 존중하고 지원한다.
- 각 발언에 대한 총대들의 반응을 주시하고 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 대응한다.
- 총회가 합의된 결과에 집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때때로 토론을 요약한다.
- 제안자가 설명한 견해들이 창조적으로 개정되도록 장려한다.
- 상황에 따라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시간을 배정한다.
- 의결회의에서 만들어진 동의안을 검토하며, 회의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지을 때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4) 규칙 XIX.10.

5) 규칙 XIX.9e, 9.f.

6) 규칙 XIX.3.

의장은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그리고 의장은 합의된 결과가 나오도록 회의를 진행시키는 역할을 한다. 회의 마지막에 의장은 다음의 역할을 한다.

- 회의의 성격을 선언하면서 회의를 소집한다.
- 상황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회의 종류의 변경을 알린다. 이때 묵상기도나 찬양으로 앉은 자리에서 짧은 휴식을 제안한다.
- 서면이나 마이크 앞에서 발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어 각자의 견해를 피력하도록 격려한다.
- 회의가 진행 되는 동안 기록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해서 제안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정확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지 살핀다.
- (특정 안건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의장직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의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 공식적인 투표절차 안에서 자신의 교회 총대로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 결과가 동률일 경우, 결정투표를 할 수 없다.
- 회의를 폐회한다.

7. 의제 설정

a) 프로그램 관련 의제

총회는 프로그램지침위원회의 권면을 기반으로 WCC의 프로그램 활동을 위해서 광범위한 성과물들을 내어놓는다. 총회 이후 중앙위원회는 프로그램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프로그램 전략과 목표를 세워 성과물을 전달할 전략을 결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다음 총회로 모이기까지 프로그램위원회는 중앙위원회를 돕는다. 중앙위원회는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교회들의 견해와 희망사항을 경청하고, 위원들의 주요 사안들에 응답하며, 변경된 상황과 요구에 알맞게 프로그램 실시의 목표를 재고하고 재정비하여 발전시킨다. 실행위원회는 중앙위원회가 세운 전략적인 프로그램의 목적들이 실행되도록 보장한다.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추가 자문기구는 합의제 및 공동협력상설위원회이다 (WCC의 WCC 참여관련 특별위원회의 작업의 결과). 총회가 실무위원회에게 조언을 하는 동안, 이 자문기구는 총회 회의들 사이에 프로그램 기획과정에 대해 지도

하고 WCC 사업이 대략적인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관찰한다.

b) 사업관련 의제

중앙위원회가 총회 회의의 사업 의제를 (기획위원회를 통해) 총회의 1차 의결회의에 제안한다. 총대는 실무위원회를 거쳐 사업 의제를 제안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총회 기간 동안에 의제 변경안이 승인을 위해 본회의에 제기되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다음의 운영기관들은 특정 영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고 있으나 이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 **총회:** 회계보고와 퇴임하는 중앙위원회의 보고의 접수, 회장 선출, 중앙위원회 지도부 선출, 헌장 개정과 특정 규칙 변경에 대한 비준, 프로그램 정책이 포함된 전반적인 정책 결정.
-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 (의장, 부의장, 총무) 지도부 선출, 실행위원회 선출, 위원회와 자문그룹 임명, 기관의 정책 수립, 프로그램과 재정에 대한 전략적 기획,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 **실행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설정한 전략적 목적이 이행되도록 보장, 재정, 제도적 위험성, 자원 관리에 대한 감독,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감독, 직원 임명.

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지도부는 회의 전에 도움이 되는 문건과 함께 주석이 달린 안건을 확인하면서 총회나 중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업안 설정에 대해 감독한다. 보다 자세한 검토를 위해 본회의에서 소위원회로 회부하라고 명시되기 전에 일부 간단한 안건들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시작부터 소위원회의 안건으로 포함될 수 있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안건을 광범위하게 인식하도록 다른 참고자료나 소위원회의 주석이 달린 의제가 발송된다. 특정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특정 안건에 대해 의견이나 견해를 갖고 있을 경우 본회의에서 의사결정을 위해 안건이 다시 회부되기 전에 소위원회와 의견을 나눌 수 있다.

운영기관에 속한 각 구성원들이 총회의 사업 안건을 소개하는 방법은 “8. 총대들과 참가자들의 역할”의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에서 다룬다.

8. 총대들과 참가자들의 역할

a) 참여하는 방법

참가자가 본회의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참여의사를 의장에게 밝히고 호명될 때까지 기다린다. 의장이 허락할 때 마이크 앞에 서서 기다리거나 서면 요청(이름, 교회, 국적, 회의의 역할)을 안내자에게 전달하고 기다린다.

발언권이 주어지면 의장에게 모든 발언을 한다. 자신의 이름, 교회, 국적, 사용언어를 밝히고 (청문회인 경우) 총대인지 다른 참가자인지를 알린다. 협의회의 공식언어를 사용할 경우 동시통역이 가능하다. 참가자가 공식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사용할 경우, 통역자를 스스로 찾아야 할 것이다.

회의에서 가능한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언은 3분으로 제한된다. 발언자들은 정확히 요점을 짚어서 최대한 간결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견을 분명히 설명하도록 미리 준비할 것이다.

b)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모든 참가자는 실무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회의 이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안건 제안의 적합성과 안건 채택의 우선순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며 연설 방식이나 제시된 안건에 대한 추가도 가능하다.⁷⁾

청문회 동안에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절차 제안은 논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제기될 수 있다(합의제 절차는 청문회를 위한 것).

의결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총대는,

-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 투표 결과에 의문이 생길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개표는 즉시 진행된다.
- 진행이 결정되기 전에 재청이 있을 후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의장의 판단에 항소할 수 있다. 의장은 총대들이 의장의 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토론 없이 회의에서 질문할 것이다. 이후 합의나 투표절차로 결정을 짓게 된다(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7) 규칙 XIX.6.a, 6.c.

청문회나 의결회의에서 만약 총대가 토론하는 사안이 자신이 속한 교회의 교회론에 관한 자기 이해⁸⁾에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될 경우, 총회에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절차가 있다.⁹⁾

c) 경청하고 응답하는 방법(참가자의 윤리)

각 발언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두가 경청하며 합의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가자들은 앞서 있었던 견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사고를 최대한으로 발휘한다. 그리고 총회가 분별력 있는 회의가 되어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애쓴다.

모든 참여는 통합과 신념으로 이뤄질 것이며, 모든 발언자들은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존중받고 대우받아야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든지 간에 기독교교회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인식하는 참가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은 WCC 회의의 성과물이다.

일반적으로 합의된 결과물은 청문회나 의결회의의 진행 중에 제안에 대한 논의가 발전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므로 회의에서 의견이 표결될 때(또는 공식적인 투표가 있을 때) 대리인 투표나 부재자 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오로지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앞으로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다.

특별보고서나 사안에 대한 검토를 맡은 자가 해당 소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을 때 회의 결과물이나 소수의견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 반대의견들이 발언될 수 있는 곳은 소위원회 포럼이다. 이곳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총대는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 단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충분히 소개하는 것은 전적으로 총대의 책임이다.

d) 차후에 보고하는 방식(총회 결정에 대한 지지)

WCC의 참석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참가자는 자신의 경험의 소산을 모 교회에 돌아가서 알릴 책임이 있다. 참가자 자신이 선호하는 의견에 도달하지 않은

8) 교회론에 관한 자기 이해란 신앙과 교리, 그리고 윤리에 관한 것이다.

9) 12. 안전장차: 규칙 XIX.6.d.

사안이라도 전달해야 한다. 이는 총회의 결의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

교회일치운동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만남은 다음 회의를 기대하게 하며, 참가자들의 모 교회생활을 다채롭게 만들 것이다!

9. 의사결정 방법—합의¹⁰⁾

a) 합의에 대한 이해

합의는 존중하며 배려하려는 진정한 대화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기도를 통해 공식적인 투표 없이 회의의 공동 정신을 찾는 과정이다.

의견 합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언된다.

- 결정을 내릴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의 결과에 대한 찬성 (만장일치) 또는
- 대다수가 회의 결과에 동의하며, 소수 의견자들이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나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회의 결과를 수용하여, 그 회의 결과를 회의의 합의된 의견으로 기록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회의 결과물에 대한 동의는 제안서에 적힌 바를 단순히 승인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이것은 합의를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합의는 제안서와는 다른 결과에 도달되기도 한다. 제안을 거부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 추가 작업을 언급할 가능성, 이 제안에 대해 기독교교회들이 아마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확인할 가능성 등이 포함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합의제 절차에서 공식적인 수정절차는 없다. 발언자들은 토의 진행 중에 제안된 제안서에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가 점차적으로 분명해질 때 변경 사항은 회의에서 동의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합의제 절차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타인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대의원들이 공통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상호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

b) 의사표시 카드

큰 회의에서는 총대들이 많은 발표 내용과 각 발언자의 견해에 대해 일일이 반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표시 카드가 청문회와 의결회의에서 사

10) 부록 A: 합의제 절차 순서도 참조.

용된다. 각 총대들은 청색과 주황색 카드를 공급받는다.¹¹⁾ 발언자가 의견을 말한 후, 의장은 총대들이 가슴 높이로 든 의사표시 카드를 통해 의견에 대해 지지하는 수를 파악한다. 주황색은 의견에 대해 찬밀감을 나타내는 색깔로서 찬성이나 채택을 표시하며, 청색은 냉담함을 보이는 색깔로서 반대를 의미한다. 각각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난 회의에 대한 보고를 나타냄으로써 의장은 더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고 채택된 결과에 대해 더 진행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핀다.

총대들도 의장에게 의사표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발언자가 반복해서 말하고 논의와 무관한 말을 할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주장한 의견이라면 총대들은 다음으로 넘어가길 원할 것이다. 이 경우에 총대는 의사표시 카드 두 개를 가슴 앞에 교차시켜 길어진 논쟁이 더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의장에게 무언으로 표시할 수 있다. 발언 중단을 표시하는 카드가 많은 경우에 의장은 발언자에게 결론 맺기를 권고하고 다음 참여를 위해 다른 견해가 있는 총대에게 발언권을 넘긴다. 그리고 의장은 회의가 의사결정과정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핀다.

c) 소그룹 대화

대화 그룹을 작게 나누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주변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심각한 교착상태에 있는 의견이 자주 해결책을 찾기도 하고, 본회의가 다시 시작될 때 이런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생긴 새로운 통찰력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d) 합의를 위한 확인

토의가 진행됨에 따라, 회의가 즉시 확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런 다음, 제안의 더 다양한 측면에 대해 계속 합의를 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기본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 발표할 수 있으며 “이제 여기서 이러한 견해에 대해 합의를 할까요?”라는 질문으로 회의 상황을 확인한다. 총대들은 의사표시 카드를 이용할 것이며 의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 일단 동의안을 기록하고, 지속적인 토의는 더 논쟁적인 내용에 집중하자고 모두가 동의(주황색 카드)하는지

11) 색맹인 사람들도 주황색과 청색은 구별이 가능하다.

- 아직도 엇갈린 반응들이 있어서 전체 사안에 대한 토론을 분명하게 더 요구 (청색카드)하는지
- 1명이나 2명이 이 시점(대부분 주황색 카드를 들고 1-2명만 청색을 들고)에서 동의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그들이 자신들의 관점을 피력하길 바라는지, 그들에게 최선의 내용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도달한 입장을 받아들이고, 합의된 결과로 기록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확인한다.

e)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경우

동의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시도를 하였으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회의가 다양한 결과로 양극화될 때, 회의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의장의 인도 하에)은 다음과 같다.

- 연구 그룹을 선발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도록 동의를 구한다(그룹의 멤버들로 각자 확고한 의견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더 자세한 작업을 위해 다른 기구나 회원 교회에서 사안을 문의하도록 동의를 구하며 이번 총회에서는 더는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
- 기독교교회들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확신하도록 동의를 구한다.
- 이 사안은 더는 재고되지 않도록 동의를 구한다.

f)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특정 질문이 필요하다

- “현재 사안에 대해 오늘 반드시 결정을 지을까요?”라는 질문에 반대의견이 나오면, 안건은 다음 회의(다음 날, 다음 주 또는 다른 시간으로)로 연기된다. 위원회가 내놓은 더 흥미로운 안건과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동의안에 대한 비공식적인 토론은 다음 회의에서 다른 종류의 동의안을 종종 이끌어낼 것이다. 만약 의장의 질문에 찬성한다면(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회의는 현재 제안에 대한 승인 또는 비승인을 하는 것에서부터 신속하게 긴급 결정을 요청하는 회의로 다른 방식을 찾아서 변경되어야 한다. 때때로, 원래 질문에 대해 합의를 위한 회의가 진행될 동안 임시 결정들이 돌출될 수도 있다.
- “일부 구성원(또는 회원 교회들)이 지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안이 이행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에 반대의견이 나오면,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가 작

업을 위해 연기된다. 만약 찬성이면 개인들, 회원 교회들, 협의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반대의견이 있더라도 서명 없이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허락된다. 이는 때로 “양보하기”를 의미한다. 회원 교회나 위원회와 WCC의 지도부는 사회적·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협의회가 한 가지 견해로 모두가 결단하지 않았다고 발언하는 것이 때때로 타당할 것이다.

- “우리의 질문이 타당합니까?” 제시된 사안에 대해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회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다른 질문이 합의를 위해 제시된다. 때때로 “우리가 함께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도움이 된다. 회의는 특정한 선언으로 한 가지 사고를 정하는 것에 있지 않고 대화의 열매와 다양한 관점을 서술하는 것에 더 큰 의의를 둔다.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결론을 따라서 명시된 명확한 표현은 토론의 힘 있는 산물이 될 수 있다.

g) 반드시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총무나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들)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결정을 내리기를 원하는데 회의는 아직도 합의 사항을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 실무위원회가 제안을 다시 만들어서 상정할 수 있는 규칙이 있다.¹²⁾ 다시 적힌 제안이 다음 회의에 붙여질 때, 이 회의는 반드시 결정을 내는 것에 동의하는지의 여부와 다시 입안된 제안을 합의제에 따른 것으로 회의를 진행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합의제 절차에 의해) 책임이 있다. 만약 즉각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결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나뉠 경우, 회의는 공식적인 투표절차에 의해 안건을 결정하되 적어도 85%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 의사결정-공식적인 투표절차

a) 합의 결정의 예외

WCC의 모든 결정은 합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¹³⁾

12) 규칙 XIX.9.e.

13) 규칙 XIX.10.a.

- 헌장 개정
- 선거
- 총회 장소 투표
- 연간 회계, 재정 및 감사 보고서 및 감사 임명에 대한 채택

위 각각의 안건은 청문회에서 먼저 발의되며, 질문과 토론을 합의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 안건이 결정되는 의결회의를 시작할 때 의장은 투표의 방법을 거수로 할지 또는 카드로 할지 발표한다. 공식적인 투표를 위한 간소화된 규칙은 다음과 같은 결정 사항에 적용된다.¹⁴⁾

- 모든 발의는 반드시 총대의 동의와 재청으로 진행된다.
- 제안자는 첫 번째 발언권이 있다.
-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재청이 되면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누구도 한 번 이상의 발언권은 없으며 제안자는 투표가 있기 바로 전에 반대 의견에 대해 대답할 수 있다.
- 발의의 철회는 회의에서 허락한 후 가능하다.
- 의장이 먼저 하기 전에 어느 총대이건 토론의 종단을 요구할 수 있다.
- 거수나 의사표시 카드로 투표한다. 찬성, 반대, 기권 순으로 호명된다.
- 소수표나 기권표에 투표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회의록, 회의보고서와 회의 녹음에 기록할 수 있다.
- 이전 회의의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
- 순서와 절차에 대한 제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승인은 참가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

b) 합의 결정에서 공식적인 투표로의 변경

드물지만 공식적인 투표가 필요할 때가 있다. 즉각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이다. 합의과정에서 공식적인 투표절차로의 변경은 의장이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를 선언함으로써 가능하며, 투표는 참석 총대

14) 규칙 XIX.10 부록 B: 공식 투표절차를 위한 순서도.

85%의 동의가 필요하다.¹⁵⁾

11. 회의절차 제안과 의사진행발언

a) 회의절차 제안

청문회나 의결회의의 모든 총대와 청문회의 참가자는 보류 중인 안전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회의에서 고려대상이 되어 즉각적으로 결정이 요청될 때 회의절차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총대는 다른 발언자에 의해 방해받지 않지만 의장이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b)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은 청문회나 의결회의에서 다른 발언자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합니다.”라는 말을 의장에게 할 수 있다. 의장은 그 사람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한다. 그리고 다음 사항을 (토론 없이) 진행시킨다.

-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다.
- 총회가 그 문제를 결정하도록 요청한다.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누군가의 발언에 대해 다음 발언자가 심하게 오해한 경우 개인적인 설명을 허용하는 규칙이 현재 시행 중인 절차에 부합하는지를 질문하는 경우
- 발언이 공격적이거나 경멸적이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 논의 중인 사안을 결정하기 전에 비공개 회의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비공개 회의의 경우 총대를 제외한 모두 이들은 퇴장해야 한다).

c) 만약 의사진행발언이나 회의절차 제안에 대한 의장의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자는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 총대들이 그 문제를 합의 방식이나 3분의 2 다수결 투표방식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장은 적용되는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응답할 수 있다.

15) 규칙 XIX.19.f.

12. 안전장치

회의에서 공동된 정신을 찾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어떤 총대나 회원 교회도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을 강요받지 않는다. 모든 의견은 가치가 있다. 주의 깊은 숙고와 경청 이후에 소수 의견이 회의의 공동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라면 다음의 조항들을 통해 재확인된다.

a) 무엇에 관한 합의 사항인가?

합의된 결과는 회원 교회들이 특정 이슈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적절히 견지했고, 따라서 합의문은 다른 관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도출될 수 있다.

b) 합의에 대한 정의—반드시 만장일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견 합의는 만장일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다수가 동의한 상태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몇몇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했음을 나타내고 그들의 교회가 사안에 대한 동의안 결과에 대해 타협하지는 않았으나 토론은 전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에 만족하는 상황임을 의미한다.

c) 소수 의견에 대한 기록

의견을 일치시켜 합의 사항을 도출하려고 노력을 한 후, 사안을 즉각적으로 결말지어야 할지라도 합의 결정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총대들이 동의하고 몇몇의 다른 의견이 기록되는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다수의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며, 소수 의견자는 회의록이나 회의의 기록물에 반대 의견을 적어 놓을 권리를 갖고 있다.

d) 교회론에 관한 자기 이해¹⁶⁾

제기된 안건이 총대가 소속된 교회의 교회론에 관한 자기 이해에 상반되는 것이라면 총대는 이것이 결정사항으로 제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해당 총대,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동일한 교회나 교파의 다른 총대와 상의하여 실무위원회의 조언을 구할 수 있다. 만약 문제가 총대 교회의 교회론에 관한 자기 이해에 상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을 의결회의에서는 제외하고 청문회에서 고려할 수 있음을 발표한다. 결정에 대한 자료와 회의록은 교회에서 연구하

16) 규칙 XIX,6,d.

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회원 교회들에 발송한다.

e) 총회 이후의 회원 교회의 이의 제기

총회가 종료된 후 회원 교회가 총회의 결정에 대해 지지할 수 없는 부분을 발견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¹⁷⁾

13. 언어

일반적으로 총회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와 스페인어다. 참가자들은 다른 언어로 발언할 수 있으나 위의 5개 언어 중 택일하여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실무위원회는 이러한 참가자들이 최 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 선거절차

a) 총회의 위원회들

총회의 1차 의결회의에서 실무위원회는 총회의 모든 위원회(인선위원회 포함)의 구성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명단을 제출한다. 위원회는 즉시 임무를 시행한다.

b) 중앙위원회

- 총회 전에 회원 교회들은 총회 총대들 중에서 중앙위원회의 후보자들을 추천한다. 각 지역에서 교회들이 함께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선위원회는 한 교회 이상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더 비중 있게 다룬다.
- 총회 기간 동안 지역별 회의를 통해 특정 후보에 관해 토론할 수 있다.
- 인선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들의 임무에 대한 개인적인 자격
 - 타당하고 적절한 교파 배려상의 대표성
 - 지역과 문화에 관한 타당하고 적절한 대표성
 - WCC의 주요 관심에 대한 타당하고 적절한 대표성
 - 후보자가 속한 교회의 임명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 가능성
 - 한 회원 교회로부터 7명 이상은 불허함

17) 규칙 XIX.5.e.

- 평신도와 남자, 여자, 청년의 적절한 균형
- 총회 초기에 인선위원회는 총회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중앙위원회의 후보자 (이름 없이)의 경력사항에 대해 첫 번째 제안서를 제출한다.
- 그 다음 후보자에 대한 토론이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청문회에서 후보 자들에 대한 검토가 첫 번째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제안된 이름에 대한 변경 안은 검토하지 않는다.
- 총대들은 본회의 밖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변경안을 인선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안은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적어도 3개 회원 교회들로부터 총대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안 후보자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대안으로만 제시되어야 한다. 대안으로 제시된 후보자는 기존 후보자와 동일한 인구학적 내용(종교, 성별, 나이 등)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안 후보자는 교회협의의가 추구하는 균형을 개선해야 한다.
- 2차 후보자 명단을 의결회의에 제시할 때, 인선위원회는 변경된 이름에 대한 제안서를 제시하고 변경사항을 보고한다. 만약 총회가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회의 이외에 추가 시간을 주어 제안을 설명하고 변경 된 명단은 다음 의결회의에 제시하여 선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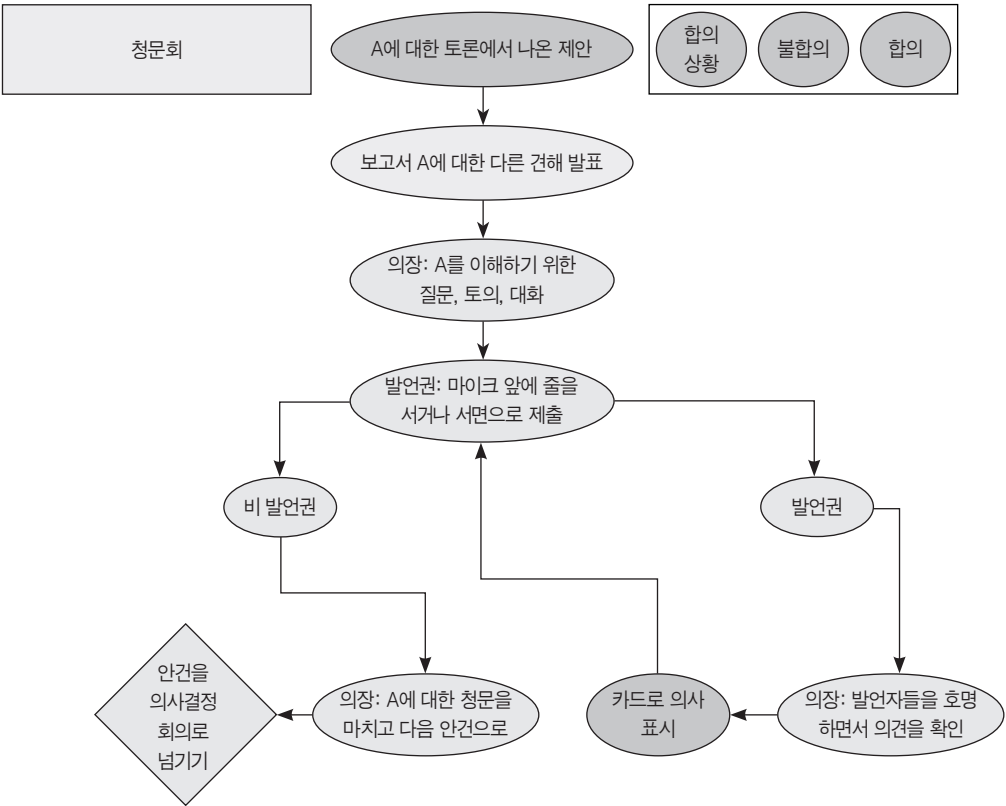
c) 회장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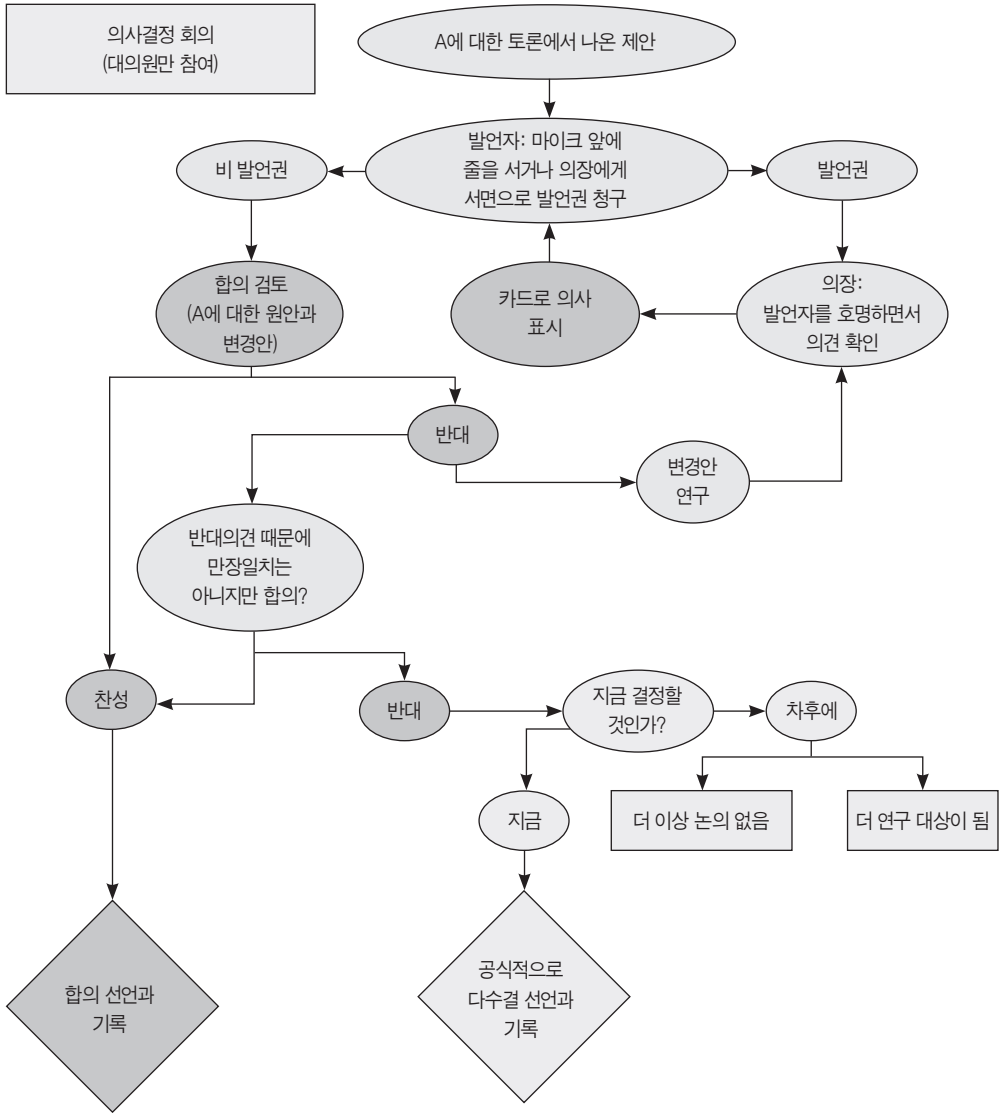
- 총회 전에 직원들은 8명의 WCC 회장단의 후보자를 준비할 때, 인선위원회가 검토할 적절한 명단에 대해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와 총회 전 대륙별 회의로 부터 조언을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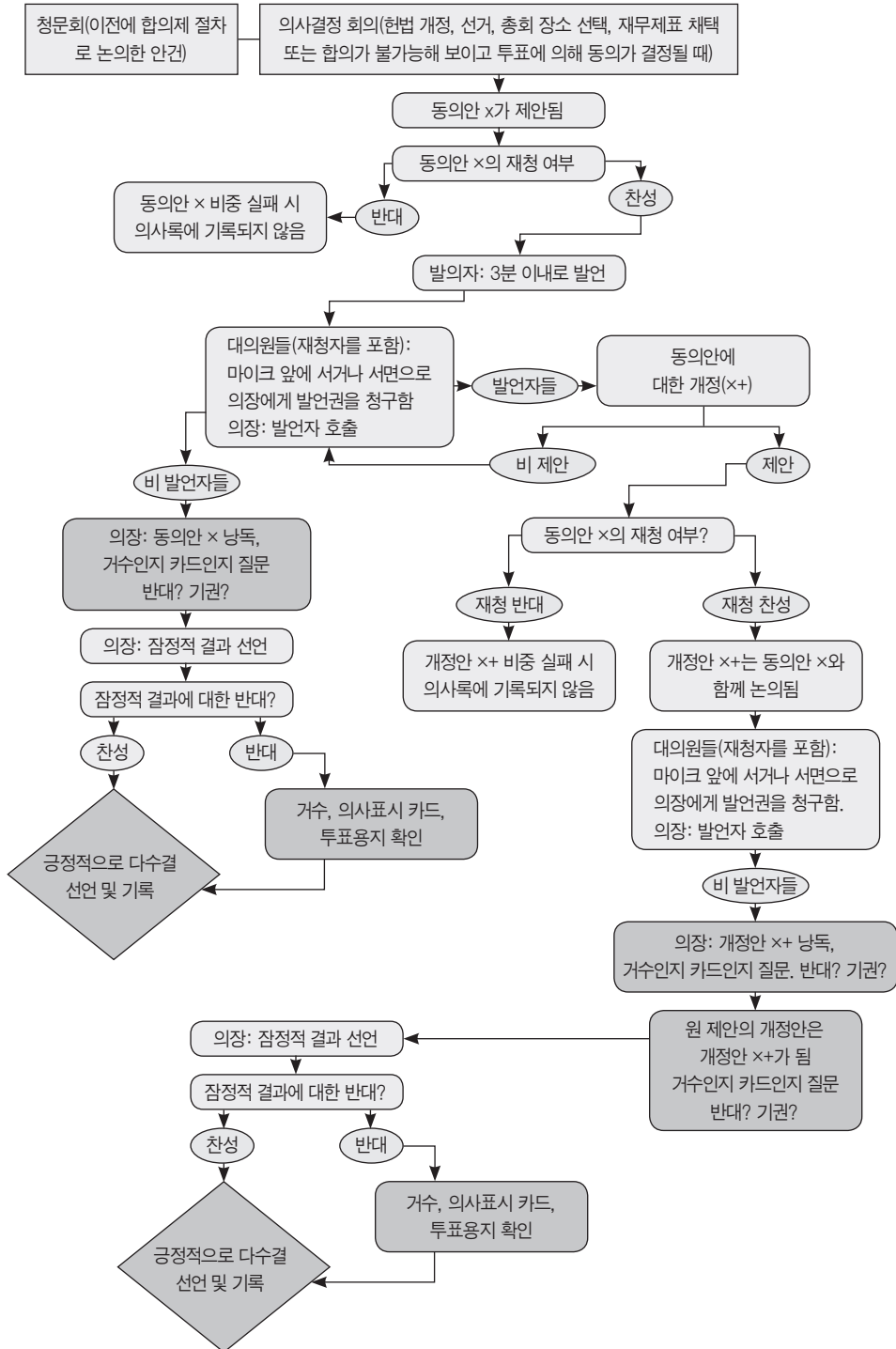
d) 투표

- 선거는 공식적인 투표절차로 결정된다.

합의제 절차를 위한 순서도







그리스도인의 연대가 깨어질 때: 성희롱에 대한 목회적·교육적 대응

기독교 공동체와 연대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사 32:17).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확신한다. 에큐메니칼 모임은 환영과 환대의 분위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온전하게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WCC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괴롭힘에 도전하려는 연대와 상호 관심사의 가치에 기초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힘쓴다. WCC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모든 참가자에게 차별이 없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고 노력한다. 인간의 죄 때문에 공동체 안의 신뢰가 깨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위해,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요청하신다. 곧, 우리가 각 사람에게 관심과 존경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은 공동체의 힘을 증가시키며,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경축해야 할 것이다. 서로 간의 차이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우리의 존재방식과 행동방식을 편안하게 여길 것이라고 추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때로 나이, 성, 문화, 영성, 종교, 능력, 언어, 신분제도, 민족, 계급의 차이가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에큐메니칼한 세상에서 다차원적이고, 다문화적인 상호교류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각 개인이 주의 깊고 진지하게 행동하도록 촉구할 것인가? 한 사람에게 정상적인 다정함과 사교능력으로 간주되는 것이 여러 문화가 혼합된 집단이나, 심지어 같은 문화나 배경을 가진 개인들 간에도 오

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큐메니칼 환경에서 서로에 대해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해 느끼는 우정과 따뜻함을 적극적으로 비위협적인 방식으로 적절하게 표현하는 일은 에큐메니칼 공동체가 직면한 과제이다.

폭력과 힘

괴롭힘은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한 힘의 관계가 용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다. 성희롱에는 흔히 성, 나이, 인종, 계급에 근거한 차별이 포함되며, 성희롱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나 굴욕감을 유발한다. 성희롱은 힘의 지배와 남용으로 인해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 대할 때 발생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존엄을 실추시키고 파괴한다. 성희롱은 여성이 남성에게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것이다. 따라서 괴롭힘은 고립된 사건이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더 폭넓은 힘의 패턴과 역동에서 파생하는 문제이다. 괴롭힘은 동성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때로 여성이 남성을 괴롭힐 때도 있다.

폭력 극복을 위한 10년 운동: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여성이 경험하는 제도적·개인적인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을 세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성희롱은 가장 일반적인 폭력 형태이다. 교회 내와 에큐메니칼 회의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때문에 교회와 에큐메니칼 운동은 책임 있는 조치와 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많은 교회, 기구, 정부는 비인간적인 폭력과 성희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 안내지침의 목적은 우리 가운데 있는 깨어진 상처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중시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적극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고 또 인종, 계급, 성, 사회적 지위, 지도적 위치, 나이에 근거하여 특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이 주장하는 정의와 공동체 정신을 숙고하도록 권고한다. 이 지침은 또한 개인이 자신의 존엄을 주장하고 공동체의 갱신에 기여하도록 촉구한다. 우리 각자는 예배, 일, 모임에

서 화해하고 존중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모든 사람의 온전한 인간성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성희롱과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적 괴롭힘은 정도에 따라 거리에서 휘파람을 불거나 음란한 전화를 하는 것에서부터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성폭력에는 강간, 동의 없는 성행위,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이 포함된다. 성적인 의미가 담긴 몇몇 행동은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은 경우, 특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희롱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암시적인 표정이나 언사, 성적인 내용을 담은 농담을 말하거나 찹찹거림, 성적인 편지, 전화 또는 자료, 강요된 접촉이나 밀착, 성적인 의도가 함축된 테이트나 활동을 같이 하자는 압박, 성적인 호의에 대한 대가로 영향력을 사용하겠다는 제안 등이 성희롱에 해당된다. 원하지 않는 행동을 경험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중요하다. 이것은 각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결론적으로, 성적 괴롭힘은 어떤 사람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성희롱을 예방하고 처리하는 몇 가지 방법

- 자신과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경계선을 명확히 밝힌다. 당신은 타인과 어느 정도의 밀접한 관계가 편안하거나 적절하다고 느끼는가?
- 부적절한 몸짓이나 접촉을 거부한다.
- 타인의 개인적 경계선을 존중한다. 만일 확실히 모를 경우, 먼저 물어보라(가령, 당신을 껴안아도 괜찮습니까?).
- 만일 괴롭힘을 당할 경우, 그런 행동이 불쾌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표정, 말, 제스처를 사용하여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
- 괴롭힘은 결코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괴롭힘은 원치 않는 주의나 행동이다. 괴롭힘은 서로 동의한 행동이 아니다.
- 만일 괴롭힘이 지속될 경우, 당신이 공공장소에 있다면, 일반 사람들이 괴롭히는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큰 소리를 질러서 항의표시를 한다.
-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당신의 직관과 감정을 신뢰하라.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때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합리화하거나 부인하려고 노력한다.

-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들과 괴롭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괴롭히는 사람의 이름과 불쾌한 행동의 종류에 대해 알려준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이 중요하다. 침묵은 더 많은 괴롭힘을 유발할 뿐이다.
- 법적 또는 다른 추가 조치가 필요한 심각한 경우, 사건을 말이나 서면으로 기록해두면 도움이 된다.
- 만일 어떤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거나 들었다면, 침묵해서는 안 된다. 당신은 괴롭힘을 당한 사람에게 다가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괴롭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부적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말해야 한다. 만일 상황이 심각한 경우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 만일 당신이 괴롭힘을 당했다면, 연대관리팀(solidarity care team)이 상황과 당신의 감정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연대관리팀은 당신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적절한 후속조치를 통해 당신을 지원할 수 있다(가령,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지역 센터나 현지 교회를 통한 지원 단체).

결론

교회와 WCC는 폭력과 불의가 없고 진정으로 포용적인 공동체를 발전시키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성희롱과 모든 형태의 폭력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적절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 연대관리팀의 위치와 구성원은 총회에서 공지될 것이다.

총회 문서들

하나님의 선물과 일치로의 부르심—그리고 우리의 헌신

1. 창조세계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창조세계의 다양성 안에 깃든 그 생명력을 찬미하며, 창조세계의 선함(창 1장)으로 인해 감사드린다. 따라서 변혁시키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해하게 된 온 창조세계가 일치와 평화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엡 1장).

우리의 경험

2. 오늘날, 온 창조세계, 즉 이 세상과 거기 거하는 사람들은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희망과 극도의 절망, 그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인간 문화의 다채로움으로 인해, 지식과 발견으로 말미암은 경이로움으로 인해, 공동체들이 재건되고 적대적 관계에 있던 자들이 화해함으로 인해, 그리고 사람들이 치유받고 배를 채울 수 있게 됨으로 인해 감사드린다. 우리는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면서 기쁨을 느낀다. 이 모든 것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징조이다.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고 있는 자리가 있음에 또한 애통함을 느낀다. 사회적·경제적 불의, 가난과 기근, 탐욕과 전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황폐하게 되었다. 폭력과 테러리즘과 전쟁, 특히 핵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HIV/AIDS와 그 밖의 다른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며, 고향에서 쫓겨나고 땅을 박탈당하기도 한다. 술한 여성들이 폭력과 불평등 및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남성들 중에서도 학대당하는 이들이 있다. 사회 주변부로 쫓겨나고 배제된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문화로부터 소외되고 이 땅과 단절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다. 창조세계는 오용되어 왔으며, 따라서 우리는 생명의 균형에 대한 위협과 점증하는 생태적 위기, 그리고 기후변화로 말미암은 결과에 직면해 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우

리와 이웃, 우리와 창조세계와의 관계가 뒤틀려 버렸다는 징조이며,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3.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축제와 슬픔 사이에서 그 비슷한 긴장을 경험하고 있다. 세계 도처의 기독교 공동체가 새롭고도 전에 없던 다양성을 갖추며 성장해 나감에 있어 활력 넘치는 생명력과 창조적인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다. 교회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라 부르셨음에 대한 자각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교회가 고통과 계속되는 박해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는 곳에서,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봉사하며 연대함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또 하나의 표지라 할 수 있다. 그간 에큐메니칼 운동은 일치가 중대될 수 있는 모판을 만들어줌으로써 새로운 사임을 장려해 왔다. 어떤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속한 현지 공동체 안에서 또 지역적 차원에서 새로이 합의된 약속 및 보다 긴밀한 협조 안에서 더불어 일하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서로 나누고 배움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위해, 그리고 아름답지만 한편 상처받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온전성을 보존하기 위해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있다. 이렇게 심화되는 관계들은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이해의 지평을 넓혀준다.

4. 그러나 다양성이 분열로 변질되고, 우리가 서로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시종일관 인지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상황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슬프게 생각한다. 우리는 성찬의 교제 식탁 주위에 다 함께 모일 수도 없는 형편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문제가 남아 있는가 하면, 새로운 문제가 날카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키며 교회 안과 교회 사이에서 새로운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도 쉽사리 각자의 전통과 공동체 안으로 움츠러 들어감으로써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선물에 의해 도전받지도, 풍성해지지도 못하고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이라는 창조적이고도 새로운 삶 안에 일치에의 열정, 혹은 다른 이들과의 친교에 대한 갈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로 인해 우리는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심지어 갈등마저 보다 쉽게 묵인하게 된다.

사람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여정에서 조금씩 지치고 실망함에 따라 우리는 주춤하고 있다.

5. 우리는 인간의 약점을 지닌 자들로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지는 않는다. 사람들을 배제시키거나 주변부화시키고, 정의를 추구하기를 거부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꺼리고, 일치를 추구하지 않으며, 창조세계를 착취함으로써 생명을 확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사하고 계신 선물을 거부하는 셈이다.

우리가 공유하는 성경적 비전

6.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을 때, 창조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자리, 즉 교회를 이해하는 눈이 열린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 및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생명을 돌보는 책임을 부여받았다(창 1:27-28).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개함에 있어 결정적인 하나의 순간을 나타내고 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고, 가난한 자들과 버려진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모든 민족의 빛이 되라고 불렀다(미 6:8, 사 49:6).

7.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통해 분리와 증오의 장벽을 허무시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으며, 자신의 몸 안에서 참다운 일치와 화해를 이루셨다(엡 1:9-10, 2:14-16).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고,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셨으며,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마 9:35-36, 눅 4:14-24).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의해, 그리고 성령의 힘을 통해, 예수께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를 밝히 드러내셨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요일 1:1-3). 예수께서는 세상을 위해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다(요 17:20-24). 예수께서는 일치와 화해라는 자신의 메시지와 사역을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에 위임하심으로써, 맡은 바 그분의 사명이 계속 이어

지도록 교회를 부르셨다(고후 5:18-20).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시작부터 더불어 살았으며, 함께 빵을 떼고 기도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면서, 복음을 선포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불화나 분열과 맞서 싸우면서 사도적 가르침과 친교에 전념했다(행 2:42, 행 15장).

8.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하나 되게 하시고, 화해시키시며, 세상에 대해 자신을 희생한 그 사랑을 체현하고 있다. 친히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삶, 그 중심에는 십자가도 영원하며 부활도 영원하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의 실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창조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린다(롬 8:19-21).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계시며,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시며, 우리의 허다한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의 선물을 주신다.

오늘날 일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9. 에큐메니칼의 여정에 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온 창조세계의 일치를 위해 섬기게 하신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에 이르렀다. 교회의 소명은 다음과 같은데, 그것은 새 창조의 전조(前兆)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을 전 세계에 알리는 예언자적 표지가 되는 것이며,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봉사자가 되는 것이다.

10. 새 창조의 전조로서의 교회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은혜가 넘치는 선물을 주신다. 그것은 성경에 기초한 신앙(faith)이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세례(baptism)이며, 하나님과 우리 서로 간의 교제를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주는 것이자, 사귄을 증대시켜 이를 통해 우리를 선교로 파송하게 하는 성찬(Eucharist)이고, 모든 믿는 자들의 은사를 찾아내 키우고 또한 교회의 선교를 이끄는 사도적 목회(apostolic ministry)이다. 회합적이고 협의체적 모임 역시 친교를 가능하게 하는 선물이다. 성령의 인도 아래서 이 모임은 서로의 필요와 세상의 필요를 채우면서 무엇을 합의할 것인지 분별하고, 함께 가르치며, 희생적으로 살 수 있게 한다. 교회의 일치는 확일성과 다르다.

다양성 역시 창조적이고 활력을 불어넣는 선물이다. 그러나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서로 이방인이나 적이 되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하나 되게 하시는 실체에 해를 가해도 좋을 만큼 다양성이 대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¹⁾

11. 예언자적 표지로서의 교회에 주어진 소명은 하나님께서 온 창조세계에 뜻하고 계시는 생명을 공표하는 것이다. 신앙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교회의 분열이 남아 있는 한, 우리는 좀처럼 신뢰할 수 있는 표지라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민족성, 인종, 성, 장애, 권력, 사회적 지위, 그리고 신분에 기반한 분열이나 주변부화 역시 일치에 대한 교회의 증언을 무색케 한다. 신뢰할 수 있는 표지가 되려면,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내, 겸손, 관대함, 상대방에 대한 주의 깊은 경청, 상호 책임, 포용성, 그리고 “너는 내게 쓸 데가 없다”(고전 12:21)라고 말하지 않고 기꺼이 함께하려는 의지 등의 자질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정의를 세우고, 평화 속에 함께 살며, 저항과 수고를 침묵시키는 안이한 평화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의와 더불어 도래하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싸우는 공동체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화해되고 새로워질 때라야 교회는 모든 사람과 온 창조세계가 화해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진정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참된 표지이자 신비인 때는 다름 아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때론 고난받으며 약하고 가난한 바로 그때이다.²⁾

12. 봉사자로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기록하고 생명을 긍정하는 계획을 나타내 보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 본성은 선교이며,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안에서 온 인류와 온 창조

1) 우리는 교회들이 신앙과 직제위원회의 문서, <교회: 공동의 비전을 향하여(The Church: Towards a Common Vision)>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 살도록 요청하시는 가시적 일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길 기도한다.

2) 우리는 WCC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민족성, 인종, 성, 권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분열에 맞서 싸우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에 고마움을 표한다.

세계에 주시려고 작정한 교제라는 선물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보 내심을 받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섬기고 전도하며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세계에 제공하는 일에 참여한다.³⁾ 성령의 권능 안에서 교회는 다른 상황과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 속에서도 하나의 동일한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따라서 가능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 창조세계의 안녕을 위해 협력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13. 교회의 일치, 인간 공동체의 일치, 그리고 온 창조세계의 일치는 하나이다. 그것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교회의 일치는 정의와 평화의 삶을 요구하는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의 헌신

14.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의 자리를 확신하는 바이며, 우리의 분열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거가 약화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원하시는 그 일치에 대한 증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을 비통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와 교회 사이의 분열을 회개한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평화를 위해 일하며, 창조세계를 지탱하는 데 실패했음을 고백하는 바이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일치로 부르신다. 우리는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공급하고 계시는 새로운 생명의

3) 우리는 “폭력 극복 10년 운동”(Decade to Overcome Violence, DOV)을 통해 자메이카에서 열린 국제에큐메니칼평화회의가 채택한 <정의로운 평화에 대한 에큐메니칼 선언(An Ecumenical Call to Just Peace)>에 요약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정의로운 평화에 대해 배운 모든 것에 감사한다. 또한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WME)의 문서, <함께 생명을 향하여: 기독교의 지형 변화 속에서 선교와 전도(Together Towards Life: Mission and Evangelism in Changing Landscapes)>에 요약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선교에 대해 배운 모든 것에도 감사를 표한다.

전조, 신뢰할 수 있는 표지, 유능한 봉사자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갈망한다. 일치의 기쁨과 희망, 열정이 새로워지는 때는 바로 우리가 생명의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이다.

15.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들의 친교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와 공동의 삶 안에 표현된, 또한 세상에 대한 증언과 봉사를 통해 표현된, 하나의 믿음과 하나의 성례전적 친교 안에 있는 가시적 일치로 서로 부르고 또한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⁴⁾에 계속 헌신하기를 서로에게 촉구하는 바이다.

16. 이와 같은 공동의 소명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한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의 일치를 표현할 때, 우리는 함께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그리고 사도적 교회’라는 완전한 가시적 일치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교회의 일치를 추구함에 있어 우리는 다른 전통들이 가진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개방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전통이 가진 선물 또한 그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신학적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새로운 목소리와 다른 접근방법론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와 창조세계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며 함께 현대의 사회적·경제적·도덕적 문제들이 제기하는 복잡한 도전들을 다루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보다 공정하고 참여적이며 포용적으로 함께 사는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신앙의 공동체들과 함께 인류의 안녕과 창조세계의 안녕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바로 그 일치(요 17장)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 가져다주신 믿음과 사랑과 열정의 일치, 예수께서 아버지와 서로 나누신 것과 같은 일치,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교제 안에 내포된 바로 그 일치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교와 봉사 안에 있는 일치를 위한 교회의 소명을 부여받는다.

4) 2006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제9차 총회에 의해 개정된 WCC의 헌장과 규칙 제III항, 목적과 기능 중에서 우리는 1948년에 열린 제1차 WCC 총회에서 나온 말을 기억한다. “여기 암스테르담에서 우리는 …이 WCC를 창립하기로 서로 서약하였다. 우리는 함께하려고 한다(We intend to stay together).”

17. 우리는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린다.

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그리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상처 입은 세계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갈라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한 몸인 그분 안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당신의 성령과 함께,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한 하나님,
이제와, 그리고 영원히, 아멘.

용어 설명

AACC 전아프리카교회협의회(All Africa Conference of Churches)

보고서의 채택(adoption of a report) 총회는 보고서를 접수한 후 동의 과정을 거쳐 보고서의 일부 또는 모든 내용을 정책이나 합의된 성명서로 채택할 수 있다.

APC 총회기획위원회(assembly planning committee)

CCA 아시아기독교협의회(Christian Conference of Asia)

CCC 카리브해지역교회협의회”(Caribbean Conference of Churches)

CEC 유럽교회협의회(Conference of European Churches)

CICARWS 교회 간 원조-난민-세계봉사위원회(Commission on Inter-Church Aid, Refugee and World Service)

CLAI 라틴아메리카교회협의회(Latin American Council of Churches)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총회 회기 사이에 WCC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회가 선출한 기관

합의제 절차(consensus process) 공식적인 투표를 하지 않고 참가자들의 합의를 추구하는 과정.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자율적인 대화를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한다.

CUV 『WCC의 공동의 이해와 비전을 향하여』(Towards a Common Understanding and Vision)라는 WCC 문서

CWC 교파별 세계연합체(Christian World Communion)

CWME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

의결회의(decision session) 총대들이 의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회의. 다른 참가자들은 이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총대(delegate) 회원 교회의 공식적인 대표자로 총회에서 임명된 사람. 총대는 총

회에서 발언권과 의사결정에 참석할 책임이 있다.

파견 참관인(delegated observer) 비회원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명한 사람 또는 중앙위원회가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초청한 사람

파견 대표자(delegated representative) WCC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구가 공식적으로 지명한 사람 또는 중앙위원회가 총회에 참석해달라고 초청한 사람

교회론적인(ecclesiological) 신앙, 교리, 윤리 문제에 관한 교회의 자기 이해

실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중앙위원회가 선출하며, 중앙위원회 회기 사이에 WCC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점검하는 책임을 맡는다.

FABC 아시아주교회의연합회(Federation of Asian Bishops' Conferences)

전체회의(general session) 의식 행사, 공식적인 증언과 보고를 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 시간

청문회(hearing session) 참가자들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 회원 교회의 폭넓은 관심을 경청하고, 토론하며, 총회를 위해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시간. 이 시간에는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의사표시 카드: 청색(indicator card-blue) 발표자가 발언을 끝낸 후, 참가자들이 이 카드를 가슴 높이로 들면 발표자의 관점에 대한 냉담함을 나타내거나 동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의사표시 카드: 주황색(indicator card-orange) 발표자가 발언을 끝낸 후, 참가자들이 발표자의 관점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표시하거나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두 개의 의사표시 카드(indicator card-both) 모든 회의 단계에서 두 개의 카드를 가슴 높이로 들면, 대표자들이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야 할 때라는 의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IEO 국제 에큐메니칼 기구(International ecumenical organization)

중앙위원회 지도부(leadership of central committee) 중앙위원회 의장, 부의장(들), 사무총장을 말한다.

MECC 중동교회협의회(Middle East Council of Churches)

회의록(minutes) 토론, 발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회의 전체회의, 청문회, 의결회의 또는 중앙위원회나 실행위원회 회의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회의록에

는 통상 참고로 회의의 모든 보고서가 첨부된다.

회의록 서기(minute-takers) 사무위원회가 총회의 전체회의, 청문회, 의결회의, 그 이외 공식적인 회의록이 작성되어야 하는 회의에 대한 공식 회의록을 기록하기 위해 임명한 사람. 회의록 서기는 보통 WCC 직원 중에서 임명된다.

의장(moderator)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의장은 중앙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업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의장(moderator) 회의의 사회를 보기 위해 임명된 사람

마당(madang) 부산 총회 장소 주변에서 아래의 목적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축하행사, 전시, 성찰, 토론, 강의)

- 참가자들이 토론할 이슈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 회원 교회와 에큐메니칼 파트너의 관심사를 발표하는 장을 제공한다.
- WCC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여를 권유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의 발전을 촉진한다.
- 총회에 모인 다양한 문화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지평을 확장한다.

NCC 국가별 교회협의회

참가자(participant) 총회의 업무에 참석하는 사람. 대표자, 그리고 발언권은 있지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자문위원, 에큐메니칼기구의 공식 대표자, 비회원 교회의 공식 참관인, 퇴임한 중앙위원회 위원)

PCC 태평양지역교회협의회(Pacific Conference of Churches)

PCCC 합의제 및 공동협력상설위원회(Permanent committee on consensus and collaboration)

본회의(plenary) 총회 참가자가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개최하는 회의

의사진행발언(point of order) 참가자가 오해에 대해 설명을 하거나, 공격적인 언사에 대응하거나, 토론 중인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다루기 위한 짧은 발언.

회장(president) 이전 총회에서 선출된 최대 8명의 저명인사 중 한 사람이며, 에큐메니칼 정신을 고취하고 특히 자신의 지역에서 WCC의 활동을 설명한다. 직책상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절차에 관한 제안(procedural proposal) 절차 변경에 대한 제안.

토론모임 기록자(rapporteur) 사무위원회가 청문회 토론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

거나,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지 않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임명한 사람. 위원회 회의를 위해 임명된 조사위원은 그 회의의 기록 업무를 수행한다.

보고서 접수(reception of a report)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기로 동의하는 행위. 보고서 접수는 보고서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어떤 암시도 하지 않는다. 보고서의 내용이 정책이 되려면 보고서 전체가 채택되어야 한다. 보고서가 제시한 구체적인 제안들은 행동에 대한 합의를 추정하기 전에 먼저 제안 그 자체로만 검토하도록 한다.

회의 기록(record of session) 최종적인 의사결정문을 포함하여 청문회나 의결회의에서 진행된 토론 내용에 대한 기록.

기록관(recorder) 사무위원회가 의결회의의 토론을 이해하고, 최종 의사결정문을 포함한 새로운 합의 내용을 기록하고, 새로운 합의 내용을 파악하여 회의의 의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명한 사람. 기록관은 제안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번역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표자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장을 지원한다. 보통 회의 참가자 중 한 명의 총대를 기록관으로 임명한다.

REO 대륙별 에큐메니칼 기구(Regional ecumenical organization)

회의보고서(report of meeting) 주요 주제에 대한 발표 자료와 구체적인 제안을 포함한 회의 요약문

회기(session) (정의된 대로) 전체회의, 청문회, 의결회의 형식으로 개최되는 총회 회의 시간

SM 전문목회사역기관(Specialized ministry)

부의장(vice moderator) 중앙위원회가 선출한 WCC의 고위책임자이며, 필요할 경우 의장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